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인생에 어려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어려움 없으면 남을 업신여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7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2월 10일)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선거철 '空約' 되풀이 불교정책 현실화 미흡

제자리걸음 반복하는 불교공약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오는 3월 9일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만큼은 전통문화유산 보존 · 유지를 위해 불교계가 요청해 온 여러 숙원과제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통사찰을 옭매는 중복규제 해소, 전통문화 보존정책 강화, 국립공원 제도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불교계는 매번 선거를 앞두고 관련 정책들을 제안했고 각 후보들은 이에 공감해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다수 공약들이 현실화되지 못한 채 여전히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계종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교 · 사회적 과제와 현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하면서 각 정당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당 차원에서 전통문화발전특위, 문화유산진흥특위를 구성하고 불교계가 그동안 요청해 온 전통문화 보존 · 유지를 위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진흥특위(위원장 주호영)는 1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 전통사찰들을 옭매고 있는 각종 규제와 비지정문화재 일원화 필요성 등에 대해 공유 ·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더 적극적이다. 지난해 정청래 의원의 문화재 관람료 왜곡 · 폄훼 발언으로 불교계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인 만큼, 전통문화 보존 · 전승을 위한 불교계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교계 반응은 대체로 냉소적이다. 불교정책 자료집에 담긴 정책의 상당수가 이미 지난 17 · 18 · 19대 대선 때도 제안됐고 공약으로 발표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리지만 현실화되지 못한 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 때만 불심(佛心) 잡기식으로 불교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선거가 끝나면 외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뿌리 깊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화재관람료 문제다.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되는 문화재관람료임에도, 전통사찰들이 국립공원으로 강제편입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재관람료는 선거때만 되면 후보들이 앞다퉈 내거는 대표공약이었다. 이명박 前 대통령은 문화재관람료 갈등해소를, 박근혜 前 대통령은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선거를 앞두고 '사찰의 직접 징수 대신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렇게 3명의 대통령을 거쳤지만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매도하고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폄훼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퇴보하는 모양새다. 이는 불교계가 정청래 의원의 출당을 촉구하고 종교편향 · 불교왜곡을 규탄하는 승려대회를 예고하는 등 대대적인 결집에 나선 계기이기도 하다.

조계종, 20대 정책자료집 제작
전통문화 보존 · 사회 현안 등
각 당, 특위 구성해 개선 의지
불교계, 되풀이 공약에 '냉소'
문화재관람료도 수년째 반복돼

문화재청과 산림청 등 각 정부부처로 분산된 관리체계 개선과 중복 법률규제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전통문화유산 통합전담기구 신설 등의 대안 역시 '공허한 약속'으로 전락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장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은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전통문화 보존과 관련한 여러 현안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며 "오랜 세월 희생을 감수하고 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해 온 불교계 노고는 사라지고 '봉이 김선달'로 매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은 1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불기 2566(2022)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 재가 종무원 대표가 신년 떡 케이크를 절단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희망찬 한국불교 위해 함께 정진"

조계종 1월 4일 임인년 종무기관 시무식 봉행

기관 종무원들 온라인 동참
원행 스님 노력과 인내 강조
"능동적인 종무행정 임할 것"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1월 4일 중앙종무기관 시무식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임인년 시무식을 열고 "희망찬 한국불교를 위해 함께 정진하자"고 다짐했다.

조계종은 1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불기 2566(2022)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을 봉행했다. 이날 시무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에 따라 대중 모임이 제한되면서 최소인원만 참석한 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서로간의 합장삼배로 시작된 이날 시무식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무원들에게 "위기 대처를 위해 공심과 원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불기 2566년은 통합종단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위협으로 모든 일정이 자유롭지 못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한 가운데 종단은 주요한 종무 및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속되는 종교 편향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국가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36대 총무원 집행부 마지막 해를 맞아 종무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대내외 위기 속에 진행된 종무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불교 중흥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듯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일지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가 있는 인내로 반드시 성공하고야 만다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을 강조한 스님은 "공심과 원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종무에 임하고 모두가 상생과 통합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이루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원행 스님은 "기후위기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상호모순 상황에서 전통적 종교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국민 저변에 자리잡고 있는 불심을 일으켜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데 사부대중의 전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신년 덕담에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 강조하며 종무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종단의 큰 선거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라며 "안팎의 상황이 녹록치 않더라도 신심을 다해 임한다면 희망찬 새해, 복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단에 닥친 위기 대처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강조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한국불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종무원에게 달려있다"며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님 법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신심과 원력이 충실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무원을 대표해 윤혜영 사업부 주임은 "지금 우리가 한국불교의 희망임을 잊지 않고 흔들림없이 정진해 나가겠다"고 발원했다. 윤 주임은 발원문에서 "한국 불교 중흥을 이루기 위해 원력보살로 살고자 발심한 지난 시간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원력이 사회 곳곳 불법의 환희로 회향되길 바란다"며 "사찰과 스님, 신도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조계종 종무원의 존재 가치임을 증명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부처님 전에 기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농선 대원 선사의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완역본 출간기념
할인 판매

수덕사 만공선사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30권을 역해하고 1,463칙 전 공안에 착어를 하신 바 있는 불조정맥 제78대 농선 대원 선사께서 81권 화엄경과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드디어 출간 완료하였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에 해당하는 화엄경 81권 완역 출간을 기념하여 81권 세트 121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300부 한정, 선착순 주문 받습니다.
차후로는 지면을 통한 화엄경 추가 출간 계획이 없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문젠 010-3880-8980







印 부다가야 분황사 대웅전 상량식 봉행

구랍 26일 인도 현지서 3월 대웅전 완공 목표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추진 중인 백만원력결집불사의 핵심사업인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사업이 코로나19에도 순항 중이다. 조계종은 구랍 26일(현지시간) 부다가야 현지에서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한국 전통방식으로 열린 상량식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대신해 총도감인 부다팔라 스님이 상량문을 대독했으며 인근 주요사찰 주지 스님의 헌화 및 상량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향산 박철수 대목장을 비롯한 한국기술진과 인도 현지 건축관계자들도 함께해 원만회향을 발원했다.

원행 스님은 상량문에서 "한 사람의 원(願)이 모여 일만의 원(願)이 되고 그 원의 힘이 거듭 모여 대한불교조계종의 백만원력이 되었으니 이후 억조창생(億兆蒼生)의 희원(喜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마치 일적낙수(一適落水)가 연(連)하면서 큰 바위를 뚫어내는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치사했다.

상량문에 따르면 분황사 불사는 조계종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청하(淸河)문도회와 본원(本願 :붓다빨라)이 2019년 2000평의 경내부지를 조계종단에 희사하고 2020년 설매(雪梅)·연취(蓮翠) 보살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십시일반 기금으로 본격화됐다. 대웅전(80평)과 요사채(290평), 보건소(153평) 등 3개동 불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도정부와 비하르주정부, 현지 관계자들도 외호를 아끼지 않았다.

스님은 "2022년 분황사 완공 후에는 백만불자 천만불자가 순례와 정진을 통해 한국불교세계화의 터전이 될 것이니 이는 1700년 한국불교사의 대경사"라며 "한국전통양식의 분황사 신축법당에 백만원력의 대들보를 대중 정성을 모아 상량하니 불보살과 호법선신 그리고 동서남북 중앙의 토지신께서 이 도량을 영원히 가호해 달라"고 발원했다.

현재 분황사의 불사는 3월 대웅전 건축물 완공에 이어, 7월 숙소 및 보건소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거세지는 종교편향 규탄… 승려대회에 역량 집중

포교사단 · 대불청 · 비구니회 등 민주당사 앞서 항의시위 이어가
전국 교구본사들도 움직임 나서
조계종, 승려대회 조직 구성 완료

신성민 · 노덕현 · 송지희 · 임은호 기자



불교폄훼 종교편향을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조계종 포교사단이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진행한 항의집회 모습.

지난해 불거진 정청래 의원의 불교폄훼 발언과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는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불교계의 불편함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불교계가 대대적인 결집에 나섰다. 교구본사와 신행단체들은 불교폄훼를 자행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일 이어가고 있으며 조계종은 1월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를 봉행하기로 하고 정부의 불교왜곡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영석)은 1월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3차 정청래 의원의 종교폄훼, 불교왜곡 망언에 대한 항의집회' 를 개최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 정청래 의원을 규탄했다. 서울 · 인천 · 경기 지단 임원 및 포교사단 전문위원 40여 명이 동참한 이번 집회에서 포교사단은 △정청래 의원의 즉각 출당 조치 △민주당의 전통문화 의식 각성 △정청래 의원의 의원직 즉각 사퇴 등을 촉구했다. 포교사단은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매일 국회의사당 및 정청래 의원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인 시위는 1월 27일까지 진행된다.

불교 청년불자들도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안현민)는 1월 6일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불교 폄훼, 종교 편향에 대해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다. 스님과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 대응하겠다"며 항의 서한문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조계종 제16대교구본사 고운사와 말사 주지스님들은 1월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을 방문해 정청래 의원의 불교폄훼 · 막말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갖고 종교 편향 중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고운사는 1월 21일 조계사에서 개최하는 현 정부 종교편향 불교왜곡 규탄 전국승려대회에 제16교구 본 · 말사 스님 전원이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비구니 스님들도 "현정부의 종교편향이 도를 넘었다"고 성토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구랍 29일, 민주당사를 찾아 '정부와 여당의 종교편향에 대한 전국비구니회 입장문' 을 전달하고 종교편향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 등 집행부 스님들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전통문화보존위원장 김영배 의원 등에게 불교계 입장을 전달했으며, 해당 시각 당사 앞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합장한 채 침묵으로 변화를 촉구했다. 비구니회는 변화가 있을 때 까지 당사 앞에서 침묵 법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국 교구본사와 사암연합회, 신행단체들은 정부 및 여당의 종교편향 불교왜곡 규탄 입장을 공식화하고 사찰 법회 시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유하는 한편, 불자들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주요장소에서 항의집회 및 현수막 · 피켓시위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계종은 종교편향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1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역량 결집에 나섰다.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는 1월 6일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 조직구성안을 확정했다.

봉행위원회 조직 구성안에 따르면 전국승려대회는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스님을 증명으로 봉행된다. 자문위원은 원로회의 의장 및 원로의원, 명예원로, 전계대화상, 총림 방장으로 구성됐으며 지도위원은 현직 대종사와 대종사급이 맡는다.

봉행위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중심으로 종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전국선원수자회 대표, 전국비구니회장이 부위원장을 담당한다. 이 밖에도 상임봉행위원, 봉행위원, 집행위원회, 사무처, 외호대중 등으로 구성됐다.

승려대회는 명고와 명종으로 시작해 고불문, 봉행사, 종정 진제 스님 유시, 대회연설, 결의문, 국민에게 드리는 글, 발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승려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명종을 전국 사찰에서 동시간대 함께 21차례 울림으로써 종교차별과 불교폄훼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불교계의 굳건한 의지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조선조 500년 동안 버텨온 한국불교를 더 이상 폄훼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한다"며 "전 종도가 불교를 위해 위법망구(爲法忘軀)의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넘은 종단 비방 · 폄훼에 불자 행동 나서

상월결사 삼보순례단, 1월 6일 파사현정 걷기순례…20명동참
종정예하 모욕, 순례 '쇼'매도 해당매체 및 종무원 참회요구



상월선원 삼보순례단은 1월 6일 '파사헌정 걷기순례' 를 진행하고 종단을 비방한 이들의 참회를 요구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상월결사 불교중흥 순례에 대한 '걷기쇼' 매도와 조계종 종정 예하에 대한 모욕에 불자들이 규탄행동에 나섰다.

상월결사 삼보순례단은 1월 6일 서울 조계사를 출발해 온라인 매체인 불교포커스가 위치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까지 4km구간에서 '파사현정 걷기순례' 를 진행했다. 순례에는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과 지객 원명 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정충래 동국대 이사 등 순례 동참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걷기순례는 불교포커스와 일부 종무원의 종단 비방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불교중흥을 위해 수백km의 순례길을 걸은 이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종단과 종정 예하, 순례 비방에 대한 참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입재식에서 발원문을 통해 "삼보사찰 순례를 마친 우리는 다시 도심 한복판에서 파사현정 순례를 떠난다. 순례를 비방하는 이들이 참회하는 그날까지, 종단과 종정 예하를 모욕한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날까지 파사현정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보순례단은 이날 순례를 시작으로 매일 오후 3시마다 조계사부터 우리함께빌딩까지 걷기순례를 진행한다.

이번 사태는 종교편향과 불교폄훼로 분개하고 있는 불자들의 공분을 다시 한번 사고 있다.

통도사 사부대중도 1월 7일 조계종 종정 예하 모욕에 대해 백년대계본부와 불교포커스에 항의 방문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국사, 남산 마애불 세우는 불사에 1억원

1월 5일 종우 스님, 원행 스님에 천일기도 회향 맞아 기금 쾌척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주지 종우)가 총무원 36대 집행부 역점사업인 백만원력결집불사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에 힘을 보탰다.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은 1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중앙종회의원 성행 스님이 함께했다.

이번 기금은 1000일 기도 회향을 맞아 불국사 사부대중이 마련한 기금 중 일부다.

종우 스님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열암곡 부처님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총무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큰 불사금을 보시해 줘 고맙다"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꼭 바로 모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쓰러져 있음에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라며 "장비가 들어갈 수 없고 무게도 80톤에 달해 작업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부처님을 바로 모실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곡산 대광사 2022년 신입생 모집
명상 상담 대학

▣ 접수기간 : 2021년 12월 ~ 2022년 2월 13일(일) 까지
▣ 강의내용 :

과 목	강의내용
불 교	불교개론, 사념처관법, 대승반양사상, 유식과명상, 천태소지관
명 상	위빠 사나(알아차림, 자기집중, 호흡) → 이론, 실기 병행 및 무념 치유(특강)
상 담	상담 심리학, 성격 심리학, 가족 행복상담, 대상별 상담 이론 및 실체

▣ 강의시간 : 기본과정 [야간] 매주(화) 19:00 ~ 22:00
심화과정 [야간] 매주(수) 19:00 ~ 22:00
전문과정 [야간] 매주(목) 19:00 ~ 22:00
▣ 수 료 후 특 전 : 명상 상담 지도자 1, 2급 자격증 부여
심화과정(2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2급 자격증 부여
전문과정(1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1급 자격증 부여
▣ 특 강 : 매주(화) 테라피요가 명상
▣ 대 상 자 : 명상을 원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분은 누구나 가능
▣ 접수방법 : 대광사 종무소 방문 또는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인터넷 입학 신청
▣ 문의전화 : 031)715-3000
▣ 수 강 료 : 한 학기당 170,000 원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031-715-3000 / 3404

전통문화 현안, 대통령 3명 거쳐도 답보상태

조계종, 20대 대선 정책자료집 발간

18 · 19대 양대선 정책 되풀이
단일 사업 · 법안 일부만 변화
공원 · 문화재 · 전통사찰 관련
법 · 제도 개선 · 조직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안 마련 요구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최근 발간한 '20대 대선 정책자료집'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분야 현안에 대해 불교계가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과 개선 방안들이 담겼다. 그러나 상당수가 제18대 · 19대 대선 당시 불교계가 제안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불교계는 일관된 기조로 해결과 개선을 요구해 왔고 상당수가 공약으로 반영됐지만, 여전히 현실화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는 방증이다.

이번에 제작된 '20대 대선 정책자료집'은 크게 △국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유산 △국민과 함께하는 자연문화공원 △국민과 함께하는 평등세상 △남북이 함께하는 불교문화교류 △불교계 현안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전통문화유산 항목으로, 문화재청 조직정비를 통한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 강화, 비지정 사지 및 소재문화재 관리 일원화, 전통사찰 보존정책 강화, 문화재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 등으로 분류됐다. 대부분이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사안들이다.

조계종은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인 불교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전승,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해 적합한 예산배정과 통합적인 지원은 물론, 전통사찰 발전을 저해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하는 법령과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불교문화유산본부 설립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46.3%에 달하는 불교문화재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오랜세월 사찰이 관리하며 직접 보존 · 전승해 온 불교문화재의 특성을 정책적으로 반영해 유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이다.

이같은 제안은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문화재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2년 18대,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다. 18대 박근혜 前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사찰 문화재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지원'을 공약화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통사찰 등 불교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종합적인 보존 ·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통합전담기구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불교계는 다시 20대 대선 정책으로 같은 내용에 대한 제안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 개선 역시 마찬가지다. 조계종은 이번 정책자료집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성보의 무주물 간주 문제, 문화재보호법 도난시 공소시효 연장,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 9건의 규제법령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 역시 2017년 대선 당시 정책제안과 대동소이하다. 당시 불교계는 대통령 직속 '문화재 및 전통사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를 통해 문화재와 전통사찰 발전을 저해하는 국가법령의 독소조항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통사찰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이 가운데 전통사찰의 농지취득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일부만 개선됐다.

국립공원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공원 내 전통사찰의 기여도 및 가치 평가 등 공원정책도 십수년째 반복되는 공약이다. 이는 전통사찰이 국립공원에 강제편입됨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적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박근혜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됐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등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 방안,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간 불교문화교류 등도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불교계 제안을 반영한 수많은 공약(公約)들이, 그 필요성과 무관하게 단순히 불심을 잡기 위한 공약(空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대선때마다 불교정책을 제안하고 공약화되지만 이행률이 저조한 까닭에 매번 되풀이되는 상황"이라며 "각 정부가 불교계에 내걸었던 공약들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여부도 점검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꼭 필요한 정책제안들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병두 前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도 "전통문화 관련 현안이나 정책제안은 비단 불교계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기반하고 있다"며 "특히 불교문화유산은 사찰 내 건축물과 성보뿐 아니라 전통의식, 주변환경 등과 유기적인 관계로 이어지는데다가 스님들의 수행 · 거주지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불교계가 개별사안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역사회 함께하는 사찰일구기' 발간

불교사회연구소, 8개 사찰 분석
사찰의 현장 기반한 연구보고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사찰의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찰의 역할과 과제 등의 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2021년 12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찰 일구기'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불교사회연구소가 2020년부터 진행한 '미래사회 공동체 연구'의 결과물이다. 지역사회 소멸과 지역사찰의 존립위기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왜 사찰이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하는지, 지역활동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명호 중앙승가대 강사가 책임집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찰'이란 스님, 신도, 전문가,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주체로 참여해 해당 지역의 기후, 풍토, 역사, 환경 및 삶의 문화, 나아가 시대적 · 사회적 요구를 사찰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담아내고 실천하는 사찰을 말한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도심과 군 단위에 소재하는 8개 사례사찰 활동을 자세히 관찰, 사례를 분석했다. △실상사 산내공동체 △낙산사 불자마을 △구례 화엄사 농민회와 함께 일구는 통일쌀공동경작단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미황사 문화프로그램 △사무량심회를 중심으로 한 부산 대광명사 △지역을 실천현장으로 지역일꾼 성장을 목표로 활동한 시흥 대각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광주 선덕사 △서울 마포 성림사 주지 스님이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한 사례 등 감동적이고 다양한 현장 모습이 생생하게 정리됐다.

사례를 분석해 보면, 지역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찰의 공동체성 함양이다. 특히 사찰과 지역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스님과 신도 등 사찰의 핵심인력이 철학과 활동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보고서는 지역활동 실천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기본정보와 자료 제공 △지역활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 △전법 · 포교를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지역 중심 변화 등을 제언하고 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코로나19와 메타버스 등장 등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도 여전히 지역사회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임을 재확인한 연구"라며 "사람이 살고 있기에 붓다가 살아야 할 곳이기에 지역사회 공동체는 지켜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연구보고서는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02)730-0883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18차 세계불교여성대회 한국서 열린다

구랍 29일 제17차 대회 폐막서
본각 스님 수락…2023년 개최

세계 여성불자들이 모여 현대 사회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세계불교여성대회가 2023년 한국에서 열린다.

제17차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대회가 구랍 27일부터 29일까지 '경계를 넘어서'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세계불교여성대회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온라인 줌으로 진행됐으며, 29일 폐막식에서는 차기 제18차 대회의 한국 개최가 공식 발표됐다. 세계불교여성대회 한국 개최는 지난 2004년 제8차 대회를 중앙승가대에서 개최한 이래 19년 만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수락 연설을 통해 차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지난 2004년 제8차 대회를 중앙승가대에서 개최한 이래 다시 한번 2023년 제18차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이자 기쁨으로 생각한다"면서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대회에 여러분을 맞이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더 나아가 전 세계 비구니 스님들과 여성 불자님들의 대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과 샤카디타코리아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협회'는 1987년 설립된 세계 최대 불교 여성 단체로 샤카디타는 '붓다의 딸'이라는 뜻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여성 불자들의 국제 교류를 증진하고 학문적 연구 등을 통해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됐다. 한국지부는 2013년 설립됐으며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과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사 불교용품거리, 서울 미래유산 지정

서울시 23개 미래유산 선정
"테마거리 가치 커" 평가돼



서울 조계사 인근 불교용품거리가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종로 견지동 조계사. 조계사 일주문 양쪽 보도로는 불교용품점들이 줄지어 서 있어 마치 '불교용품 테마거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조계사 견지동 인근 불교용품 거리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2021 서울 미래유산'으로 '견지동 불교용품 거리'를 비롯해 총 23개의 유 · 무형 자산을 선정 · 발표했다.

선정된 '견지동 불교용품 거리'는 1970년대부터 조계사로 일주문 양옆에 불교용품 전문 판매점들이 모여 조성된 거리로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명소이다. 서울시는 "불교용품 테마거리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발굴과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서울 미래유산은 시민, 전문가 등이 제안한 선정대상 후보를 접수해 사실 검증과 자료 수집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및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소유자의 보존의지를 확인하는 동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2021년에는 총 96건이 신규 제안됐으며, 연구진의 기초심의를 거친 68건이 서울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쳐 29건의 후보로 선정됐고, 그 중 소유자가 동의한 23건을 최종 미래유산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에 대해서는 미래유산 인증서 및 동판 형태의 표식을 교부하고, 수리비 지원이나 맞춤형 홍보물 제작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신성민 기자

코로나 종식을 발원하며 임인년 새해 희망을 전합니다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 봉

종도일동

KBB한국불교방송주식회사, KBB한국불교방송신문, 월간시사뉴스, KBB한국불교방송자문위원회, KBB한국불교방송불자총연합천불회

사)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본산
총무원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문경백봉사 TEL 1577-1016, 054-571-6973,1030(협의회) / 팩스 : 054-571-7498
방송국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TEL 1670-2010

여성개발원 결별… 종단 '여성단체' 설립되나

조계종 포교원, 1월 28일자로 해지시행 공고… 사실상 해지
개발원 태생 '여성불자' 중심
정관서 '종헌종법 우선' 삭제
자율 운영 입장에 해지 공고
조계종 여성단체 창설도 관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이 여성포교를 위해 설립한 불교여성개발원이 포교단체 지위를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포교단체 해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구랍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교원 최고의결기구인 포교원 회의에서 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를 결정했음을 밝혔다.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다만 포교단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정한 참회 과정을 갖도록 해지 시행일을 한 달 뒤인 2022년 1월 28일자로 한다"고 밝혔다.



2013년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13주년 기념식 모습. 후원에 표기된 조계종 포교원을 비롯한 종단 사찰들이 눈길을 끈다.

설립한 조계종과 왜 멀어졌나?

불교여성개발원이 개발원을 설립한 조계종 포교원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2018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신임원장 선출을 위해 포교원에 김외숙 씨를 추천했지만 포교원은 2018년 8월 총무원장 등 3원장 사퇴를 촉구한 전국승려결의대회 참여 등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하지만 불교여성개발원은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원장을 선출하고 정관 개정을 통해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원장 권한 축소 및 조계종 종헌종법 우선 적용 조항도 삭제했다.

포교원은 이 이사회가 불법이며 이사장 권한 회복과 정관 복구를 하라고 지속 지시했지만, 불교여성개발원은 거부해 왔다. 이후 포교원과 불교여성개발원은 2021년 제8대 포교원장 범해 스님 취임을 계기로 대화를 가졌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성개발원 탈종단 행보 '필연'

불교여성개발원이 탈종단 행보를 걸은 것은 2018년 사태 전에도 일어나고 있었다. 포교단체 해지가 사실상 시간문제였다는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여성불자 신행문화 혁신과 여성지도자 양성 및 네트워크를 설립 취지로 하는 불교여성개발원은 처음부터 조계종 여성 종도 조직화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며 "개발원 임원진이나 여성불자108인회도 면면을 보면 사회적 명망이 높거나 불심이 깊은 것이지, 조계종 종도 정체성이 강해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자격검정을 하는 이들로 구성된 포교사단, 국제포교사회 등 다른 포교단체와 달리 이사를 비롯한 구성원 선임에 조계종과 관련된 자격검증도 없다. 2018년 사태 당시 불교여성개발원 이사진 태반이 조계종 신도증이 없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계종 여성단체 창설될까?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해지 후 자율적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관을 2019년도 개정 이전으로 바꾸라는 포교원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포교단체 해지 사유로 하고 있지만 이는 개발원 자율성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2019년도 개정 이전 정관이야 말로 2011년 포교원 지시에 따라 포교원장 스님 권한이 강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포교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정관을 이전 것으로 바꿀 순 없다"고 밝혔다.

불교계 대표 여성단체인 불교여성개발원이 독립 행보를 걷게 되면, 조계종 여성단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양성평등의 시대 흐름 속에 여성신도 조직화와 포교를 담당하는 여성전법단 혹은 여성신도단체 창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포교원 측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8대 포교원은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해 불교계 주요 영역인 '여성 포교'에 대해 포교종책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 한축 비구니 발전 위한 원년으로"

전국비구니회, 1월 6일 법룡사서 신년하례

올해 회관 건립 20주년
수행결사 · 복지 확대도

임인년 새해를 맞은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올한해 한국불교 한 축으로서 비구니 위상과 발전을 견인하는 원년으로 삼아 진력할 것을 발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1월 6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는 임기 내내 비구니회관에 상주하며 많은 성과를 낸 12대 회장 본각 스님과 집행부 소임자 스님들이 지난 2년간의 변화와 성과를 짚어보고 부족함을 채우는 다짐과 서로에 대한 감사를 나누는 법석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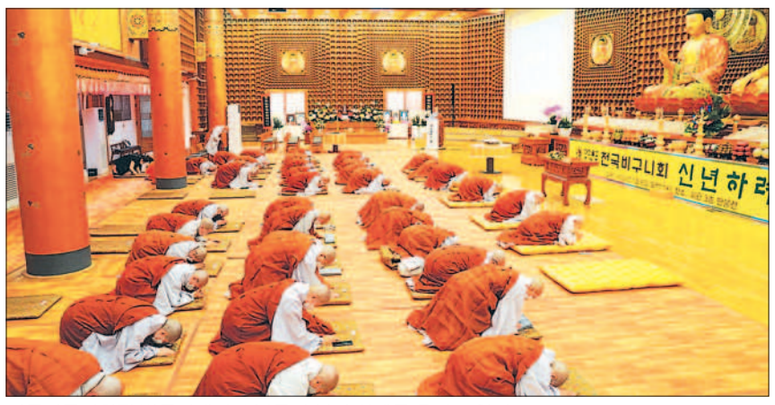
선원장 성본 스님의 헌향, 지회장 일지 스님의 헌다, 종회의원 철우 스님의 헌화로 시작된 하례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이 진행됐다. 또 불전 삼배와 회장 스님을 향한 하례에 이어 회장 본각 스님과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 수석부회장 현정 스님의 신년말씀으로 진행됐다.

회장 본각 스님은 임기 2년 동안 함께 한 12대 집행부, 그리고 전국비구니회에 무한한 신뢰와 격려를 전해준 모든 비구니스님들에게 재차 감사를 전했다.

스님은 "어려운 시기 함께 험난한 배를 타 주신 12대 모든 소임자 스님들께 절을 올리고 싶은 마음으로 감사를 전한다"며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6000여 비구니 스님을 대표하는 전국비구니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본각 스님과 소임자 스님들은 임기 내내 비구니회관 법룡사에 상주하며 비구니회 안팎으로 산적한 각종 과제와 업무를 맡아 코로나 시국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각종 법제개정과 조직 체계 개선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올해 건립 20주년을 맞는 비구니회관 곳곳의 노후된 공간을 개보수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비구니 스님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 수렴과 정책 반영은 물론, 비구니 수행결사를 통해 비구니승가공동체 회복에도 나서고 있다.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스님들이 불전 삼배를 올리고 있다.

본각 스님은 "2023년 상반기 샤카디타 세계여성불교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고 하반기에는 차기 비구니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기에 올해는 더없이 중요한 해"라며 "전국비구니회 발전이 곧 한국불교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수행결사와 비구니복지 등 지난 2년간 미흡했던 과제들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 발전토대를 다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비구니회관 건립 20주년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스님은 "노후된 건물 곳곳을 수리보수하면서 20년 전 어른 스님들의 원력 덕분에 허허벌판이었던 이 공간에 비구니스님들이 모일 수 있다는 감사함에 환희심이 솟았다"며 "종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 덕분에 가사원이 공간을 이전할 수 있었고 사찰음식문화센터와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공간 등도 추가로 만들어진만큼 20주년 기념행사는 어른 스님들을 비롯한 모두에게 감사를 전하는 법석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1월 11일 제12차 수행결사를 진행하는 한편, 1월 18~19일 상반기 소임자 워크숍을 열고 올 한해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교명상, 낙관적 태도로 자살 예방 효과

불교상담개발원 '2021 자살예방' 결과보고서 발간

'늘봄', '온나' 프로그램 분석
자아낙관, 대인관계 등 개선
선업 스님 "적극 활용 기대"

불교의 생명존중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확대 등을 통해 자살예방 뿐만 아니라 자살 고위험군과 유가족들의 사후 사회적응 등을 돕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 조계종 포교부장)은 구랍 15일자로 '몸 · 마음 · 쉼' 자살예방 명상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펴내고 이를 최근 배포했다.

불교상담개발원 '몸 · 마음 · 쉼' 자살예방 명상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공모 프로젝트로 2021년에는 '늘봄'과 '온나'라는 2종의 프로그램이 최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돼 현장에서 진행됐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늘봄' 프로그램은 마음챙김 명상을 기본으로 총 8회 진행됐다. 1회당 80분 가량 시간으로 구성됐으며, 18명이 참가했다.

'온나' 프로그램은 불교 12연기를 기반으로 WILL이라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매주 1회씩 총 8회로 구성됐다. 1회당 150분 가량 시간으로 구성됐으며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프로그램에는 20~30세 4명, 41~50세 1명, 51~60세 1명, 61세 이상 2명으로 총 8명이 참가했고, 남성이 2명, 여성이 6명이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 사전대비 사후 우울-행복 개선은 15.9점, 자아존중감은 5.6점, 마음챙김은 18.3점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상승했다.

불교상담개발원측은 특히 유가족들의 행복 및 마음챙김 자각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고 분석했다.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은 "특히 자살유가족을 비롯하여 고위험군과 자살시도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보인 것은 불교명상과 수행이 현대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반증한다"며 "자살예방과 함께 이들의 사회활동과 자아개발 등에도 함께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노덕현 기자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승 정 석원정 승 정 석혜암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위 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법륜, 석우암, 석정호, 석법광, 석종우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담허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의전원장 석법도 어산장 석도암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경호
부원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성덕 감찰부장 석성현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자광 사회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국장 석원종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회
부회장 석효성 부 장 석지현 국 장 석충효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도 충북중앙종무원장 석학명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일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진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성각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제천중앙종무원장 석공

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이 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감 사 성덕 성민
운영이사 남산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률자문위원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16층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이경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회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보덕심 (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원장 혜 정 (이영숙)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단임원
법사고문 도혜 홍보부장 원명 구미부장 혜진
울산원장 법광 부산부장 혜성 대구부장 혜련
종무원장 성종 경기부장 자운 청주부장 혜원
법사원장 목암 전남부장 혜명 충북부장 상학
경남국장 성광 포교국장 청운 삼척국장 정허
사업국장 종현 통영국장 덕인 영천국장 원명
포교국장 덕운 포교국장 혜림 통역국장 정연
종무국장 도연 봉화국장 혜정 포교국장 혜경
서울국장 명덕 화순국장 보정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Tel 054)682-5808 / Fax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Tel 02)303-5612



안심정사 시즌2 개막 한국불교 미래 만든다

안심정사 창건 30주년

1. 한국불교 새 바람 2. 행복을 일구는 기도
3. 신심의 회향과 나눔 4. 운명을 바꾼 불자들
5. 회주 법안 스님 인터뷰

임인년 새해, 안심정사가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30년전 논산 작은 도량에서 신도 한세대를 신도로 출발한 안심정사는 30년이 지난 현재 서울 강남 한복판 5층 건물전체를 사용하는 도량을 비롯해 전국 5개 분원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포교도량으로 성장했다. 회주 법안 스님의 원력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바로 한국불교의 진면목을 바로세우는 것, 이를 통해 불자와 뭇 중생들이 부처님께 더없는 신심으로 귀의해 보다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신념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한국불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불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향후 한국사회를 불국토로 만들어 갈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절박함이 더해졌다. 그래서다. 법안 스님은 2022년 임인년 한해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았다.

올 한해 안심정사는 지난 30년간 쌓아온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을 토대로, 대사회적 외연을 확장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변화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이는 안심정사의 향후 30년을 넘어 한국불교를 변화시킬 토대가 될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힘든 시기,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안심정사의 새해 원력을 회주 법안 스님에게 들었다. 〈편집자주〉

부산=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월 5일 오후 1시.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위치한 안심정사 부산도량이 북적인다. 초하루나 특정 재일도 아닌 평범한 평일 오후, 사찰에 불자들의 발길이 가장 뜸할 시간임을 감안하면 의아한 일이다. 심지어 안심정사 부산도량은 아파트에 인접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달맞이길 골목에서 더 좁은 골목으로 이어진 다소 '생뚱맞은' 위치로, 과장을 보태면 "이런 곳에 사찰이 있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한 장소다. 지나다니는 사람조차 흔치 않은 외진 골목 안에서 안심정사 도량 인근에만 차량이 줄지어 서있는 생경한 풍경이다.

"오늘 방생법회가 있는 날이어서 유독 사람이 많아요."

법안 스님이 미소로 양해를 구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중에도 스님께 합장 인사를 하고 삼배를 올리는 신도들이 쉼 없이 이어진 까닭이다. 일부는 최근 기도를 통한 가피담을 스님께 얘기하며 환한 미소로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이제는 채식을 해보려고 한다""올해부터 공양을 더 많이 하겠다"며 감사와 다짐을 함께 전했다.

코로나 시국이 지속되면서 지치고 힘든 사회적 분위기와는 일견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활기찬 분위기다. 방생법회가 있는 날이어서 신도들이 유독 많다는 스님의 말도 사실과 달랐다. 안심정사 부산도량 인근, 몇 안되는 상점 중 한곳의 사장님은 "그 사찰은 항상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수가 적어졌다"고 귀띔했다.

사실 이곳에 사찰이 존재한 지는 꽤 오래됐다. 그러나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찰이 된 것은 법안 스님이 이를 인수해 안심정사 부산도량으로 가꾼 이후부터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신도들을 기다리던 동네사찰이,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신심이 차곡차곡 쌓이는 사찰로 거듭난 셈이다.

이는 법안 스님이 불자들의 신심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불자들의 신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예경을 올리는 신심에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간절함이 있지요. 지금 한국불교의 위기는 이런 신심을 잘못된 방향과 시각으로 보는데서 출발합니다. 대다수 불자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하고 윤택하고 건강한 삶이지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출가자는 깨달음을 구해 중생을 구제하고, 재가자는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신심을 낸다. 그러나 지금 한국불교는 재가자들이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 풍토로 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물론 재가자들이 수행하고 기도해 깨달음을 얻는다면 더할 수 없이 훌륭한 일"이라며 "그러나 대부분의 재가자들은 각각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은 수많은 중생들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스님은 "재가불자들이 부처님께 귀의해 자신의 삶 속에서 고통을 해결하고 보다 윤택하게 만든 후에, 스스로의 신심이 깊어져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출가자들의 역할"이라고 단언했다. 삶 속에서 직면한 고통을 치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참선을 하고 화두를 참구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극히 일부만이

평일 한낮에도 북적이는 사찰
부처님께 귀의해 기도로 변화
소원성취 이룬 불자들이 모여
한국불교 변화시킬 원동력 돼

가능할 뿐 대다수의 재가자들은 결국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가르침을 통해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또 모든 이들에게 처한 상황을 고려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셨지요. 출가자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며 이를 통해 중생을 치유하는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고통으로 번민하는 재가자는 환자에 가깝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유해야지 이미 아픔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개개인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먼저 치료한 후에 행해도 늦지 않아요."

안심정사의 현재 모습이 이를 증명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의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대표적인 사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사회적으로 회향한 공양미만 130톤, 2020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수치다. 재수불공, 지장기도, 방생법회 등을 통해 집계된 안심정사 기도비도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힘든 만큼 기도에 의지하려는 이들이 더 늘었기 때문이다. 힘든 상황 속에서 소원성취 도량, '기도발 잘 받는 도량'으로 더 많은 불자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다. 안심정사에서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찰을 찾는 불자들이 보시하는 불전함의 공양금 뿐이다.

법안 스님은 인터뷰 내내 "불자들의 신심이 곧 한국불교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부처님께 귀의해 삶이 윤택해진 불자들의 신심이 모이는 지점에 한국불교의 저력이 있습니다. 불교계의 대정부, 대사회적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심의 결집이 필요하죠. 신심이 모인 곳에 원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불교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며 우리 사회를 불국토로 만들 수 있는 근본토대임을 잊어선 안돼요."

인터뷰 당일 오전 법안 스님은 부산시 공로패를 받았다. 매년 40톤 가량의 공양미를 사회 곳곳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회향한데 따른 것이다. 공로패를 받기 전에는 해운대 구청장과 차담을 했다. 스님은 "안심정사 부산도량에 모이는 불자들의 신심이 사회를 이롭게 하니 정치인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당연한 이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스님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사회적인 위상 강화, 외연 확장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도수가 줄고 출가자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한국불교가 위기라고 하지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필요한 것을 보지 말고 불자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표현으로 공급자 중심의 불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불교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불교계가 정부를 향해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 어떤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자들 역시 우리 스님들에게는 치유해야 할 한명의 중생일 뿐이지요."

그런 점에서 스님은 올해 더없이 분주하다. 안심정사의 30년 노하우를 딛고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불교지도자 양성과 한국불교 대사회 위상 제고, 외연 확장과 해외포교로의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중생구제의 최전방에서 활동할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한 안심불교학술원을 기반으로 삼아, 올해부터는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대학원 등 교육기관 인수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안심불교학술원의 확장을 넘어, 한국불교 미래를 지탱할 수 있는 토대로서 불교지도자 양성·배출을 위한 정식 교육기관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언론으로서 '안심위클리' 출범도 가시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선보일 안심위클리는 불교 내부가 아닌 대사회적 사안을 다루는 일반언론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나아가 평생교육원 운영을 통한 교육의 기능도 고민 중이다.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담보할 지속가능한 동력이라는 스님의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것이다.

안심불교학술원과 함께 지난해 출범한 안심불교포럼(이사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포럼은 정계·학계·언론계를 아우른 불교지식인네트워크로 지난해 11월 첫발을 내디딘 이후, 그동안 불자로 알려지지 않았던 지성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속

30년 축적된 불자들 신심 응집해
안심정사 시즌2 개막준비에 박차
사회적 위상 강화할 기반도 신심
교육·해외포교·기도 확장 기대

속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6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국동서철학회 임원들이 포럼 구성으로 합류했다.

"참 신기하지요. 그동안 불교지성인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긴 했지만 크게 염두에 두질 않았는데 안심불교포럼이 창립한 후 모이는 관심을 보니,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무심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계 지성인들이 모인 안심불교포럼이 한국불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참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안심정사의 해외도량 운영도 핵심과제 중 하나다. 신심에 기반한 한국불교의 저력을 해외에서 확인하는 과정인 동시에, 한국불교의 세계적 위상 제고를 위한 시도다. 이를 위해 코로나 이후 폐사위기에 처한 해외의 한국사찰 중 하나를 인수할 생각이다.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이 없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외연 확장을 통한 한국불교 위상제고의 토대를 닦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신심, 원력이 필요하다.

이는 법안 스님이 올 한해 기도에 더욱 매진키로 다짐하는 이유다. 올해 추진할 모든 과제들은 한국불교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한가지 목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로 돌아가 불자들의 신심을 일깨우고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다.

올해 스님은 2021년부터 이어온 1000일 기도를 회향한다. 그때부터 한국불교 발전과 세계화 원력을 세우고 또다시 기도정진에 입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도와 불자들을 위한 기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출가자가 기도수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스님은 이미 새벽 2시반부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왔다. 예불과 공양, 행사, 신도들과의 상담 시간을 제외하면 오롯이 기도에 쏟는다. 계율도 철저히 지킨다. 육식과 오신채를 철저히 금하고 전국도량을 오가는 일정에도 항상 사찰 내 신도들이 함께 하는 공양간에서 죽 등으로 공양하는 식이다. 간혹 식사 때가 맞지 않아 외부에서 공양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고구마나 옥수수, 감자 등을 준비한다.

그렇다보니 안심정사에서 스님과 함께 기도하는 신도들은 자연히 식습관도 채식 식단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스님은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 속에도 업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이 되면 자연히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식습관이 달라지면 기도의 가피도 보다 확연히 느낄 수 있다"며 "때문에 소원성취를 위해 기도를 시작한 불자들도 점차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면서 참된 불자로서 신심의 깊이를 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재수불공에도 더욱 진력하고자 합니다. 세속에 발 딛고 살아가는 재가자들에게 재물과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됩니다. 부처님께 귀의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일궈낸 불자들이 그 신심을 더욱 증장해 실천으로 회향한다면 자연히 한국불교의 위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불자님들은 더 행복해지고 한국불교는 더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이지요."

지난 30년을 딛고 한국불교의 새 미래를 열어갈 안심정사. 기도로 모인 신심과 원력들이 한국불교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우뚝 서는 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곧 불국토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안심정사 전국 도량

논산 안심정사(본찰)
HP : 010-7422-4557
T : 041-742-4557
주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203번길 12
계좌번호 : 농협 429-01-046837

서울 안심정사
HP : 010-6640-4557
T : 02-577-4557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길 18 안심빌딩
계좌번호 : 농협 317-0010-9502-51

부산 안심정사
HP : 010-9421-4557
T : 051-704-4557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다길 149
계좌번호 : 우리 1005-501-906762

대구 안심정사
HP : 010-5241-4557
T : 053-625-4557
주소 : 대구시 동구 신서동 550-1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1-0217-9108-2-1

창원 안심정사
HP : 010-8611-4557
T : 055-547-4557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97번가길 28
계좌번호 : 농협 351-1060-4346-63

김지장 스님 재조명하는 학술포럼 열려

제2회 한 · 중 지장문화 학술포럼 개최

제1회 세미나 논문에 대한 토론형식
조기정 교수, 법공 스님 등 발표토론
"지장사상 · 생애 재조명 가치 충분, 순례길 조성 등 문화교류 이어가며 이 시대의 지장신앙 가치 구현해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신라 왕자인 김지장 스님(김교각)은 중국 불교성지 구화산에서 지장왕보살로 추앙받았으며 구화산도 지장보살의 성지도량으로 여겨졌다"

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과 한국불교문화연합회(대표 김민성)가 구랍 29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제2회 한 · 중 지장문화 학술포럼 : 김지장의 사상과 생애'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0년 12월 13일 송광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회 한 · 중 지장문화 국제학술세미나' 발표 논문에 대한 토론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1부는 조기정 목포대학교 교수가 '신시대 새로운 언어 환경에서 지장문화 연구의 문화적 의의'에 대해, 김희정 한국전각협회 국제분과위원장이 '바다를 건너 임해에 상륙한 김교각 종적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문을 발표했다.

학술대회에서 조기정 목포대 교수는 김지장 스님의 지장사상과 생애를 언급하며 새롭게 조명할 가치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김지장 스님은 지장보살을 독실하게 믿었으며, 열반 3년 후의 모습이 지장서상과 비슷해 지장보살이 환생한 것으로 믿었다. 구화산도 지장보살의 도량으로 여겨졌다"며 "김지장 스님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원(大願)과 대효(大孝)에 대한 내용을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보완된다면 김지장 스님이 지장보살로 환생했다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래문화재단과 한국불교문화연합회가 구랍 29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제2회 한 · 중 지장문화 학술포럼 : 김지장의 사상과 생애'를 개최했다.

이어 2부는 '한 · 중 · 일 지장사상의 흐름'에 대해 법공 스님(前 동국대교수)이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제1회 한 · 중 지장문화 국제 화상학술세미나(2020년 12월 13일) 진행후기 및 자료 출판과 더불어 한 · 중 지장문화교류회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참여 대중의 질문을 받으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영축총림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의 총평으로 마무리됐다.

학술대회는 구화산불교문화연구회가 2018년에 한 · 중 양국 간 김지장 스님에 관한 연구 및 문화교류를 제안 받아 시작됐다. 이후 2020년 5월 김지장 스님의 탄생지인 한국과 당 상륙지 절강성, 성불지 안휘성이 연합해 절강성 임해시에서 학술포럼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양국은 2년에 한 번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됐고, 2년에 1회는 개별 세미나를 별도로 개최해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이어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제1회 학술세미나는 '김지장 사상과 생애'를 주제로 중국 측 35명(중국 절강성 임해 구화동사), 한국 측 35명(조계총림 송광사)이 실시간으로 동시 진행한 바 있다.

김지장 스님은 당나라에서 활동한 신라 출신의 스님이다. 중국 안후이성 주화산(구화산)의 화청사를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속명은 '김교각(金喬覺)'이다. 중국에서는 당 · 송 시대부터 지장에 관한 수많은 설화들이 전해졌으며 특히 입적한 뒤에 시신이 썩지 않고 등신불(等身佛)이 되었다고 알려지면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숭배되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김지장 스님은 중국 불교성지 구화산의 지장왕 보살로 추앙받는다. 오늘 학술대회는 김지장 스님을 다시 조명하는 자리이다"며 "앞으로 학술대회 및 문화교류를 통해 신라 왕자 출신이자 지장보살의 화현으로 일컫는 스님의 삶을 고찰하고자 한다. 스님의 삶과 수행을 널리 선양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과 협력해 순례길 조성 및 문화교류도 이어가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장 신앙의 가치를 구현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회향

신행수기 시상 및 장학금 전달식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1월 2일 설법전에서 한 달 동안 이어온 화엄산림대법회를 원만 회향했다.

회향법회는 방장 성파 스님의 회향법어, 화엄산림 신행수기 시상, 체육인불자 장학금 전달, 인사말, 영단참배 및 위패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통도사는 이번 화엄산림법회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온 · 오프라인 법석을 진행해 불자들의 동참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모범법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통도사는 유튜브와 네이버밴드 화엄의 숲으로 회향법회를 동시 방영했고 4000여 회의 실시간 조회 수를 기록했다. 아울러 회향식에서는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과 불자체육인 학생 장학금 수여식도 개최해 인재불사로 마무리했다.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에서 화엄산림 신행수기 영축총림상을 함강자가 수상했으며, 금강계단상은 서진익, 화엄등묘각상은 최정아가 각각 수상했다. 화엄산림 발원문 부문의 환희지상은 장성윤, 이구지상은 박순연이 수상했다. 이외 청소년 N행시 부문은 박호원 학생을 비롯한 14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체육인불자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이준혁, 신의진, 상서연(이상 경남체육고), 이준영(창원대), 김가인(동원과학기술대) 학생에게 각 1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1월 2일 설법전에서 한 달 동안 이어온 화엄산림대법회를 원만 회향했다.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은 회향법문에서 "화엄산림대법회에서 법문을 전한 법사 스님들의 〈화엄경〉 말씀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약이다. 코로나보다 더 힘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우리 중생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설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한 달 동안 방역 수칙과 안전을 위해 노력봉사해준 모든 사부대중과 법문을 전해준 법사스님들께 깊이 감사한다"며 "마지막으로 소대에서 영가를 천도할 때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회향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대승불교의 꽃으로 불리는 〈화엄경〉의 의미를 전하고 창건주 자장율사의 1400년 화엄사상을 계승하는 국내 최대 화엄법석이다. 매년 화엄산림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며 이번 법회는 구랍 12월 4일 입재해 30명의 법사 스님들이 〈화엄경〉 39구품에 담긴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불자들은 온 · 오프라인으로 산림법회에 동참했으며 회향법석은 10만여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소대의식과 행렬로 마무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락서암, 장학금 1320만원 전달

부산 서구 동대신1동에 위치한 락서암(주지 수월)이 구랍 27일 락서암 대웅전에서 '제3회 락서암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장학금은 총 1320만 원으로 대학생 6명에 각 1백만 원, 고등학생 6명에 각 50만 원, 중학생 4명에 각 30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이번 전달식에서는 특별장학생에게 특별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선정된 특별장학생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락서암 수월 스님과 인연을 맺은 후 올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다. 수월 스님은 학생들에게 "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주변을 화합시키며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인재가 되 달라"고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울산조계종聯, 희망 2022 나눔캠페인

대한불교조계종울산광역시사암연합회(회장 산옹, 이하 울산조계종연합회)가 구랍 29일 울산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성금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 성금품은 성금 1770만 원과 백미 10kg 500포(총 3천270만 원 상당)이며 울산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성금과 백미는 불우이웃돕기로 회향된다.

울산조계종연합회는 울산지역 조계종 소속 38개 사찰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연합회 창립 후 매년 성금 및 쌀 기부를 통해 자비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미래를 생각하는 금요기후행동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가 구랍 31일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제68회 미래를 생각하는 금요기후행동 캠페인'으로 2021년을 마무리했다.

그 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온 울산불교환경연대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을 캠페인으로 마무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울산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해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시민단체 10곳 등 50여 명의 활동가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과대포장 거절 등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환경보존 실천방안을 피켓에 담아 지구살리기 운동에 동참을 권유했다.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새해에도 기후와 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지장정사, 초등학생 특별선물

울산 지장정사(주지 현우)가 구랍 25일 울산시 동구 홈플러스에서 방어진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특별선물을 전달했다.

특별선물은 300만 원 상당의 의류 및 신발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26명을 선정해 전달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는 직접 울산시 동구 홈플러스 매장을 방문해 개인의 취향에 맞춰 마음에 드는 상품을 직접 선택했다.

강명희 방어진초등학교 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며 "지정정사 주지 현우 스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지장정사 주지 현우 스님은 "연말연시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의미를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팔공로 209
전화 053)657-0108 / 휴대전화 010-3390-2145
https://blog.naver.com/sm20815

2022 謹賀新年 임인년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조실 현봉 근일
회주 남전 호성
주지 등운
고금당선원 입승 법관외 사부대중 일동
부주지 정우 화엄승가대학원장 등현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도선 교무국장 혜산 재무국장 덕암
사회국장 함흥 호법국장 등화 포교국장 성민
산하기관 안내
선재어린이집 054) 855-6033
풍기어린이집 054)636-8016
안동청소년문화센터 054)841-2324
의성군노인복지관 054)861-1377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4)855-7801
재단법인 고운청소년재단 054)841-2324
안계노인복지관 054)862-7900
봉현어린이집 054)637-5179
연꽃어린이집 054)673-9108
연화보호작업장 054)633-6414
고운실비노인요양원 054)833-5900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054)634-3251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4)633-6415
최치원문화관 054)834-8200
의성지역재활센터 054)833-1225

고운사 42수 관세음보살(국립중앙박물관 전시중)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415(구계리116) | www.gounsa.net
전화 054)833-2324 템플스테이 054)822-6933

2022 謹賀新年 임인년
(사)한국불교선조계종
- 신년사 -

종정 혜 원
남과 비교하지도, 따지지도, 의심하지도 말며 오직 내 한마음 되살펴 봅시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자비광명의 새해가 일체 만물의 행복과 평화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흘러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이릅니다. 물처럼 나를 향해 내려오는 모든 것을 품고, 자신을 돌아보며 정진하는 새해에는 물소리 듣길 발원합니다.
총무원 : 대구광역시 북구 작원길9 성불사
전화 053)322-0567 / 팩스 053)322-0567

법화종 대표종찰 안정사 '탈종 시도' 논란

자격 박탈된 주지가 일간지에 '탈종공고'

총무원, 통영시청 통해 인지
안정사 담보 대출 시도 확인
'해종행위' 규정해 전격대응
재적승위원회 전원 징계절차
일부 스님, "모르는 일" 소명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권한없는 이들이 일간지에 안정사 탈종공고를 게재해 파장이 거세다. 사진은 안정사 전경.

법화종 대표종찰이자 천년고찰 안정사를 자격없는 자들이 탈종시키려 한 시도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승적 도용으로 주지권한을 상실한 호암 스님(김연기)이 한겨레 9월 3일자 신문에 게재한 '탈종공고'가 뒤늦게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해당공고에서 호암 스님은 "안정사 재적승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안정사재적승운영위원회' 역시 종단 공찰을 탈종시킬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공고의 효력은 전무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를 인지한 총무원측이 '안정사재적승운영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자 일부 소속 스님들이 "모르는 일"이라며 소명함에 따라, 일부 주도세력에 의한 탈종시도일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거세다.

법화종 총무원(원장서리 혜문)은 지난해 12월 '안정사 탈종공고'를 확인하고 종단 주요소임자와 종도들에게 긴급 공문을 발송하는 등 즉각 대처에 나섰다. 해당 공고는 9월 3일 한겨레신문 내지의 명함판 크기로 게재됐다. 내용은 "상기사찰은 대한불교법화종의 종지종풍을 봉대할 수 없어 안정사재적승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불기 2565(2021)년 9월 3일부로 탈종함을 공고합니다"이며, 공고 게재주체는 '안정사 주지(대표자) 호암(김연기)'로 기재됐다. 호암 스님은 승적도용으로 종도자격이 박탈되면서 주지임명이 원천무효화된 바 있으며, 재적승운영위원회는 이미 치탈도첩의 징계가 결정된 승헌·거암 스님이 주도하는 조직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들의 탈종공고로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호암 스님의 주지임명 자체가 이미 무효인데다, 거암·승헌 스님 등 안정사재적승위원회 소속 구성원들의 결격사유가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사찰이자 종단 공찰의 탈종절차가 단순 공고만으로 효력을 가지는 경우는 전무하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판례 역시 자격없는 자들의 전통사찰의 탈종공고는 사찰의 탈종이 아닌 개인의 탈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총무원측은 공문을 통해 "해종세력인 이재열(승헌 스님)과 임채곤(거암 스님) 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안정사 탈종공고를 게재하는 등 참담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며 "통영시청으로부터 안정사를 담보로 한 대출까지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종단 혼란을 틈타 대표종찰인 안정사를 종단에서 탈종시켜 사유화하려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현재 안정사재적승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치탈도첩의 징계를 공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당 탈종공고가 위원회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징계대상인 일부 재적승이 "주지라는 호암 스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련 회의가 있었던 적도 없다"는 취지로 소명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총무원은 "종찰 안정사를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부개인들이 탈종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종단 내부절차는 물론,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월운 스님 "계정혜 삼학 닦고 자비실천을"

전통불교태고종 1월6일 신년하례
전통불교태고종 현판식도 본산서


전통불교태고종은 1월 6일 총본산 원효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모인 사부대중은 종단 총무원 현판을 제막하며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의 원력을 세웠다.

전통불교태고종(총무원장 월운)은 1월 6일 총본산 경기도 남양주 원효사에서 종단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총무원장 월운 스님을 비롯해 감곡 만봉정사 혜봉 스님, 천안 미타사 지휴 스님, 성봉 스님, 인천 해음사 월해 스님, 대전 능심사 덕운 스님, 양평 관음사 법성 스님, 남원 수월사 진석 스님, 서울 가야선원 혜정 스님, 양주 율림원 선묵 스님, 장흥 성불사 도암 스님, 동두천 진명사 보일 법사 외 원효사 신도회 총회장 감로행 보살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혜경 스님의 집전으로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상축, 혜봉 스님 환영사, 총무원장 월운 스님 인사말, 종도간 상견례,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서 총무원장 월운 스님은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서로 도와주는 자비의 삶 속에서 부처님 지혜가 떠오른다"며 "코로나19로 무섭다고 움츠려들지만 말고 계정혜 삼학을 잘 닦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나서자"고 강조했다.

이어 월운 스님은 "공부라는 것은 젊으나 나이가 드나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 아직까지도 배움에 대해 갈증을 느낀다"고 정진의 중요성을 설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승속을 떠나 종단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신년하례법회 후에는 전통불교태고종 현판식도 거행됐다.

한편, 남양주 별내면에 위치한 원효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북부희망케어센터 등에 자비의쌀 300kg을 전달하는 등 매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남양주=노덕현 기자**

통영 용화사 인재불사 및 소외계층 돕기 앞장

1월 3일 장학금 및 기금 전달식
대학생 5명에 500만원 전달
등달기, 음악회로 기금 마련



용화사 주지 종묵 스님(사진왼쪽 두번째)이 불우이웃돕기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통영 용화사(주지 종묵)는 1월 3일 임인년 새해 장학금 전달식과 불우이웃돕기 자비나눔쌀 전달식을 경내 큰 법당에서 회향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통영 용화사 주지 종묵 스님 외 스님들과 김순자 신도회장, 김혜란 통영시 주민복지문화과장 등 통영시복지관계자, 신도회 일동이 참석했다.

장학금은 용화사 종목 스님과 독지가 신도의 정성으로 마련된 것으로 대학생 5명에게 〈불교성전〉과 함께 100만 원 씩 총 500만 원이 전달됐다.

영남대 김용환, 이화여대 하현주, 동서대 박태현, 부산대 문희영, 한국해양대 여지석 등 5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으며, 선발된 학생들은 용화사, 도솔암, 관음암과 신도들이 추천한 인재다.

또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 산사음악회와 소망등 달기 및 제야의 타종식으로 마련된 기금 500만 원과 백미 10kg 100포가 전달식에 참여한 김혜란 과장을 통해 강석주 통영시장에게 전달됐다.

이번 장학금, 성금, 물품은 총 1300만원 상당으로 물품은 저소득층 100가구에 전달 예정이다. 성금은 통영시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지정기탁될 예정이다.

통영 용화사는 2017년부터 5회째 매년 스님과 신도회에서 새해맞이 소망 등 달기 및 제야의 타종식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종묵 스님은 이날 "뜻깊은 불우이웃돕기 동참에 감사드리며 사회가 함께 밝아지고 희망찬 임인년이 되었으면 한다"며 "코로나도 하루 빨리 종식되길 기원한다. 새해 소망 등달기에서 보여준 불자들의 정성이 각 가정과 이웃에게 전해져서 어려움이 없어지고 소통하고 어울림 있는 사회가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2022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이웃에 사랑과 자비 나눔으로 실천하시는 용화사 종묵 스님과 신도들의 정성에 깊이 감사를 표한다"며 "올해도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성주사 일주문 준공기념식에서 참석대중들이 일주문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불모산 성주사, 일주문 세워지다

창원 불모산 성주사 일주문 준공기념 제막식 개최

전체 사업비 3억 6000만원
2019년부터 불사 노력 결실
법안 스님 "새해 원력 쌓자"

창원 불모산에서 불법 홍포를 이어가는 성주사의 도량불사 상징인 일주문이 준공됐다.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는 1월 3일 성주사에서 일주문 준공기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주지 법안 스님을 비롯한 성주사 대중 스님들과 허성무 창원시장, 이종엽 경남여성특별보좌관, 황규종 의창구청장, 김이순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삼귀의, 반야심경에 이어 경과보고, 주지 법안 스님 인사말, 축사, 사홍서원, 떡케익 커팅식, 제막식, 기념촬영, 폐회로 진행됐다.

이날 법안 스님은 "2019년 5월 소임 시작하고부터 산문을 표시하는 일주문 조성 필요성을 느꼈다. 경남도에 건의해 창원시청에서 검토하여 불사가 시작됐다"며 "일주문은 산문의 경계선으로 기둥이 하나라는 뜻이다. 일주문 안에는 부처님이 상주하는 세계이므로 세상과의 경계 표시"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의 번뇌가 있을시 산문의 일주문을 지나면 마음의 세속적인 일들이 정화되고 평화로 연결된다"고 의미를 설명하며 "불자들이 이 문을 지나며 마음이 정화되고 평화로워지길 바란다. 부처님 친견한 마음을 간직하고 세상사에 법향을 갖고 원력과 장엄으로 함께 하자"고 설했다.

경과보고에서는 전체 사업과정이 소개됐다. 성주사 일주문은 사업비 3억 6000만원으로 폭 4.86m, 높이 8m 가포식 팔작지붕으로 만들어 졌다. 2021년 10월 13일 불사가 본격 진행, 구탑 12일 목공공사 완료 후 구탑 15일 지붕기와 공사가 완료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성주사가 일주문 불사로 광명도량으로 거듭나, 어두운 세상을 밝혀 등불의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주문 제막식 직전 성주사에서는 조실 서해 흥교 스님의 대종사 품수 기념법회도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안동청소년문화센터, '최우수' 청소년수련



(재)고운청소년재단에서 운영지원하는 안동청소년문화센터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2021년 전국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근거로 2년마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평가다. 전국 500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안동청소년문화센터는 운영과 관리, 안전과 환경 등 평가항목 모두 호평을 받았다.

또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 종합안전위생 점검에서도 A등급을 받아 경상북도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31곳 중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았다.

전국 500여 개의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중 안동청소년문화센터를 포함한 민간 시설은 5곳 밖에 없다.

김성동 안동청소년문화센터장은 "이번 결과는 안동시의 다양한 지원과 관심, 지역민의 응원으로 낳은 결과"라며 "양질의 프로그램과 안전한 시설 제공으로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불교종립 정광고등학교 수계법회



미래 꿈나무들의 수계법회가 열렸다. 광주 불교종립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화엄사 주지)은 구랍 27일 정광고등학교 룸비니 체육관에서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수계법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고3 학생들을 제외한 학생 261명과 교직원 31명이 참여했다.

계사로 나선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화엄사 대중스님들은 삼귀의계와 오계에 대한 설명과 연비를 진행하며 부처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덕문 스님은 "삼귀의계와 오계는 불자로써 당연히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이며, '하지 말라'는 규제가 아닌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삶을 청정하게 하는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과 청성, 청사, 개도, 참회, 연비, 삼귀의, 선계상, 계청수여, 정근이 이어졌다. 이어 참석한 학생들을 위한 문화상품권, 여수 디오션 리조트 이용권 경품추첨도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신행회 광주 명예의 전당 헌액



광주 대표적 신행단체인 사단법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가 2021년 광주광역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광주광역시는 구랍 29일 시청 메인홀에서 '광주광역시 명예의 헌액식'을 개최했다.

헌액은 나눔과 기부, 자원봉사에 탁월한 업적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한 이들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자비신행회가 유일하게 단체수상했다.

자비신행회는 1999년 설립된 이후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만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청년·어르신 먹거리지원, 쪽방촌 난방지원, 코로나19 방역기관 응원프로젝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발굴해 추진하며 나눔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비신행회 김삼옥 상임이사는 "저희 회원들이나 봉사자들이 자비신행회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에 기부를 하는 것을 행복해 한다. 저도 마찬가지로 활동을 하면서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껏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반인들이 봉사와 기부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즐겁고 행복해 지고 싶으면 동참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적극적 기부 참여를 권했다.

헌액식은 이용섭 시장, 조석호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헌액대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헌액 현수막 제막, 헌액대상자 활동영상 상영, 헌액인증패 수여, 명예의전당 라운딩 등으로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도난 위험 성보, 3D 프린팅으로 지킨다

성보 대체 복제품, 고교생들이 제작

2012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
15개소 29개 불상 복제 · 봉안

박영빈 객원기자



14세기에 조성된 '보관석가여래상' 진품(좌)과 3D 프린팅으로 조성된 복제품(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사진출처=아사히신문

인력부족과 관리부실로 사찰 불상이나 법구 같은 성보 도난 사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난 위험이 있는 성보를 대체하기 위해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3D프린터를 이용한 복제품을 만들어 화제다. 지난해 12월 19일 일본 '아사히 신문' 은 학생들의 뜻깊은 활동을 보도했다.

일본 칸사이(關西) 지방 와카야마현은 예로부터 불교문화가 꽃피운 지역으로 불상과 법구, 전적류와 같은 다양한 성보가 산재해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출가자 부족 등의 문제로 무인법당이나 사찰이 증가, 성보들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고미술계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불상의 경우 도난 피해의 주요대상이다.

와카야마현립 박물관에 따르면 10년 전부터 연간 최소 170여 구 이상의 불상이 도난당했다. 피해를 입은 장소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 관리하는 무인 사찰이나 법당이다. 불상 도난은 단순한 문화재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상징을 빼앗긴 주민의 정신적 피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박물관 측은 이에 따라 진품은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예경의 대상으로 복제품을 원래의 자리에 봉안하는 프로젝트를 2012년부터 시작했다. 와카야마 대학과 와카야마 공업고등학교와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15개소 29구의 불상이 복제돼 봉안됐다.

먼저 와카야마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박물관에 보관 중인 불상들을 3D 프린팅 전용 카메라를 이용해 360도로 촬영, 취합된 데이터를 이용해 복제품을 출력한다. 복제된 불상들은 레진소재로 크기나 외형은 물론 세월에 의한 미세한 상처나 변형까지 완벽하게 재현된다. 제작된 복제 불상 표면에 와카야마 대학의 미술전공생들이 원본과 동일하게 채색을 입히면 불상이 완성된다. 박물관과 협력 학교들은 "지금껏 복제품을 조성할 경우 원본과 동일하게 목재나 금속으로 제작했고, 채색도 실제 금박이나 전통 석채물감을 사용해 비용이 많이 들었다. 또 원본과의 이형감이 강하게 드는 문제도 있었다"며 "3D프린팅의 경우 비용 절감과 함께 원형을 충실히 재현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물관 측은 "3D프린팅 복제불상을 받은 원 봉안처와 관계자들이 실물과 완벽히 동일한 점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제품을 안치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은 없었는가 대한 질문에 와카야마 박물관 오코우치 토모유키 주임학예원은 "복제품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생각보다 적다"고 밝혔다. 그는 "옛날부터 일본불교에는 비불(祕佛) 등으로 귀중한 불상들은 소중하게 봉안하고, 대중에게는 동일하게 조성한 대체불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원 소장처에 복제불상을 봉안할 때 단순한 복제품으로 소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무엇보다도, 지역 학생들이 직접 만든 불상을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점으로 꼽혀야한다"며 "젊은 학생들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최근 마을 법당에 원래의 불상을 대신해 복제된 불상을 봉안한 지역 주민들은 "학생들이 불상을 직접 조성해 봉안한다는 사실이 뜻깊다. 오랫동안 이어온 신심과 전통이 새롭게 젊은 세대에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2300년 전 고대 불교 사원 발굴

파키스탄 最古 유적 추정
'압시달 사원'으로 명명돼



파키스탄 최고(最古) 압시달(absidal) 사원 발굴 현장 전경.

지난해 12월 22일 불교 전문 매체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과 '힌두스탄 타임즈' 등 외신에서 파키스탄의 스와트 유적지구에서 고대 불교사원이 발굴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탈리아와 파키스탄 고고학 공동연구팀이 발굴한 이 유적은 현재 파키스탄에서 최고(最古)로 알려진 탁실라 유적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유적지는 현재 '압시달(absidal) 사원' 으로 명명됐으며 고대에 바지라(Bazira)로 불린 도시 유적에서 발견됐다. 이탈리아 고고학 파키스탄 사절단(MAIP) 국장 루카 올리비에리 교수는 "사원기단부의 연대를 측정해 본 결과 마우리아 시대(BC. 322~185) 시기와 일치했다"며 "이번 발굴이 중요한 이유는 간다라 시대 불교건축양식의 토대가 되는 양식 때문이다. 현재 가장 초기양식이라고 알려진 탁실라 사원유적보다 앞선 유적지"라고 전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해당 유적은 간다라 시대 불교예술과 도상학의 발상지이자 중앙아시아 전역에 불교를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다. 이번 발견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 중부까지 통치한 인도-그리스의 통치자 메난드로스 1세(BC.160~135 통치)와 후계자, 불교도들이 기원전 3세기 전부터 이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발굴에 참여한 고고학박사 미셸 마르나디는 "이 지역에서 발굴된 화폐 가운데 메난드로스 1세가 발행한 은화가 다수 발견됐다. 또 그리스 복장을 한 청년과 카로슈티 문자가 새겨진 인장 등 인도와 그리스 문화가 혼합된 유물도 출토됐다"며 "당시 문화교류의 증거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주재 이탈리아 대사 안드레아스 페라레세는 "이탈리아와 파키스탄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에 의해 놀라운 발굴이 이루어져 뜻깊게 생각한다. 또 발견된 유적이 고대 그리스와 인도 간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교류가 있었던 장소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깊다"며 "이탈리아와 파키스탄의 고고학 사이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 인상적이며 과거의 역사를 찾을수록 함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뿌듯함을 드러냈다.

고대 불교유적들이 산재한 스와트 유적 지구는 2008~2010년 도굴꾼에 의해 약탈된 현장으로 현재까지 약 5%만이 발굴된 상태다. 공동연구팀은 본격적인 발굴에 들어갔으며 추후 발굴에서 인도-그리스 시대에 대한 더욱 중요한 발견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한겨울 추위 목어쿠션으로 따뜻하게

日, 목어 본 딴 쿠션 화제



인테리어와 실용성을 겸한 목어쿠션.
사진출처=펠리시모 오테라부 공식 블로그

불교와 사찰의 생활문화에서 모티프를 딴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일본의 회사 '펠리시모 오테라부' 가 불전사물인 목어를 모티프로 한 쿠션을 발매해 화제다. 인테리어와 실용성을 겸한 불교문화상품에 대해 지난해 12월 15일 'PR타임즈' '파우치 뉴스' 등이 보도했다.

2014년부터 다양한 불교문화 상품을 제작해 오고 있는 펠리시모 오테라부는 불교문화 속에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다.

회사 측은 "불교신자나 교계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귀엽다' '흥미롭다' 등의 관심을 계기로 불교와 사찰문화와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품 제작을 위해 사찰이나 소비자들의 문의나 아이디어 제보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펠리시모 오테라부는 쿠션이나 가방을 비롯해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며 교계 안팎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목어쿠션은 일본의 선종사찰에 걸려있는 어판(魚板)에서 영감을 받았다. 한국의 불전사물인 목어에 해당하는 법구인 어판은 한국의 목어와 비슷하게 속을 파낸 나무를 물고기 모양으로 조각해 만들며 입에는 구슬을 물고 있는 형태로 조성된다.

회사 측은 "나라마다 입에 물고 있는 구슬에 대한 의미가 다르지만 일본선종의 한 일파인 황벽종(黃檗宗)에서는 삼독번뇌를 상징하는 번뇌주(煩惱珠)라고 한다. 눈을 뜨고 자는 물고기처럼 삼독심이 오고가는 것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시된 목어쿠션에는 이 번뇌주도 제대로 재현됐다.

목어쿠션은 인테리어와 실용성을 겸하기 위해 쿠션내부에 온수통이나 핫팩을 넣어 따뜻하게 안고 있을 수 있게 제작됐다. 또 배를 누르면 입에 물려진 번뇌주가 튀어나도록 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게 배려했다. 회사 측은 "따뜻한 목어쿠션과 함께 가족들이 한겨울 추위 속에 단란한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시 이후 네티즌과 구매자들은 재미있는 상품이 나왔다며 호평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솟아나는지 신기하다. 항상 가지고 싶은 상품들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한 스님은 "번뇌주가 튀어 나오도록 만든 구조가 재미있다. 꼭 번뇌를 멀리 던져버리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시베리아에 숨겨진 성보 '전단 석가모니불'

2m 목조 입상… 1901년 경 이운
종교 박해로 사찰 파괴에도 보존



에기뚜이 사원에 봉안된 '전단 석가모니불' 불상.
사진출처=부디스트 글로벌 도어

최근 유럽에 불교가 성행하면서 러시아 시베리아권의 전통 불교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베리아 전통 불교의 성보인 '전단 석가모니불' 불상이 주목받고 있어 화제다. 12월 20일 해외불교 전문 온라인 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은 이 불상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전단 석가모니불' 은 러시아 연방 부랴티아 공화국 수도 울란우데 근교에 봉안돼 있는 2m 높이 목조 불상입상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 불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가 설법하는 동안, 지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그리워해 전단향 나무로 조성한 불상이다.

이후 인도에서 카슈미르로, 다시 중국으로 이운됐으며 최종적으론 베이징의 홍인사(弘仁寺)에 봉안돼 중국과 티베트, 몽골 등지에 다양한 영험담이 전하고 있다.

1901년 의화단 난으로 홍인사가 전화로 소실되고, 불상은 러시아 군의 전리품으로 넘어갔다. 현재 불상을 봉안하고 있는 에기투이 사원 측은 "당시 강주였던 도르조 에르딘비 스님이 중국 순례 중에 소식을 듣곤 러시아군과 접촉해 사찰로 이운해 왔다"고 전했다. 이후 불상은 시베리아 불자들을 중심으로 모셔졌다. 소련의 종교박해 시대에도 사찰은 파괴됐지만 이 불상만큼은 역사유물로 취급받아 파손되지 않고 박물관에 보관됐다.

1991년 사찰이 다시 재건되면서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 불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원래의 자리에 불상을 안치했다. 현재도 '전단 석가모니불' 은 시베리아 불자들의 신심의 구심점으로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2022 謹賀新年 임인년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선찰
만 덕 사
(부산지방문화재3호 만덕사지)
주지 금산 박혜명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북구 구만덕로 63-13
전화 051)334-3009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 7시 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전국 사찰 성수통 특별설치
우주 진동파 에너지 목화석에 주입… 연구적 사용
우주의 에너지는 소리로부터 시작되어 진동과 울림에 따라 생성됩니다. 이미 세계의 과학자들이 양자물리학 이론을 밝힌 바 있고, 이는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낸 성수의 이론도 양자물리학 에너지를 적용시켜 만든 물질입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더욱 접근하여 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연구 끝에 불가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여 본 성수가 각 사찰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데 도움이 될까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진동파 에너지(성수, 악세사리) 사용후 얼굴, 눈주변, 목주름 변화

한달 후 변화 1주 후 변화 2주 후 변화
▣ 사용방법
- 사찰 규모에 따라 진동파 에너지 자료석(성수) 용기의 크기는 다릅니다.
- 진동파 에너지로 우러난 성수를 마시거나 얼굴에 뿌리면 주름이 펴지거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또한 이 물을 마시면 속이 편하고 몸이 가벼워지며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성수를 얻기 위하여 많은 대중에게 관심을 받을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주문신청 : 스님이 직접 체험 후 결정

진동파 에너지 자료석
● 연락처 : 010-3367-9684 ●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595-131 태광사

“마음챙김 힘은 고통서도 평정 누리는 것”



깨어있음
브라이언 피어스 지음
박문성 옮김
불광 펴냄/2만2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에크하르트신부와 틱낫한 스님에게 영감
인류의 오래된 질문 ‘마음 챙김’으로 답해
종교간 대화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 성숙
‘깨어있음’ 일상 생활서 적극 실천을 주문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영적인 생각과 지혜를 하나로 묶는 데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브라이언 피어스 신부의 저서이다. 저자에게 영감을 준 두 명의 영성 대가는 14세기 독일의 영성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신부와 현대의 틱낫한 스님이다. 저자는 시대적으로 동떨어진 게다가 아주 다른 종교적 전통에 속한 두 사람을 한 자리에 불러 대화를 시도한다. 그가 주목한 것은 불교의 마음챙김(mindfulness).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저자는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는 오직 지금뿐임을 깨닫기에 이른다.

종교간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했다고 한 저자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교 전통에 잠든 보석 같은 가르침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 불교도들은 마음챙김이라는 익숙한 수행이 불교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마음챙김 수행이야말로 해탈로 가는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책 전반에 흐르는 두 종교의 조용하고 평온한 어울림은 자신과 다른 것에 마음을 여는 ‘관대함’ 덕분이다. 두 영성가의 지혜와 깨달음이 담긴 아름다운 언어들은 우리를 단순히 도량 넓은 인간이 아니라 균형 잡힌 인간으로 이끈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그리스도교와 불교도만이 아니라 분열과 다툼, 갈등으로 메말라가는 현대 사회를 구원해줄 깊은 물줄기가 되어 줄 것이다.

“모든 종교의 뿌리에는 하나의 수맥이 흐른다” 종교간 대화를 통해 이웃 종교의 가르침에 진지하게 접근하면, 그 가르침을 통해 내 종교의 진리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브라이언 피어스 신부는 종교간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을 인상적으로 그려낸다.

저자 브라이언 피어스 신부는 틱낫한 스님이 설명하는 마음챙김 수행에 주목하는 한편,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을 연상시키는 ‘깨어있음’이라는 신앙적 실천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특히 중세 독일의 신비주의자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가르침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의 목표는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종교간 대화라는 관점에서 불교의 마음챙김과 그리스도교의 ‘깨어있음’을 비교하고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이 책은 그리스도교의 ‘깨어있음’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할 것과, ‘깨어있음’을 일상의 영성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이 책은 그것이야말로 우리들 자신의 삶으로 예수를 부활시키는 길이고, 제도권 교회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참된 생명력을 불어넣는 길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하느님이 누구이고 어떻게 이 현실에 역사하는지에 대한 답변 역시 이런 맥락에서 제시된다. 영원한 하느님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만 현존한다. 우리는 마음챙김 혹은 ‘깨어있음’을 실천함으로써 그러한 하느님과 만나게 된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분열된 세계의 일치를 이루어 낼 수 있고, 서로의 경계를 초월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적인 고통 속에서도 평정을 누릴 수 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의 시대와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열리기 시작한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과 불교도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다. 저자는 종교간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했다고 고백한다. 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교 전통에 잠들어 있던 보석 같은 가르침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발견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불자들은 이 책을 통해 마음챙김이라는 익숙한 수행이 불교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챙김 수행이야말로 해탈로 가는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마음챙김에서 찾는 참된 신앙 Q&A

Q. 불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는 공통의 영성적 기반이 있는가?”
A. 불교의 마음챙김(mindfulness)은 그리스도교의 ‘깨어있음’과 통한다.

Q. 하느님은 어디에 있는가?”
A.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현존한다.

Q. 하느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A.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불교의 마음챙김 혹은 깨어있음을 실천할 때 만날 수 있다.

Q. 마음챙김 수행은 꼭 불교에만 국한되는가?
A. 수행을 계속하면 보편 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마음챙김 수행이야말로 해탈로 가는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Q.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평온한 어울림은?
A. 자신과 다른 것에 마음을 여는 ‘관대함’ 덕분이다. 두 종교의 지혜와 깨달음이 담긴 아름다운 언어들은 우리를 도량 넓은 인간이 아니라 균형 잡힌 인간으로 이끈다.

이웃종교 통해 내종교 가르침 이해하는 여정

이 책의 저자인 브라이언 피어스 신부는 틱낫한 스님에 의해 널리 알려진 불교 전통 수행법인 마음챙김에 주목한다. 그 수행에서 영감 받은 저자는 그리스도교 전통의 여러 가르침, 특히 중세 독일 신비주의자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신부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교적 ‘깨어있음’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영성생활의 길을 찾아 나선다.

예수는 악마에게 사로잡힌 딸을 치유해 줄 것을 청하는 이방인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다. 종교와 전통이 다른 이방인과 대화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 종교적 규범에 위배된 것이었지만, 예수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저자는 마태오복음에 기록된 이 일화를 예수가 몸소 보여준 좋은 대화의 사례로 든다. 그리스도교 전통에 본래 있던 대화의 정신은 한때 희미해지기도 했으나 현대에 들어와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서 가톨릭교회가 선포한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우리시대’에 보이는 이웃 종교에 대한 존중의 태도로 부활한다. 그리고 40년 후, 성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종교간 대화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강조하기에 이른다. 가톨릭 신부인 저자는 자신이 속한 전통 안에 숨쉬던 이러한 대화의 정신을 인식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라는 범주를 넘어 불교의 가르침에 접근해 간다.

마음챙김으로 재발견한 그리스도교의 ‘깨어있음’

틱낫한의 가르침을 통해 저자는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을 발견한다.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일상의 매 순간을 생기 넘치고 깊이 있게 사는 것이다. 마음챙김을 통해 삶을 성심성의껏 살아가면 참된 삶을 맛볼 수 있다. 이것이 삶에서 일어나는 참된 기적이다.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은 그리스도교 전통의 ‘깨어있음’이 갖는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을 돕는다. 그리스도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깨어있음을 설명한다.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가 구원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인간의 본성을 취한 강생(降生)의 신비는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 깨어있음이다.

마태오복음에 나오는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구절,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며 깨어 있는 10명 신부들의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 또한 이 깨어있음이다. 현대의 영성가인 토머스 머튼 또한 깨어 있으면서 주시하는 것이 영성생활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에크하르트는 마음챙김 혹은 깨어있음을 ‘민첩한 인식’이라고 부른다. 에크하르트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내적 존재에 대한 민첩한 인식”으로 설명한다. 그것은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집중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인지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 숨겨진 경이로움을 보는 것이다. 에크하르트는 “오늘을 무엇이라 말할까?”라고 자문하고 ‘영원’이라고 답한다.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하느님이 영원이다. 바로 이 순간이 영원한 현재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과 공간은 오로지 지금 여기뿐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의 ‘민첩한 인식’을 통해 하느님을 만난다.

깨어있음, 하느님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

잠든 사람은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 예수가 죽은 뒤 걱정과 슬픔에 사로잡혀 엠마오 마을로 가던 예수의 두 제자가 그들이 만난 나그네가 예수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삶의 온갖 걱정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도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마음챙김 혹은 깨어있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챙김 혹은 깨어있음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하느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 루카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따뜻한 환대를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성심성의껏 살아감으로써 참된 자기를 발견할 때 은총을 받게 된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두 제자는 자문한다.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예수의 두 제자의 마음속에 타올랐던 불길, 즉 살아 있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만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항상 타올라야 한다. 그때 하느님 나라는 먼 곳에, 혹은 먼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현존하면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즉 “하느님 나라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교는 ‘이런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윤리적 계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결과 영성생활이 즐겁고 마음 벅찬 삶의 한 형태임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전통의 깨어있음을 실천한다면, 즉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하느님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활기찬 영성생활을 되살려낼 수 있다.

▲저자 **브라이언 피어스**는?

도미니코 수도회 신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제도의 도미니코 가족수도회의 성소 담당자, 도미니코 관상수녀회 총장의 지도신부였다. 이후 전임 순회 설교사로 돌아왔다. 가톨릭과 불교, 두 종교의 영적인 생각과 지혜를 하나로 묶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2005년 출간한 이 책을 통해 종교간 대화가 서로의 목표와 영적 실천을 더 풍부히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저서로는 〈예수와 탕자 : 전적인 자비의 하느님〉 등이 있다.

(사)전통불교 태고종 종도모집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기이 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도다”
그리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 즉 부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에 뜻을 같이하실 종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종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양식) ③ 주민증(앞 뒤 사본)
④ 사찰 내 외부 사진 1부 ⑤ 증명사진 3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급은 특별예우!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幻환



지혜의 두 경전(經典)
반야심경, 천부경의 실상(實相) 진리(眞理)의 세계,
그리고, 무한 사유의 책이 나왔다.

密(밀)의 작가 최신작
幻(환)1 반야심경, 幻(환)2 천부경, 幻(환)3 사유(思惟),
3권이 출간되었습니다.

환1은 반야심경 실상세계를 밝혔다. 환2는 천부경 성통광명 이천진리(理天眞理)의 세계를 밝혔다. 환3은 무한차원 이성(理性)이 깨어있는 지성(智性)의 세계이다.

박명숙(德慧林)저 / 향 1권 384쪽 / 향 2권 316쪽 / 향 3권 352쪽 / 정가 각 25,000원

密밀 1, 2권 신국판 양장본/박명숙 저/정가 35,000원
香향 1, 2, 3권 신국판 양장본/박명숙 저/정가 23,000원
사유를 담은 가야금 1, 2권 달빛 담은 가야금 1, 2권 박명숙 저/신국변형판양장본/정가 각 20,000원(사유) 각 23,000원(달빛)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수묵 위에 펼쳐진 〈금강경〉

강미선 '수묵, 쓰고 그리다' 展
서울 금호갤러리 2월 6일까지

'금강경-지혜의 숲' 22m 대형작품
한지조각 5149개로 〈금강경〉 완성
글 · 그림 경계 자유롭게 넘나들어



〈금강경(金剛經)-지혜의 숲〉, 2021, 한지에 수묵, 350x2200cm.

부분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수묵(水墨)으로 표현한 〈금강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 수묵화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강미선 작가가 2월 6일까지 서울 금호미술관에서 초대전 '수묵, 쓰고 그리다' 를 개최한다.

오랫동안 한지의 물성과 먹의 본질에 대해 탐구해온 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금강경-지혜의 숲' 등 3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여러 겹의 한지를 쌓아올리고, 표면을 두드려 한지 고유의 질감이 잘 드러나는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일상의 풍경과 사물을 담담한 먹빛으로 그렸다.

〈금강경〉 5149자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 자 한 자 써내려간 대작 '금강경-지혜의 숲' 은 전체 크기 세로 3.5m, 가로 22m의 대형 설치 작품이다. 강 작가는 세로가로 11cm 한지 조각에 〈금강경〉의 글자 한 자씩을 써서 5149자의 〈금강경〉을 완성했다. 강 작가는 매일 적게는 몇 장에서 많게는 수십 장씩 써가며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수행의 과정처럼 단단하면서도 밀도 있는 지지체인 자신만의 한지를 만들고, 그 위에 글을 쓰고 다시 먹물로 선염하는 과정을 거쳤다. 오랜 시간 정성스러운 작업을 통해 다듬어진 종이 위에 새겨진 글자는 작가가 바라는 일상과 실존, 예술이 하나가 되는 오늘날의 서(書)의 본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람객들은 바위산에 새겨진 글씨와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금강경〉을 멀리 또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공간 속을 거닐며 잠시나마 사색과 사유의 시간과 마주할 수 있다.

'관심' 연작에서는 수묵의 농담이 자유로우며 풍부한 먹빛의 느낌은 일상의 따뜻한 순간을 떠오르게 한다. 강 작가는 '관심' 을 주제로 추억이 깃든 물건이나 투영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작업의 소재로 삼아왔다. 일상적인 것들의 표현은 작가의 눈으로 보고 사생하는 것에서 출발함으로써 소박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의미를 갖게 된다. 작품의 소재가 되는 것들은 작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은 정감의 대상들로 결국 이러한 풍경과 정물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대상을 넘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의미한다.

'서가도(書架圖)' 에서는 전시장 벽면을 하나의 책장 형태로 구성해 사물과 화훼, 과일 등을 그린 다양한 크기의 여러 작품을 자유롭게 배치했다. 작가는 집 뒤뜰에 계절마다 피는 매화, 국화, 모란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감나무 등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한 풍경과 사물들을 소재로 삼는다. 전통 장식화 형태인 서가도 형식을 현대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관람객들이 화면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일상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한옥(韓屋)' 연작에서 작가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한옥의 기둥과 대들보, 서까래 등 한옥을 이루는 부분적인 요소이다. 굵고 간략한 수직과 수평의 선, 사선의 대각선은 동양화에서 다루는 선의 미적인 특질을 잘 보여준다. 진한 먹의 강한 필선이 만들어내는 채움과 비움의 공간이 흑과 백의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조화로운 균형과 절제의 미감을 전한다.

'무언가(無言歌)' 는 자연의 재료인 감을 이용한 작품이다. 감물은 물을 섞는 양에 따라 수묵의 기법인 담묵에서 농묵에 이르는 농담의 표현이 가능한데, 화면 전체에 깔린 황갈색의 색상은 묵(墨)과는 또 다른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어 낸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듯 작가는 그리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마음을 들여다보며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강 작가의 작업은 더욱 확장된 세계를 보여준다. 소소한 풍경과 정감있는 정물을 담묵으로 부드럽게 표현한 '관심' 연작과 강한 묵의 필선을 통해 새로운 조형미를 보여주는 '한옥' 연작, 명상을 주제로 자연의 재료인 감을 이용한 '무언가(無言歌)' 등의 신작을 보여주고, 전통 서가도 형식을 차용하여 현대적으로 구현한 '서가도' , 수행의 시간을 통해 완성된 대작 '금강경-지혜의 숲' 등 색다른 형태의 수묵의 세계를 보여준다.

강미선의 작업은 '한지' 라는 재료를 '재료' 가 아닌 '의미' 로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린 한지라는 평면은 단순한 기능적인 쓰임새를 벗고 창조를 전제한 '공간' 으로 정립된다. 종이라는 수용성의 기능에 머물지 않고 그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품는 것이다. 강 작가의 작업은 그 공간에서 시작된다. 단순한 바탕과 그 위에 더해지는 일정한 작업의 관계라기보다는 하나의 실존으로 구현된다는 점이 '강미선의 수묵' 이다.

'수묵, 쓰고 그리다' 란 표제는 단순한 서화동원(書畫同源)의 형식적 환원을 시도한 것은 아니다. 바탕과 그 위에 더해지는 수묵은 단순한 표상의 체계가 아니다. 바탕과 그 위에 더해지는 수묵은 행위와 물성의 만남이라는 극적인 과정을 거쳐 그 고유의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강 작가의 '수묵' 은 글과 그림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수묵화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강미선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석사 졸업, 중국남경예술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5년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다수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1993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등 다수 수상했다.

기와에 담은 관음보살 42수

이운정 관세음보살 42수 기와전
'평와(平瓦) 위에 핀 42수' 갤러리 마니 1월 30일까지
관세음보살 42개 손 기와에 그려
불화 개념으로 단청 기법 접목해



보인수

화불수

화궁전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에 등장하는 천수관음의 42개 손을 기와에 재현한 작품전이 열리고 있다. 불모 이운정이 1월 30일까지 경주시 갤러리 마니에서 천수관음 42수 기와전 '평와(平瓦) 위에 핀 42수' 를 열고 있다.

이 작가는 2008년 전통문양 부채전 이후 세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서 무위사 극락전 백의관음, 선재동자, 정병, 버들가지 등의 〈천수경〉 속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바탕으로 한 기와 작품 42점을 선보인다.

"관세음보살은 많은 보살 중에서 가장 친근한 보살입니다. 무수한 중생을 돕기 위해 두 눈과 두 손이 부족하여 천 개의 손에 천 개의 눈을 지녔습니다. '천(千)' 이란 상징적인 것인데, 경전에서는 42개의 손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에는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이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바로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관하고 해탈시켜 준다고 전한다. 그렇게 관세음보살은 많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많은 손이 필요하다. 관음보살의 '42수' 는 그 상징이다.

이 작가는 기와등과 기와골이 어우러진 지붕이 눈과 추위를 막아주듯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의 큰 위신력으로 코로나 시대가 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와전' 을 마련했다. 이 작가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천수관음 42수를 그려왔다.

갤러리 마니의 개관 기획전인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가 선보이는 기와그림은 불화의 개념으로 단청기법을 암키와(平瓦)에 접목한 작품이다.

이 작가는 수많은 기와가 모여 완성되는 지붕이 관세음보살이 자신의 위신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보호해주는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불화나 단청의 바탕재는 주로 장지 또는 비단 내지는 목판 등이다. 이러한 재료들은 언젠가 세월의 흐름에 훼손될 수 있다는 한계성을 지닌다. 하지만 전통 기와는 보존만 잘 한다면 오랜 세월을 버틸 수 있다. 이 작가가 기와를 바탕재로 선택한 이유다.

이운정 작가는 동국대학교 미술학과(불교미술전공)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불교예술학과를 졸업했다.

석사학위 논문으로 '18세기 불국사 대웅전 내부단청에 대한 연구' 를 썼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단청 1157호, 문화재수리기능자 화공 4568호이며, 전통문양지도사 1급 보유자다.

현재 한국전통문양교육원 원장, 아도문화진흥원 전문위원,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단청 외래교수이다. 저서로 〈금난 이운정의 사불 사경 시리즈 1, 2권〉, 〈금난 이운정의 선따라 마음따라〉, 〈금난 이운정의 사불 시리즈〉가 있다.

박재완 기자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를 위한 종단 | 수행을 위한 종단 | 더불어 가는 종단

대한불교 선밀종은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간부스님 및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사암등록 및 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가사)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종단사업 참여 안내

포교를 위한 종단사업을 추진하오니
운영(지분참여)에 관심있는 분은 참여바랍니다.

▣ 전자사업(전자뜸질기)
· 국내특허 : 10-2014-0143968 (전자뜸질기)
· 국내상표출원 : 4-2014-058697-9 (전자뜸질기)

뜸의 효과를 세계최초로 전자로 대체 개발한 임맥의 단전, 중완, 신궐, 양천추, 독맥의 명문, 현추, 양관, 양신유의 뜸질



문의전화 ▶ 010-3134-8484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www.sunmiljong.or.kr 총무원 T. 053)854-0803 / F. 053)854-0804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비대면 유지하며 불교 학술대회 '기지개'

2022년 불교계 주요 학술단체 신년 계획은

韓불교학회, 4월춘계대회
내년 50주년 행사 준비도
불교학硏 '요가와 명상'을
주제로 춘계 대회 개최해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로
국제학술대회 열려 '주목'
2년보류 세계불교학대회
개최 성사 여부도 주목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코로나19가 한국에 상륙한지 햇수로 3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그 기세는 여전하다. 지난해 이어 불교 학술계는 비대면 기조를 유지하며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를 준비 중이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는 오는 4월 29일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 Ⅳ' 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한다.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 학술대회는 1970년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 간행했던 '한국불교사상' 시리즈의 성과를 수용하며 재발굴 · 재정리하기 위해 연속으로 진행돼 왔다. 올해에는 '한국인의 경전' 을 주제로 진행되며, 〈삼국유사〉의 중심 내용과 주요특징들을 연구 · 분석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또한 한국불교학회는 현 학회장인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임기가 5월에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차기 집행부는 한국불교학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관련 기념사업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5월 중순 '요가와 명상' 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 계획이며, 추계학술대회는 '해오(解悟)' 와 '증오(證悟)' 의 문제를 다루는 논의가 이뤄진다.

임승택 회장은 "해오와 증오의 문제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오 혹은 지혜 반야 전통을 중심으로 한 수행론 조명이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반기에는 지난해 발표된 불교학 연구 논문 중 다시 읽어 봐야 하는 논문을 선정해 저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Re-KABS' 를 두 차례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신진학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가을 논문 발표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선학회(회장 정도)는 추계학술대회를 통도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조선불교 중흥조인 '환성 지안(喚醒志安, 1664~1729)' 을 연구 ·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2021년 열린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올해에는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해외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방룡)은 3 · 4 · 5 · 9 · 10 · 11월 월례논문발표회와 정기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정기학술대회는 10월 중 열리며 올해에는 조선 후기 송광사의 부휴계 사상들을 다룰 계획이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학술계간지 **〈불교평론〉**(편집위원장 이혜숙)은 다양한 주제의 특집을 준비 중에 있다. 당장 봄호에 예정된 주제는 '교육' 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뤄지는 경쟁 위주 입시교육의 문제점을 불교적으로 고찰하고 불교적 시각에서의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름호 주제는 '대만불교' 로 예정돼 있다.

선지식의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행사도 열린다. 특히, 올해는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열반 10주기가 되는 해이어서 굵직한 학술행사가 마련돼 있다.

대행선연구원은 오는 6월 17일 '한국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미래 방향' 을 주제로 대행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해외학자 11명과 국내학자 3명, 공동발표 2명이 발표자로 참여하며, 제4회 묘공학술상 시상식과 묘공학술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된다.

이밖에도 대행선연구원 3월과 7월, 9월, 12월 대행 사상과 불교학 연구 관련 논문들을 발표하는 계절발표회를 4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 개최하려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2년이 연기됐던 **제19회 세계불교학대회**의 한국 개최도 주목된다. 현재는 제19회 대회는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서울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은수 제19회 세계불교학회 조직위원장(서울대 철학과 교수)은 "현재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개최 여부를 살피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 사안이 결정되면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학술 연구소들도 다양한 학술행사를 준비 중이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현대 사회의 생명, 성, 기술 윤리 등을 정립하는 학술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도 스님은 " '자살 문제와 불교적 관점을 시작으로 낙태, 동물실험, 성 윤리, 성소수자, 안락사, 가상공간 등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제시하는 학술세미나를 열 계획"이라며 "종학연구소는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불교적 담론화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보 낭혜화상탑비→'대낭혜화상탑비'로

문화재청, 명칭 변경 결정
비문 주인공 무염 국사 시호
'낭혜'아닌 '대낭혜'로 확인돼
3월 성주사지 역사관도 개관


국보 보령 성주사지 대낭혜화상탑비의 모습. 최근 명칭이 변경됐다.

보령시 성주면 성주사지에 소재된 국보 낭혜화상탑비의 명칭이 '대낭혜화상탑비' 로 변경됐다.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탑비의 지정명칭을 '보령 성주사지 대낭혜화상탑비(保寧 聖住寺址 大朗慧和尙塔碑)' 로 변경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대낭혜화상탑비는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에서 지난 2010년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로 지정명칭을 변경했으나, 낭을 표기한 한자에 오류가 있고 비문의 주인공인 무염국사에게 진성여왕이 추증한 시호가 낭혜(朗慧)가 아닌 '대낭혜(大朗慧)' 임이 밝혀짐에 따라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이 탑비는 성주사에 머물면서 통일신라 말기 구산선문 중 성주산문을 크게 일으킨 무염국사(800~888)를 기리기 위해 당시 최고의 학자인 최치원이 왕명에 의해 지은 비석으로 10세기 초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신 높이 263cm, 너비 155cm, 두께 43cm, 전체 높이 4.55m에 달해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탑비 중에서 가장 거대한 풍채를 자랑하며,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각수법을 구사해 통일신라시대 석비를 대표하는 명작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에 국보의 명칭을 제대로 바로잡게 된 것은 시민의 의견이 결정적"이라며 "탑비가 위치한 성주사지의 역사관광자원화를 위해 '천년 역사관' 도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문화재 명칭 변경 안내를 위해 안내판을 교체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성주사지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을 오는 3월 개관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 영향평가제' 도입 본격화

문화재청, 1월 2일 주요 업무계획 공개

개발 행위가 문화재 보존 ·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 단계부터 조사하는 '문화재 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1월 2일 공개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 을 통해 "개발행위가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 단계에서 조사 · 평가하는 '문화재 영향평가 제도' 도입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2023년까지 문화재영향평가법 제정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4년 시범운영, 2025년 제도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표조사 대상사업을 우선 실시한 뒤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유산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국내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법정사무 추진으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대규모 개발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를 대상으로는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규제 적정성 등을 검토해 허용기준을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검토대상은 서울, 세종, 대구, 광주, 제주 등 378건이다. 수도권, 세계유산 등을 중심으로 우선 검증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총 1665건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학회 제5회 성운학술상 공모

2월 27일까지 마감… 4월 29일 시상식

한국 염불신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대중하기 위해 제정된 성운학술상의 올해 공모가 시작됐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는 "오는 2월 27일까지 제5회 성운학술상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논문 주제는 '경전에 나타난 염불신앙에 대한 고찰' 과 '염불신앙을 통한 재가자와 출가자의 가피 사례 연구' 로 △지장신앙 △관음신앙 △미타신앙 △주력신앙 △사경신앙 △경전독송신앙 △절 또는 기도신앙 등을 연구 주제로 삼으면 된다.

논문은 한국불교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불교학〉의 원고 집필 방식(통일안)에 따르며, 논문 이메일 송고 시에는 성운학술상 투고 논문임을 밝히고 투고자 소속과 전화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응모작은 심사를 거쳐 대상 1명(1000만원), 우수상 1명(300만원), 장려상 2명(각 100만원)을 선정 · 시상한다. 시상식은 오는 4월 29일 개최하는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9

▶ 50회 예고
아쇼까 일행은 숫빠라까에서 여장을 푼다. 연회가 끝나고 숫빠라까 상인수장과 데바는 정원에서 교역 얘기를 나눈다. 그때 비베깐난다 사문이 와서 합석한다. 비베깐난다 사문은 붓다의 제자 뿐나 존자가 숫빠라까 출신임을 알려준다.



아쇼까, 잃었던 군사를 되찾다

사바르마티강 강변에서 숙영한 아쇼까 일행은 마음 놓고 화톳불을 피웠다. 낮에는 열풍이 불 만큼 뜨거웠지만 밤에는 기온이 껑충 떨어져 턱이 떨릴 만큼 추웠다. 일찍 일어난 데바와 비베깐난다도 화톳불을 만들어 쬈다. 경계군사들도 경비대장의 허락을 받아 화톳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였다. 숫빠라까로 들어간 정찰조 조장이 돌아와 아쇼까에게 보고했다.

"숫빠라까에서 왕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왕보다는 상인수장을 더 존경하고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군사는 없던가?"

"무기를 든 노비들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해적들이 활개치고 다녔겠지."

"왕과 상인수장이 사바르마티강까지 나와 영접할 것입니다."

정찰조 조장이 수나빠란따국의 왕을 만나 협의했다기보다는 왕이 먼저 영접하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아쇼까를 만남으로 해서 숫빠라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조금이라도 되찾겠다는 의도였다.

이윽고 아쇼까 일행은 사바르마티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순행 군사를 태운 말들이 얕은 강물에 발목을 적시며 겅중겅중 나아갔다. 강 건너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쇼까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쇼까 일행이 강 중간쯤에 이르자 악기 연주소리가 들려왔다. 수나빠란따국 왕이 데리고 온 악대였다. 낙타를 타고 있는 초라한 사람이 수나빠란따국 왕이었다. 아쇼까가 강변에 이르자마자 수나빠란따국 왕이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부왕님이시여, 저희를 찾아주시니 영광입니다. 저희들은 부왕님을 편하게 모시고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소. 마우리아국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 만족스럽소."

말에서 내린 아쇼까가 수나빠란따국 왕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주름살이 자글자글했고 거칠었다. 이름만 왕이지 평민의 손이었다. 그가 숫빠라까 상인수장을 소개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도 왕처럼 검은 피부였지만 체구가 왕보다 두 배쯤 컸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입니다."

그러자 아쇼까가 데바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상인수장은 상인수장끼리 할 얘기가 많을 것이오. 서로 도울 수 방법을 찾아보시오."

"뵙기를 고대하고 있었소."

데바가 먼저 숫빠라까 상인수장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때 수나빠란다국 왕이 아쇼까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지난번에 해적들이 부왕님의 군사를 해쳤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해적들의 만행을 대신 사과드립니다."

"해적들이 숫빠라까에 버젓이 산다는 것은 마우리아국 수도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변방이기 때문이오. 마우리아국 대왕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해 생긴 일이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오."

아쇼까에게 면책을 받은 수나빠란따국 왕은 이번에는 공손하게 감사의 말을 했다.

"저희들이 손을 쓰지 못했던 해적들을 소탕해 주신 덕분에 이제부터 숫빠라까 항구는 평화를 되찾을 것 같습니다."

"해적들이 숫빠라까 도시를 활개치고 다녔다는데 사실이군."

"그 자들이 광분하면 숫빠라까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에게 정예군사가 없는 까닭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들에게 또 다른 해적을 막아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거느린 노비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도 한 마디 거들었다.

"그 자들이 다른 해적을 막아주어 고맙기는 했지만 너무 많은 돈과 물건을 갈취해갔습니다. 그래도 그 자들을 이용하지 않고는 바닷길 장사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병 주고 약주는 해적들이었군."

"그렇습니다. 해적들은 수나빠란따국 때부터 대대로 숫빠라까에 터를 잡고 살아온 독버섯 같은 무리였습니다."

왕이 데리고 온 악대는 빈약했다. 고물 같은 악기를 들고 있는 서너 명의 늙은 연주자들은 하나같이 멍하니 무표정했다. 아쇼까 순행단은 숫빠라까 상인수장을 따라 강변에서 도시로 이동했다. 도시는 남쪽 둔덕과 북쪽 저지대로 나뉘어져 있었다. 왕과 부자들은 둔덕에서 살았고, 장사를 하는 평민과 노비들은 저지대에서 살았다. 그런데 북쪽 저지대에는 평민들의 주거지와 천민들이 외국으로 팔 물건들을 만드는 상업지구로 나뉘어 있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말했다.

"저는 저 둔덕에 살고 있습니다."

둔덕은 저지대보다 조금 돌출됐을 뿐 아주 높지는 않았다. 그래서인지 긴 장대 한 개 정도의 높이로 벽돌을 쌓아 외성처럼 보호하고 있었다.

"둔덕이 있는데 왜 벽돌을 쌓은 것이오? 왕이 거주하는 곳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런 것이오?"

"아닙니다. 강물이 범람할 때를 대비해서 둔덕을 튼튼하게 한 것입니다. 둔덕에 오르면 강과 도시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길로 가시면 바로 둔덕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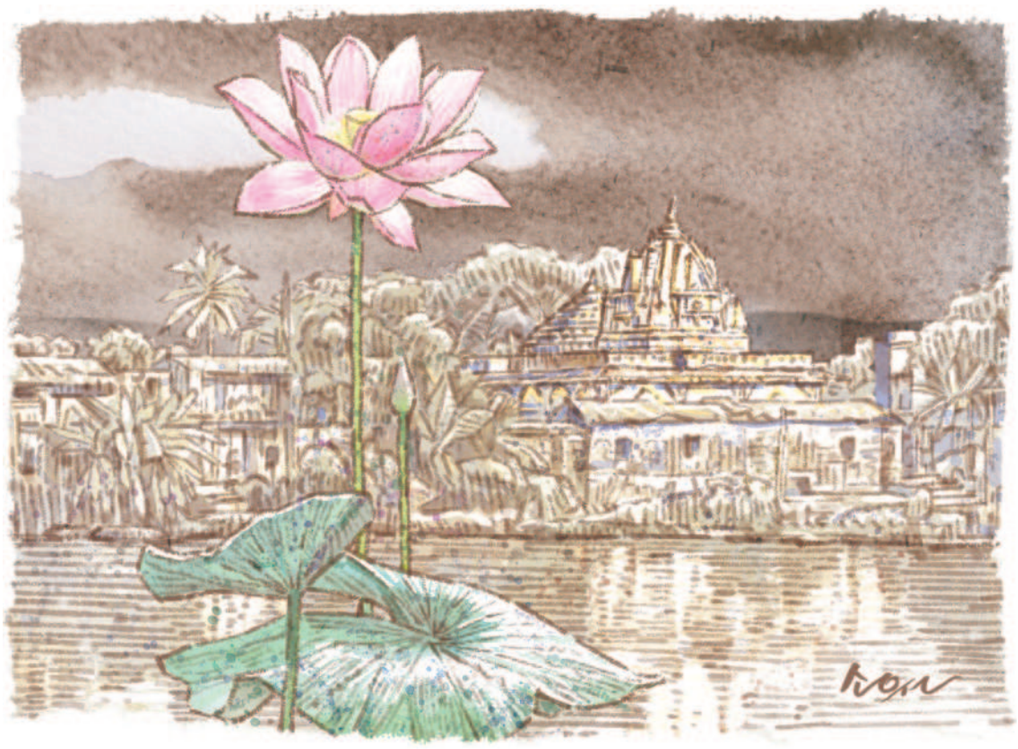
"아니오. 나는 저지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고 싶소."

아쇼까는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둔덕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지만 평민들이 사는 저지대로 가고 싶어 했다. 아쇼까의 명을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왕이 나서서 말했다.

"저지대 도시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앞서시오."

왕은 도시 안의 조선소를 먼저 갔다. 조선소에는 저수조가 붙어 있었다. 저수조는 강물을 끌어들였다가 빼기도 하는 곳이었다. 수리할 배를 도시 안의 조선소까지 오게 하고, 새로 건조한 배를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었다. 도시 안으로 들어서자 벽돌로 바닥을 깐 공동목욕탕 및 거주지 군데군데 여러 개의 우물과 빨래터,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운동장 등이 조성돼 있었다. 강물이 도시 외곽으로 흐르도록 인공수로가 있고, 거주지의 폐수가 빠져나가는 하수로도 따로 나 있었다. 모든 시설들은 붉은 벽돌로 조성되어 아주 아름답고 견고하게 보였다. 비베깐난다 사문은 숫빠라까의 편의시설들이 결코 빠딸리뿌뜨라나 바라나시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내심 놀랐다. 고타마 붓다 시절에도 이곳 사람들은 난폭하다고 했지만 이처럼 공공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에 뿐나 존자가 살았다는 것이 놀라웠다.



아쇼까 일행은 저지대 도시 중에서 천민들이 사는 거주지로 갔다. 천민들은 상인들이 주문한 구슬 목걸이, 조개를 가공한 팔찌와 발찌, 채색도자기 등 수출품을 만들기도 하고, 마노, 자수정, 상아, 대리석을 가공한 물건들을 좌판에 내놓고 판매를 했다. 아쇼까는 순행단에게 각자 마음에 드는 공예품을 살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주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데바를 통해 거듭 간청했다. 데바가 아쇼까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부왕님,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부왕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소?"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둔덕으로 올라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쇼까는 데바의 권유에 둔덕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제야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데바가 아쇼까의 장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친근해지려고 다가왔다. 데바와 숫빠라까 상인수장은 금세 허물없이 장사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로 변했다. 데바가 순행단 일원으로 수나빠란따국에 온 것은 대성공이었다.

과연, 둔덕에 오르자 숫빠라까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다. 무엇보다 바빌론이나 이집트로 수출할 물품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대한 창고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쇼까는 지금까지 보았던 창고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창고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비베깐난다 사문은 가끔 눈물을 흘리고 다녔다. 고타마 붓다 시절 뿐나 존자의 고향이라는 숫빠라까에 와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비베깐난다 사문은 감격에 겨워 중얼거렸다.

'아, 뿐나 존자님께서 이곳 고향으로 돌아오시어 성질이 흉악하고 사납고 거친 숫빠라까 사람들을 5백 명이나 불법에 귀의시켰단 말인가? 그 절터는 어디쯤일까? 저지대 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나도 산치 절을 떠나 뿐나 존자님처럼 이곳 사람들을 불법에 귀의시킬까?'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말했다.

"부왕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바라건대 순행길의 피로를 푸시고 숫빠라까 도시까지 마우리아국 대왕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옵니다. 부왕님께서 해적들을 단번에 제거해 주시니 저희 상인들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저의 궁으로 초대하자니 너무나 초라하여 우리 상인수장 저택의 연회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알겠소. 환대를 잊지 않겠소."

아쇼까 일행이 숫빠라까 상인수장 저택으로 들어서는 순간 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 왕이 강변으로 데리고 온 허술한 악대와 규모가 달랐다. 모두 젊은 악사들이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집트와 페르시아에서 수입한 관악기를 들고 나와 연주를 했다. 하인들은 순행단 목에 일일이 향기로운 꽃목걸이를 걸어주어 기쁨을 주었다.

연회장은 웃자인의 궁중연회장 못지않았다. 크고 화려했다. 진귀한 장식구와 이집트, 바빌론에서 수입한 조각품들이 연회장 가득 진열돼 있었다. 연회가 시작한 직후 왕이 환영사를 짧게 하고 난 뒤였다. 왕에 이어 숫빠라까 상인수장도 환영사를 했다.

"지금 저 무대 뒤에는 부왕님께서 좋아하실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순행단을 이끈 경비대장이 말했다.

"부왕님께 선물할 진귀한 보석이오."

"아닙니다. 진귀한 보석보다 더한 것입니다."

왕이 눈을 찡끗하며 말했다.

"우리 숫빠라까의 아리따운 미녀요."

"아닙니다. 부왕님께서 미녀보다 더 바라시는 무엇입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부왕님을 한시라도 빨리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은 물건 값을 흥정하듯 순행단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가 했다. 아쇼까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데바를 쳐다보았을 무렵이었다. 숫빠리까 상인수장이 손을 치켜들자 악대가 다시 흥겨운 연주를 시작했다. 뒤이어 무대 뒤쪽에서 지난번 정찰 나왔을 때 해적들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렸던 군사들이 등장했다. 모두 일곱 명이었다.

경비대장은 그들을 보자마자 무대로 달려 나왔다. 한 명 한 명 껴안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아쇼까 역시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몹시 흡족해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말했다.

"저는 부왕님의 군사를 노예로 사지 않았습니다. 해적들에게 그런 척했을 뿐입니다. 저는 언젠가 부왕님이 오실 줄 알고 군사들을 저희 저택에서 편하게 머물게 했습니다. 해적들을 소탕시켜 준 부왕님의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쇼까는 숫빠라까 상인수장의 말을 듣고는 감격했다. 잠시 후 아쇼까는 수나빠란따국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무역권을 그에게 주겠다고 선언했다. 웃자인과 바라나시 꼬삼비, 빠딸리뿌뜨라 등의 교역은 데바와 상의해 결정하라고도 명했다. 그러자 연회장 모든 사람들이 박수로 환호했다. 박수소리가 연회장 밖까지 간간이 터져 나왔다.〈계속〉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❶ 선승의 삶



▶**이강옥 교수는** 경남 김해에서 출생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와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영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예일 대학교 비교문학과, 뉴욕주립 스토니브룩 대학교 한국학과의 방문교수로 연구했다. 한국구비문학회, 한국어문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두계학술상(2020) 등을 수상했다.

선승의 삶 속에 보이는 부처님 삶



우리나라 문화에서 선승의 일대기나 수행담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 깊은 감동을 동반하며 면면히 전승되고 있다. 선승의 수행담은 그 긴장과 흥미, 혜안과 충격 면에서 눈부신 광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불교 수행자에게 수행의 길잡이가 되고 일반대중들에게는 진지한 삶의 길잡이가 된다. 수행담은 거듭 이야기되면서 더 극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더 그럴듯하게 꾸며져 덧붙여지기도 했지만 일정한 도를 넘지는 않는다. 그것은 실존한 선승의 경험을 모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승의 일대기나 수행담에서 이야기 자체를 즐길 뿐 아니라 그 이야기의 출발이 된 선승의 삶과 수행의 태도 및 방법을 지속적으로 떠올리면서 어떻게 한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을지 거듭 사유하게 된다.

선승이라는 존재와 그 일생은 우리 주위의 보통사람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게 보일 때가 많다. 선승이란 본래 특별한 면이 있었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뿌리 뽑고 잘라내서 스스로를 탈바꿈하고 혁신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럴진대 선승은 가끔 우리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런 선승을 향해 무턱대고 환호를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 업의 수준에서 오해를 하기도 한다. '비범한' 선승과 중생인 나 사이에 아득한 심연이 있음을 인정하고는 망연자실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승이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각하는 정도나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선승의 삶은 부처님이 보여주신 모범의 테두리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어떤 인물을 선승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거기서 부처님의 일생을 확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인 것이다. 부처님의 일생과 가르침이야말로 선승의 수행담에 대한 사유의 출발과 귀결점이 되어야 하겠다.

부처님의 전생과 현생은 〈자타카〉, 〈태자서응본기경〉, 〈증일아함경〉, 〈보요경〉, 〈수행본기경〉, 〈사분율〉, 〈석가보〉, 〈석가씨보〉, 〈불소행찬〉 등 경전이나 고승의 저술에 기록되어 있고, 〈팔상록(八相錄)〉에 요약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운묵 스님이 한문서사시 〈석가여래행적송〉에 부처님의 일생을 담았으며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는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등 국문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상세히 소개했다.

'팔상(八相)'은 부처님 일대기 중 뜻하는 바가 가장 크고 깊은 대목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팔상도' 계통의 그림을 그려서 팔상을 인상적으로 제시해왔다. 첫째,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으로, 도솔천에 계시던 부처님의 전생 호명보살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속세 중생을 측은히 바라보시고 하얀 코끼리를 타고 내려와 마야부인의 태중에 드는 장면이다. 둘째,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으로,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나무를 잡은 어머니 마야부인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탄생하시는 장면이다. 셋째,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으로, 동서남북의 성문으로 나가 생로병사의 세상을 관찰하고 북문의 출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하기로 결심하시는 장면이다. 넷째,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으로, 궁궐의 연회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성을 나가 출가하는 장면이다. 다섯째,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으로, 설산 깊은 곳에서 6년 동안 고행으로 수행하는 장면이다. 여섯째,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으로, 보리수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서 마귀의 항복을 받는 장면이다. 일곱째,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으로,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를 만나 처음으로 깨달은 바를 설법하는 장면이다. 여덟째,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으로, 45년 동안의 중생제도를 끝내고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는 장면이다. 요약하여 표현하면 '태몽 → 탄생 → 유관 → 출가 → 수행 → 득도 → 설법 → 열반'이 될 것이다. '태몽'에서 현생의 바탕과 출발점으로서의 전생을 얼핏 보여줄 뿐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일생을 암시한다. '탄생'은 앞으로 전개될 일생이 얼마나 귀중하고 찬란한 것일까를 암시한다. '천상천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모두 고통스러워하니 내 마땅히 그를 편안하게 하리라'는 아기 부처님의 첫 말씀이 그것이다. '유관'은 생 · 노 · 병 · 사의 고통과 그 해결이라는 출가의 구체적 계기를 제시한다. '출가'는 세속의 부귀영화가 부질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출가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수행'은 자기 생명을 던지는 치열함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득도'는 깨달음이란 숭고한 혁신이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설법'은 그 깨달음의 궁극 목표가 중생제도에 있으며, 중생제도로 나아가지 않는 깨달음은 의미가 없음을 가르친다. '열반'은 육신의 죽음 앞에서 여여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주시는 자비심을 보이신다.

선승 일대기 부처님 일대기 닮아
선승 삶, 부처님 삶 반복 & 변주
변주, 시절인연 적용한 방편의미
선승의 삶 변곡점 찾아 소개예정

팔상으로 요약되는 부처님의 일생은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고 흠모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불교수행자에게 언제나 귀감이 된다. 그래서 다들 부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선승의 일대기가 부처님 일대기를 닮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 선승의 일대기나 수행담은 고려시대 각훈 스님의 〈해동고승전〉,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동아시아 각국이 '고승전(高僧傳)'을 써서 자국 고승의 내력을 독자적인 방법으로 서술하고자 한 흐름 속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열전에 승려의 전기는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과 시정의 뜻이 서려 있기도 하다. 〈해동고승전〉은 선승의 수행과정이나 깨달음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반면 〈삼국유사〉는 선승들의 높은 깨달음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일연 스님은 신라 말 도의(道義)선사가 선종을 개척한 가지산파의 법통을 이은 분이다. 가지산파는 선문구산(禪門九山, 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까지 서라벌에서 먼 지방에서 일어났던 선종의 9개 종파)의 하나로, 귀족불교의 위세에 억눌려 있다가 고려 후기 선종이 활력을 얻자 함께 번창했다. 〈삼국유사〉도 이런 불교사의 전개 과정에서 저술된 것이다. 〈삼국유사〉는 선승의 일대기는 물론 선승의 일화를 통해 깊은 불교적 의미를 함축하는 불교설화를 많이 싣고 있다. 여기서는 원효, 의상, 혜공, 혜숙 등 고승들이 등장하며, 그들은 평범하거나 비속한 행동을 통해 비범한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주곤 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억불정책에 의해 선불교도 심히 위축되었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청허(淸虛), 부휴(浮休), 서산대사 등을 통해 선교(禪敎)의 가르침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백파(白坡, 1767~1857)는 〈선문수경(禪文手鏡)〉을 저술하여 선론(禪論)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초의(草衣, 1786~1866)와 우담(優曇, 1822~1881)이 비판적 의견을 내자, 백파의 4대 법손인 설두(雪竇, 1824~1889)가 〈선원소류(禪源遡流)〉를 써서 백파의 설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 후 축원(竺源, 1861~1926)이 〈선문재정록(禪文再正錄)〉을 지어 백파와 설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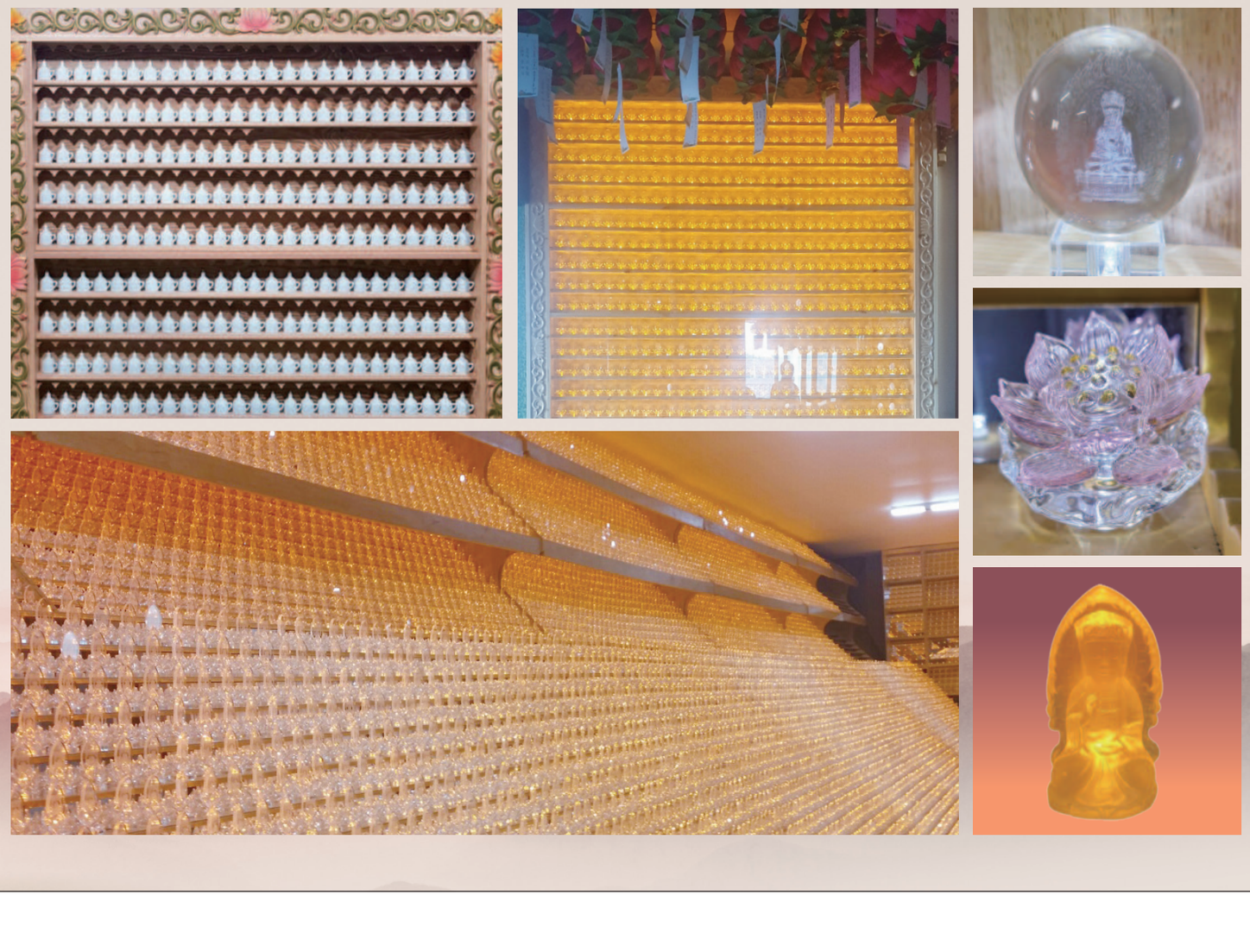
이렇게 조선 선불교가 간간이 제기된 논쟁을 통해 겨우 명맥을 유지해가던 상황에서 경허(鏡虛, 1849~1912) 스님이 등장했다. 경허 스님은 조선불교의 쟁론이 보조(普照) 이후의 간화경절(看話徑截, 화두를 통해 곧바로 깨닫는 방법)의 입장에서는 벗어나고 있다고 주창하며 스스로 수행하고 깨달아서 관념적 쟁론을 극복하고자 했다. 경허 스님은 명실상부한 선승으로서, 선승의 일대기를 전형적으로 다시 완성한 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그에게서 우리나라 근현대 수행불교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온갖 국면에서 경허 스님은 갖가지 일화들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수월(水月)과 혜월(慧月), 만공(滿空)과 한암(漢岩) 등 그의 제자들도 깨달음의 수준은 물론 일화들의 다채로움 면에서 스승 못지않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전후로 수많은 근대 선승들이 등장하여 활발발한 행적을 남긴다. 그들의 일대기와 수행담이 근대 출판 매체를 통해 거듭 알려지고 대중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만 진정한 대승불교의 수행 전통이 계승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기도 하니 그 점에서도 근대 선승의 수행담은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수행담의 내용과 형식은 부처님의 전생담과 현생담에 등장한 것들을 반복하는 측면이 뚜렷하다. 그러면서도 다른 점이 적지 않다. 부처님 전생담과 현생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변주되고 있는 것이다. 선승의 삶 자체가 부처님의 삶의 반복이면서도 변주이기 때문일 것이다. 반복된다는 것은 선승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명심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변주된다는 것은 선승들이 이 나라 시절 인연을 소중하게 보살피고 거기에 적용하기 위해 알맞은 방편을 만들어 활용했다는 점에서 귀중하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우리나라 선승의 일대기나 수행담을 살펴보겠다. '팔상'을 참고하여 선승의 일대기의 변곡점들을 찾아내고 밝힐 것이다. 각각의 변곡점에다 가능한 한 많은 선승의 사례들을 정리하여 담고 그 의미를 해명해 보겠다. 먼저 태몽과 비범한 유년, 출가의 사연, 수행의 길, 깨달음과 인가, 보림, 법문과 중생제도, 열반 등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겠다. 그리고 수행담에서 감동적으로 발견되는 선승의 특별한 덕목들을 따로 살펴보려 한다. 하심, 자비, 죽음의 경험, 이성의 경험, 괴각의 모습, 영험의 의미 등이 될 것이다.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❶ '비두리 현자 이야기'와 '토끼전'

▶ **조성금 교수는**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중앙아시아 불교회화 및 동서미술교섭사를 전공한 미술학자다. 성신여대 대학원서 석사를, 동국대 대학원에서 '천상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을 보완해 발간한 연구서 〈실크로드 대제국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로 2020년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로 활동 중이다.



토끼전 원류, 부처님 전생 '비두리 현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흔히 본생경(本生經)이라 부르며, 본생화(本生話) · 본생담(本生譚) · 전생담(前生譚)이라고도 한다. 어원은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자타카'(Jataka)의 의역으로서 jan(降生, 강생)의 동사가 변하여 명사가 된 것이다. 이 말은 본래 '태어나다', '태어난 그때의 일'이란 뜻이 불교에서 '이승에서 태어나기 전까지의 전생(前生) 이야기'라는 뜻으로 쓰였고,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가리킨다.

본생담은 석존의 탄생보다 1세기쯤 앞선 우파니샤드(Upanisad)시기에 만들어진 윤회전생(輪廻轉生) 사상이 불교와 만나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22부 547편에 달하는 이야기가 만들어 졌다. 불자들은 본생담을 통해서 석가모니께서 한 번의 희생으로 그리고 몇 번의 보시로 싯다르타 태자로 태어나 부처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현재 알려진 본생담이 547종이므로, 최소 547번의 희생과 보시의 삶을 반복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생의 주인공은 귀한 신분만이 아닌 동물 · 수행자 · 승려 · 왕 · 상인 · 도둑 · 거지 등 매우 다양하며, 매번 다른 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주고 있다.

앞으로 연재를 통해 들려드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우리가 어린 시절 접했던 전래동화 혹은 설화와 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전통 동화나 설화로 알고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이 본생담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림과 경전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설화는 국경과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 전달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분화 · 파생 · 개조돼 토착화한다. 본생담의 경우 토착화 과정에서 해당 지역 민족의 문화와 사상이 융합돼, 불교적 주제의식과 특징이 옅어지고 유교 사상 혹은 민간의 신앙이 강하게 투영되기도 했다.

처음으로 소개할 본생담은 '별주부전' 혹은 '토끼전', '수궁가' 등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전래동화 그리고 소설, 마당놀이, 판소리, 연극 등 여러 장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스토리로서, 아마도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전해진 시기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1 김유신(金庾信) 열전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늦어도 642년에는 이미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춘추가 청포(靑布) 3백 포를 고구려 왕이 총애하는 신하 선도해(先道解)에게 몰래 주었다. 선도해가 음식을 차려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무르익자 농담하듯 말하였다.

"그대는 또한 일찍이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소? 옛날 동해 용왕의 딸이 심장에 병이 났는데 의원이 '토끼의 간을 얻어 약을 지으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소. 하지만 바다 속에는 토끼가 없으니 어쩌하지 못하였소. 그러던 차에 거북이 한 마리가 용왕에게 '제가 능히 그것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라고 아뢰었소. 이윽고 육지에 올라와 토끼를 보고는 '바다 속에 섬이 하나 있는데, 샘은 맑으며 돌은 하얗고 수풀은 무성하고 과일은 맛이 좋으며 추위와 더위는 이르지 못하고 매와 송골매도 침입하지 못한다. 네가 만일 그곳에 가기만 한다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걱정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소.

이로 인해 토끼를 등에 업고 2~3리 정도 헤엄쳐 가다가 거북이가 돌아보며 토끼에게 '지금 용왕의 딸이 병이 들었는데, 모름지기 토끼의 간이 약이 되는 까닭에 수고를 꺼리지 않고 너를 업고 왔을 따름이다'라고 하였소.

그러자 토끼가 말하였소. '아! 나는 신명(神明)의 후예라 능히 오장(五藏)을 꺼내 씻어 넣을 수 있다. 일전에 잠시 마음이 어지러워 마침내 간과 심장을 꺼내 씻어 잠깐 바위 아래에 두었는데, 너의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오느라 간은 여전히 거기에 있으니 어찌 간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너는 구하는 것을 얻게 되고 나는 비록 간이 없어도 또한 살 수 있으니 어찌 양자가 서로 좋지 않겠는가' 거북이는 그 말을 믿고 돌아가 겨우 해안에 이르렀는데 토끼가 도망치며 풀 속으로 들어가 거북이에게 '어리석구나, 그대여. 어찌 간 없이 살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라고 하였소. 거북이는 근심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갔소."



그림①. 아잔타 2굴 벽화인 '비두리 현자 자타카'의 모습. 기원전 1세기 경 조성됐다. '비두리 현자 이야기'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토끼전'의 원류다.



그림②. 통도사 명부전 내벽화 중 '수궁도'의 모습. 1890년에 조성됐다. 여러 시대와 국가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토끼전'으로 전승됐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 '본생경'
윤회사상, 불교와 만나 탄생
韓 전래동화 · 설화에도 영향

'토끼전' 전해진 건 삼국시대
〈삼국사기〉서 첫기록 확인돼
원류인 '비두리 현자 전생담'
이미 한역경 통해 민간 전승

위의 〈삼국사기〉의 기록은 현재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동일한 주인공과 사건의 전개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토끼전'과 관련된 전생담은 〈삼국사기〉보다 이른 시기에 한역된 불교경전인 〈육도집경(六度集經)〉, 〈생경(生經)〉,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 〈불설보살본행경(佛說菩薩本行經)〉 등에서 '비두리(比豆梨) 현자 이야기' 혹은 '위두라 현자 본생담'(Vidhurapaṇḍita-Jātaka) 등으로 남아 있다.

〈불설보살본행경〉 하권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배경이 우리나라의 동해 바다가 아닌 바라나국이며, 주인공이 토끼가 아닌 왕을 보좌하는 현자 비두리이고 거북이 대신 야차가 비두리 현자를 바닷속으로 데려가는 등장인물로 서술되어 있다.

또한 바라나국의 바다에는 용왕 파류니(婆留尼)와 용왕이 사랑하는 용왕의 부인 마나사(魔那斯)가 살고 있었다. 용왕의 부인 마나사는 전생에 금계를 범해서 사납고 추한 용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을 매우 슬퍼하였는데, 한 시녀가 염부제 바라나국의 현자 비두리는 천상에 태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용왕이 왕비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야차에게 비두리의 마음을 가져오라 명하였다. 야차가 빛나는 마니주(摩尼珠)를 들고 바라나국의 왕을 찾아가 내기를 하여 왕이 이기면 마니주를 얻을 것이고, 야차가 이기면 비두리를 달라고 청하였다. 당연히 야차가 이겨 비두리를 죽이려고 할 때, 죽이려는 이유를 묻자 "용왕의 부인이 네가 총명하고 지혜가 제일이며, 사람됨이 자애롭고 어질다는 말을 듣고 네 피와 마음을 얻으려 하여 너를 죽이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비두리는 "나의 피를 얻고자 한다는 것은 나의 법을 얻으려 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속의 지혜를 얻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용왕의 처소에 이르러 비두리가 용왕과 부인을 위하여 5도(道)와 10선(善)에 관해 설법하자 천상에 태어나는 방법을 깨우치고 크게 기뻐하였다. 다시 염부제로 돌아가길 바라는 비두리에게 용왕이 곧 전단과 마니주와 여러 가지 묘한 보배를 바쳤고, 그 뒤로 대해의 모든 용들과 야차들에게 악독한 마음이 없어졌고, 죽어서는 다 천상에 태어났다.

위의 '비두리 현자 이야기'가 표현된 이른 사례를 기원전 3세기에 조성된 바르후트 스투파(Bhārhut Stupa)와 기원전 1세기 경 도해된 아잔타 2굴의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잔타 2굴의 벽화는 야차가 바라나국의 국왕에게 마니주와 현자 비두리를 걸고 내기를 청하는 장면으로, 주변에는 국왕은 내기나 도박을 하면 안된다며 만류하는 신하들이 묘사돼 있다.(그림①)

한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와 가장 근접한 경전을 찾는다면 〈육도집경〉인데, 여기에는 토끼 대신 원숭이가 그리고 거북이 대신 자라가 등장을 하며, '간'이라는 동일한 매개체가 서술돼 있다.

'비두리 현자 이야기'의 여러 종류 중에서 어떠한 과정과 선택을 거쳐서 오늘날 '토끼전'으로 토착화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도 모르는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이 부처님의 끝없는 희생과 보시를 담은 이야기에서 왔으며, 그 가르침을 들으며 아이가 성장하고 어른이 된다는 사실은 불법(佛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토끼와 거북이가 조각된 구례 구층암 천불전이나 통도사의 명부전 벽화, 남장사의 극락보전 벽화를 보게 된다면 석존의 전생인 비두리 현자의 지혜를 떠올려 보시길 바란다.(그림②)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박원자의 母情佛心 24 삼척 천은사 주지 동은 스님



▶ 한줄 요약

삼천 천은사 주지 동은 스님은 25살에 혈액암이 발병해 시한부판정을 받았다. 방황하던 중 출가했으며, 월정사서 행자로 지내며 기도하던 중 몽중가피를 얻어 병을 완치했다. 이후 동은 스님은 수행자가 돼 집을 찾았다. 이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공부에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면 부처님과 부모에게 모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곳도 문 닫으면 무문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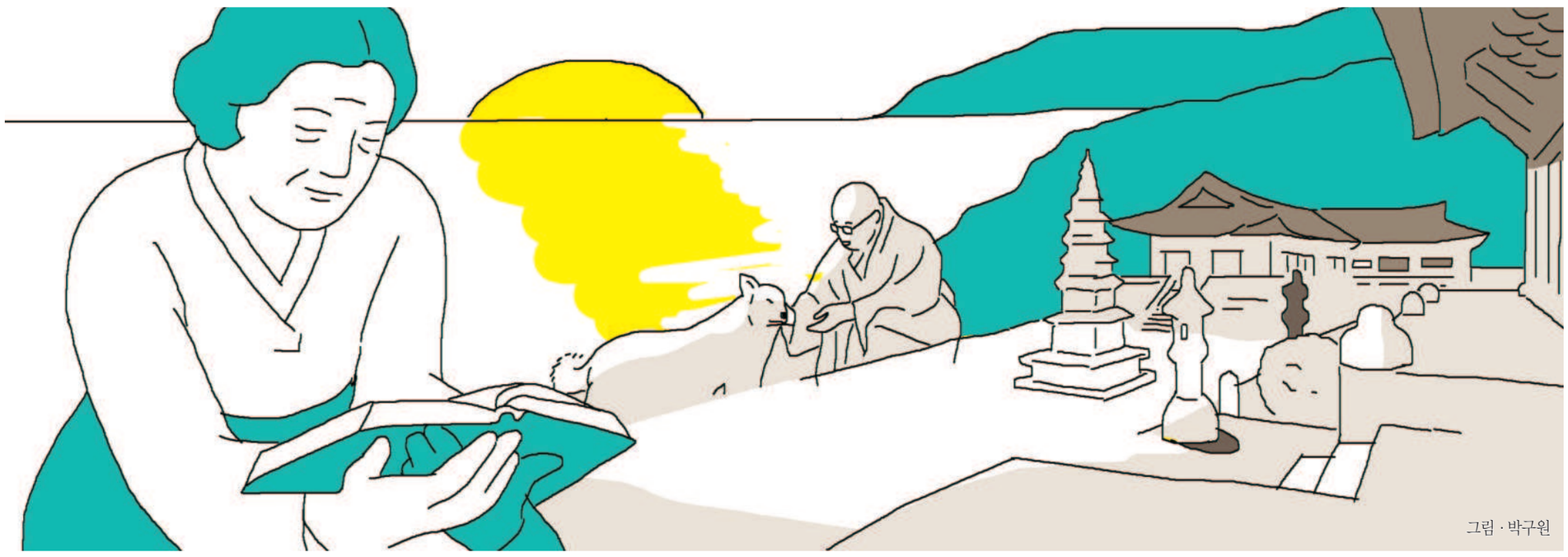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언제 보아도 진실한 사람이 있다.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정도로 언행이 진실한 사람이 있다. 삼척 천은사 주지 동은 스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젊으셨을 적에도 그랬고 예순이 넘은 지금 뵈어도 잘 생기셨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그 한결같은 진실함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진실함이 아름다움을 만들고 세상의 미남, 미녀를 만든다고.

10여 년 전, 동은 스님이 펴낸 〈무문관 일기〉를 읽고 울어버린 기억이 난다. 스님의 진실함이 고스란히 전해져왔기 때문이다. 스님은 100일간의 처절한 '무문관 수행'을 이야기 하면서 '진실함만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한다'고 했고, 그 진실함은 간절함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동은 스님이 건강한 몸으로 군대에 다녀와 사회생활을 야심차게 시작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현기증으로 길에서 쓰러져 병원에 갔다. 그 무렵 어지럽고 간혹 코피를 쏟아도 일을 무리해서 그런가보다 했다. 진찰을 끝난 의사가 혈액암이라고 했다. 길어야 2~3년 정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생겨났지만, 당시는 골수이식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거기다가 고액의 비용이 드는 일이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병고는 한 청년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겨우 스물다섯이었다. 방황이 시작되었다.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병이 들고 죽어야 하는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다. 아니, 억울했다. 일을 그만두고 길을 걷고 또 걸었다. 목적지 없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려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노숙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버스에서 내렸는데 어느 깊은 산골이었고 날이 어두워져있었다. 물어물어 한 스님이 머물고 계시다는 토굴에 찾아들었다. 주인이 출타한 곳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다음날 새벽, 여명에 비춰진 시 몇 구절을 발견했다. 전류가 흐르듯 한 청년의 가슴으로 휘몰아쳐 들어왔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당당하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하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한방 맞은 듯 '소식'이 왔다. 막연함으로 둘러싸였던 방황이 한 순간에 '출가'로 정리되었다. 출가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 이 병을 있게 한 연유를 풀어보기로 했다. 공부해서 이 문제가 풀리면 다행이고 풀지 못한 채 죽더라도 덜 억울할 것 같았다. 그렇게 '생사'라는 화두 하나가 단단히 가슴에 박혀 들어왔고 출가 준비를 위해 의령 집으로 돌아왔다.

출가하던 날 새벽,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한 통을 마루에 올려놓고 절을 올렸다. 장남으로 태어나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출가하는 아들을 용서해달라는 편지였다. 아홉 번의 절을 올렸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에 각 세 번, 그리고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찾아뵙지 못할 것을 생각해 세 번의 절을 올렸다. 마지막 삼배는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지 몰라 미리 절을 드린 것이기도 했다.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많이 흘렀다. 걱정하실까봐 발병 소식을 함구했었다. 시골에서 평생 5남매를 키우느라 농사짓고 이 동네 저 동네 행상하며 고생하신 어머니였다. 모범생에 착하기만 했던 장남이 난데없이 출가를 하겠다고 집을 나간 것을 아시고 충격을 받으시리라.

월정사에서 행자생활이 시작됐다. 처음 도착한 날, 들어간 곳이 법당 뒤 삼성각이었다. 무슨 인연이었을까, 절을 올리고 보니 불전함에 '불교병원 건립모금함'이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저절로 주머니에 손이 갔다. 가지고 있던 전 재산, 100원 짜리 동전 하나를 털어 넣었다. 전 재산을 시주하며 부처님께 약속을 드렸다.

"운명의 그물에 걸려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출가 수행한 공덕으로 병이 나으면 남은 생은 덤으로 여겨 아프고 힘든 중생을 위해 살겠습니다."

바쁜 틈에도 짬을 내어 기도했다. 간절했다. 살아나야 했다. 그 간절함에 운명이 손을 들었다.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리신 것이다. 삼성각에서 '약왕보살'을 부르며 기도하던 어느 날이었다.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앞이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 무릎을 꿇었던 약왕보살님이 일어나 걸어와 살아있는 눈빛으로 미소 지은 채 이마에 손을 얹었다. 온몸이 고압선에 감전된 듯 떨렸다.

희열이 온몸을 감싼 가운데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떴다. 깜깜한 행자실에 온몸이 젖은 채 앉아있었다. 문을 열고 나가 팔각구층석탑 앞 약왕보살님께 삼배를 올렸다. 그렇게 몽중가피를 실감한 순간, 삶을 송두리째 위협했던 병이 손을 들고 물러갔다.

> **제대 후 갑작스런 혈액암 발병**
> **시한부판정에 방황하다가 출가**
> **월정사 행자생활하며 몽중가피**
>
> **완치 후 스님돼 만난 어머니는**
> **"게으르면 부처 · 부모에게 죄"**

그 후 스님은 법상에서 혹은 절을 찾는 사람들에게 '지극하면 반드시 부처님 가피가 있다'고 설한다. 간절함을 가슴에 품고 산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절절히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죽음의 경계에서 벗어나 수계를 하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찾았다. 수행자로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이며 안심시켜드리고 싶었다. 해진 저녁나절 불쑥 나타난 아들을 보고 부친은 가만히 서 계셨다. 어머니는 수행자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방으로 모셨다. 그리고 집에 있던 자식들을 불러 절하게 했다.

"우리 큰 아들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셨으니 앞으로 수행자로 잘 예우해서 모셔야지요."

온 가족이 삼배를 올리는 것으로 끝이었다. 어머니는 왜 출가를 했느냐, 힘들지 않느냐, 돌아오라는 소리를 일체 하지 않으셨다. 스님은 자식이 선택한 '현재'를 철저히 수용하시는 지혜로운 어머니를 보면서 봉양해야할 부모님을 두고 떠난 장남의 미안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한번 죽기 살기로 공부해보리라 다짐했다. 그래도 혹시 자식의 마음이 무거울까 걱정되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이었을까. 하룻밤도 묵지 않은 채 집을 나서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스님,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수행해서 성불하세요. 공부에 게으르면 부처님께도, 부모에게도 죄를 짓는 일입니다.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세요."

출가 후 처음 찾아뵈었던 그날, 마당가에서 손을 잡고 하셨던 어머니의 말씀은 수행자로서 삶에 이정표가 되었다. 또 다른 병고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20여 년 전, 동은 스님은 강진 백련사에서 무문관 수행을 했다. 무문관 수행은 생사를 걸고 용맹정진하는 치열한 공부다. 밖에서 문을 잠그기 때문에 누가 열어주기 전에는 절대 밖을 나올 수 없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에서 화두 하나와 싸움을 벌이는 치열한 정진이다. 스님은 그 뒤 10년 쯤 지나 그때의 단상을 〈무문관 일기〉라는 책으로 출간했다. 그 책 '지금 당장 여기서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제목에 이런 구절이 있다. 스님이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문을 활짝 열고 싶다. 맨발로 마당을 거닐고 싶다. 일직선으로 백 보만 걷고 싶다. 큰절 부처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산과 들을 지나온 그리운 바람을 가슴 깊이 들이마시고 싶다.'

100일 동안의 일기지만 스님의 출가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이 책이 출간되자 어머니께 한 권 보내드렸다. 아마도 어머니는 이 책을 읽고 출가가 무엇이며 아들이 어떻게 치열한 수행을 하며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병고를 이겨내며 살아왔는지를 알고 눈물을 흘리셨으리라.

어느 날, 낡은 고향집을 떠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스님이 안부 전화를 드리니 말씀하셨다."스님, 여기도 문 하나만 닫으면 무문관입니다."

"무문관이 뭔지 아세요?"

"제가 스님 책을 다 읽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든 둘이신 어머니는 하루 일과가 기도하는 것으로 꽉 채워져 있다. 불교방송에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경을 읽고 기도한다. 백일기도를 이어가며 끝나고 나면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아들 스님에게 묻는다. 작은 아들이 출가한다고 할 때 '잘 생각했다'며 '동은 스님처럼 수행 잘해서 도를 이루라'고 축하해준 어머니였다.

"강원 졸업하고 처음 도반들과 어머니들을 보시고 미얀마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 후 불교 국가를 순례할 때는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어요. 저는 일 년에 몇 번씩 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어버이날엔 용돈도 드리고 자주 안부 전화도 드립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내 몸도 있고 수행도 하는 것인데 외면하고 수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출가 후 죽 그렇게 해왔어요."

동은 스님의 수행의 원동력은 아무래도 저 따뜻한 효심인 것 같다. 아들 스님이 지어드린 선덕화(善德華)라는 법명처럼 아름답고 덕스러움으로 삶을 꽃피우고 계신 송점수 여사. 아들 셋 중에 둘을 출가시켰으니 복덕을 갖춘 대보살이 틀림없다.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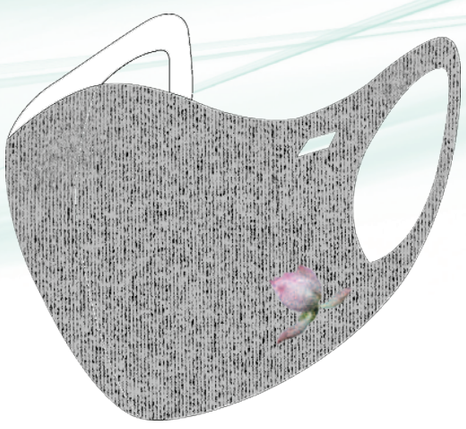
또 다시 닥친 코로나의 위기와 공포!!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ANTI-BACTERIAL · DEODORIZATION · 항균 & 소취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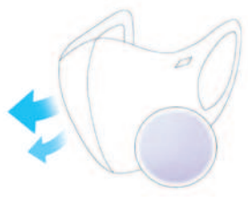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우바이 최초 부처님 수기 받은 '승만부인'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② 딸에게 편지를 보내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舍衛國, Sravasti)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에 머무르고 계셨다. 그때 파사닉(波斯匿, Prasenajit)왕과 말리(末利, Mallika)부인이 불법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왕과 부인 두 사람이 서로 의논했다.

"우리 딸 승만(勝鬘, Srimala)은 영리하고 슬기로워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처님을 뵈옵는다면 반드시 불법을 속히 이해하여 마음에 의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적당한 때 편지를 보내 그의 도에 뜻을 두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인이 왕에게 말했다

"지금 바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과 부인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는 편지를 써서 곧 찬다라(Candara)라는 궁녀를 시켜 승만에게 편지를 전하게 했다. 찬다라는 편지를 가지고 아유사국(阿踰耆國, Ayodhya)으로 가 궁에 있는 승만에게 공경히 편지를 전했다.

〈승만경〉은 파사닉(波斯匿)왕과 그의 비, 말리부인이 불법을 믿기 시작한 뒤 아유사국으로 시집간 딸에게도 불법을 믿을 것을 권하고자 딸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딸을 생각하는 부모의 정이 은은하게 배여 있다.

파사닉왕은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왕으로 고대 인도의 강대국 중의 하나였던 코살라국의 왕이었다. 일설에 부처님과 나이와 생일이 같았다는 말도 전해진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가장 자주 만났던 왕이 파사닉왕이다. 물론 마가다(Magadha)국의 빈비사라(頻毘娑羅: Bimbisara)왕도 부처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영축산을 자주 찾아가 법문을 들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잡아함경〉 등 아함부 경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왕이 파사닉왕이다.

〈잡아함경〉에 들어있는 소경(小經)인 〈복전경(福田經)〉에는 기원정사를 찾아온 파사닉왕이 부처님께 "어떤 곳에 보시해야 큰 과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하고 물어 그 공덕에 대하여 부처님 말씀을 듣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대승경전인 〈능엄경〉에도 부처님이 파사닉왕에게 불생불멸하는 여래장묘진여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다.

기수급고독원을 지어 부처님께 바친 수탓타 장자가 그의 신하였으며 그의 아들 기타태자가 정사를 지을 땅을 수탓타에게 팔고 숲을 기증하여 절 이름을 기수급고독원이라 했다고 한다. 부처님이 25년을 머무셨다는 기원정사의 본래 이름이다.

또 파사닉 왕은 우전왕처럼 불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불상을 만들게 된 동기는 〈증일아함경〉에 설해진 내용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생모였던 마야부인을 만나기 위하여 도리천(忉利天)에 올라가 석 달 동안 기원정사를 떠나 있을 때 코삼비국의 우전왕이 몸에 병이나 부처님을 몹시 그리워하다가 신하의 권유를 받아들여 우두산에 있는 전단향나무로 5척의 불상을 만들어 부처님이 계시던 기원정사 향실에 모셔 두었는데 이것이 부처님 재세시에 만든 최초의 불상이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나라 코살라국(舍衛國)의 파사닉왕도 자마금(紫磨金)으로 철불을 만들어 2구의 불상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승만경〉은 파사닉왕의 가족인 왕과 비 그리고 공주인 승만이 불법 인연이 깊었다는 선근(善根)에서 시작되는 경이다.

부처님으로부터 2만아승지겁 이후에 보광여래(普光如來)가 될 것이라는 수기(授記)까지 받은 승만 부인은 재가 여성으로서 최초의 수기를 받은 사람이다. 승만 부인의 남편인 우칭왕까지 부처님 법을 믿게 해 함께 대승법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하였다.

〈승만경〉에 대한 주석서는 중국의 수(隋)나라 때 삼론종을 세운 길장(吉藏, 549~623)이 〈승만경보굴(勝鬘經寶窟)〉을 지었는데 승만경에 대한 가장 자세한 주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원효도 〈승만경소〉를 지었으나 유실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관세음보살의 '자리이타 이타구세'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㉕ 관음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불자 여러분! 초기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발전하면서 신앙 중심은 개인적 해탈을 위한 자력 중심의 수행에서 타력 중심으로 변화합니다.

그 이유는 초기불교 시대와는 달리 대승불교에서는 많은 부처님과 대보살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중생구제와 성불' 이라는 대승불교의 목표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이였고, 한편으론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하면 석가모니불 한 분만을 인정했던 것을 대승불교에서는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등과 같이 시간적 다불(多佛)과 사방불, 오방불. 시방불 등 공간적 다불을 인정하며 많은 부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보승불, 아촉불 등과 같은 많은 부처님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부처님의 사상에 따라 많은 대승경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살들 중에는 대승불교 이념의 실천을 위해 개인적 깨달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체중생을 구제하여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서원과 대비심을 실천하는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 들이 대거 출현하게 됩니다.

이 '마하살(摩訶薩)' 은 인도 범어로 'mahāsattva(마하싸트바)' 라고 하는데 한역으로는 '대사(大士)' 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자신의 성불과 함께 수많은 중생들을 모두 성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서원과 대비심을 실천하는 위대한 사람' 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대승불교 이념의 실천을 위해 끝없는 서원과 대자대비심의 실천을 행하는 많은 대보살님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등과 같은 수많은 '보살마하살' 들이 함께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의 실천수행은 이행도(易行道)로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 속에서 신앙적 가피를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리이타의 서원으로 중생구제의 대승보살도 완성을 통해 출세간적 목표인 성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님의 실천수행은 세상을 널리 구하며 남을 이롭게 하는 대승불교 신앙으로써 불교의 신앙세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종교적 가피를 구하며 개인의 성불 수행과 더불어 일체중생의 구제완성을 실천하는 수행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수행이며 이타구세(利他救世)의 수승한 수행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신행과 수행은 오늘날까지 대승불교의 정통성을 이어온 대표적 성불의 수행인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이 영원히 믿고 의지하며 신앙해야 할 관세음보살은 이미 성불한 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힌두교의 최고 신인 '자재천신(Īśvara)' '시바신(Śiva)' '비슈뉴신(Viṣṇu)' 등의 위신력과 가피력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부처를 이루신 대보살이시기에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신통력과 위신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구제와 대자대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은 우리들이 마음껏 신앙해야 할 종교적 대상이며 구세자인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이미 성불하신 부처라는 사실은 여러 경전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천수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은 이미 성불한 '정법명여래' 부처님이라고 증명하였고, AD 7세기 말에 성립된 밀교경전인 〈금강정경〉에서는 '관자재왕여래' 라고 이미 성불한 부처임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② 번뇌 소멸에 대한 앎과 봄

'있다'는 망념 바로 알아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 싸밧티 시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계셨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언젠가는 무너질 모래 위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참되게 알고 나면 환영(幻影)인 세상에서는 진정 들을 것이 없다.

'아나타삔디까' 라는 이름은 장자 수닷따의 별명으로 '의로운 이를 부양하는 자' 라는 뜻이다. 그는 성도(成道) 1년이 채 안 되신 부처님과의 첫 만남에 정사를 짓기로 약속드렸다. 그는 싸밧티 시에 있는 제따 태자의 공원을 사려 한다. 태자는 팔지 않으려고, "땅 전체에 금을 깔면 팔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태자의 말대로 진짜 땅에 금을 깐다. 정사를 지으려는 그의 진심에 감동한 태자는 공원을 무상으로 기부했고 그는 정사를 지어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 어떻게 아나타삔디까는 '의로운 이를 부양하는 자' 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부처님 법문을 듣는 순간 수다원과를 얻어 '물질 자체가 환(幻)이다' 라는 물질에 대한 앎이 생겨버렸기 때문이다. 입류(入流)한 자로서 그는 '나' 라는 존재를 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수용하고 진리의 길을 가고자 발심하여 온전히 내맡긴, 수행자가 된다.

그때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이여"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라고 세존께 대답했다.

'수행자' , 참 뭉클한 이름이다. 수행자란 세상의 '편리함' 과 세상을 떠난 '불편함' 이 그저 '생각' 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자다. 세상의 유혹을 바르게 보려고, 그 '불편함' 을 자유로 알고 선택한다. 수행자는 물질을 바르게 보려고 신구의(身口意)를 행한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모든 번뇌에서 자신을 수호하는 법문에 관해 설할 것이다. 듣고 잘 새겨라. 내가 설명할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번뇌의 소멸에 대한 앎과 봄이 없어서가 아니라 번뇌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또한 잘 보기 때문에 말한다."

'모든 번뇌' 는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번뇌, 존재에 대한 번뇌, 견해에 대한 번뇌, 무명에 대한 번뇌 등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번뇌를 통칭한다. 정신과 물질의 틈 없는 번뇌에서 자신을 수호하는 법문을 설하시기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번뇌의 소멸에 대한 앎과 봄이 없어서가 아니라 번뇌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또한 잘 보기 때문에 말한다' 는 아주 중요하다. 이 문장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해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언어라는 수단을 이용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함에 있어 나는 '나' 가 있어서, '나의 것' 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나' 라고 하는 '몸과 마음' 을 가지고 말 할 수 없다. 그것은 행위자가 있어, 설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앎' 에서 흘러나온다.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 전체는 '몸과 마음' 으로써 설해진 것이 아니라 '앎' 자체에서 설해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앎과 봄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 알고 잘 보기 때문에 말하니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강조하신 것이다. 오해가 없기 위해서, 글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자로, 이 한 문장 안에 오래 오래 머물러야 할 것이다.

나는 오온이 내가 아닌 줄 알고 말하지만, 듣는 이는 말하는 이를 나로 알고 들으니 어디에 교착점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내가 오온을 통해 말을 하고 있어, 그에게 오온을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누구에게 허물이 있는가? 말하고 듣는 곳에 둘 다 없다고 못하지만, '있다'는 그 망념을 바로 알면 1만 근의 무게도 거뜬히 들 수 있느니라.

〈(사)여시아문 선원장〉



탈종공고

- 사찰명 : 밀림사
- 주 지 : 지웅 (속명 : 강재규)
- 주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하림1길 121-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화엄정사
- 주 지 : 월산 (속명 : 천순선)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115번길 14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71호 | 17 | 전면광고

바른 도를 잘 닦아 익히어 진실한 법의 그
모양 알고 그 도량에 굳건히 머무르면
부처님의 보리를 성취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 합장 010-3586-6091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卍佛寺 프로그램

❖삼재 방생풀이 음력 입춘 - 삼진날까지 비바람 불면 연기, 매일 11시 비구니스님 성지 봄사 개회
❖쥐·용·원숭이 1인 5만원, 양초 3천원, 이름 써드림, 공양미 1kg 2천원
❖서울 전철 아산신창행 - 도고시내버스 - 신통리
❖농협 351-0881-7941-93 조계종 만불교
❖아산시 신통길 192-21 (지장보살 모신 절)

접수 문자 010-3410-0004
041-544-4441

무소유의 행복!

선착순 5명, 기도비 월 30만원

신비한 약수!
소나무밭! 맑은공기 산책로!
기도하며 조용히 살고싶은
보살님들을 매월 초대합니다.

문산 전철역 : 택시 10분거리
파주읍 향양리 산39번지
031-953-9509, 010-4069-5315



추천 - 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 • •
공양주 모십니다
보시금 150만원
부산 남구 소재 사찰
• • •
010-4435-5660

• • •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청주 상당구 봉은사
• • •
010-5883-2255

수강생 모집

명리학기초부터 길흉판단 · 작명 단시일내

* 삼송정사 *
010-9323-5693

❊❊❊ 단청,탱화,개금 사찰신축, 보수, 기와 ❊❊❊

화공기능보유자
010-9387-1518

음향기기 최저가 설치

음향업자가 아닙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사찰에서 사무장을 맡았을 때 주지스님 부탁으로 음향장비 설치를 시작했고, 주변 스님들께서 일부 업자들의 **견적 부풀리기**, **불필요 장비설치**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으시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찰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사찰에서 원하시는 장비로만 구성하며,
· 모든 장비는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
· 별도의 설치비는 없고, 거리에 따른 출장비만 발생
· 사정이 어려우신 사찰은 중고장비라도 구해서 설치

문의 : 010-2068-7030

특 수 비 법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이름만 보면 모든것을 알수있다※
관재 · 소송 · 송사 · 이혼 · 시험운 · 사업운
부도 · 정신병 · 건강 특별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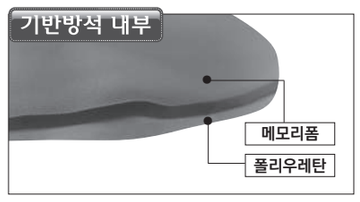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71호 | 18 | 전면광고

의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구하고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소행찬》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경내부지 : 5,000평
◎건평 : 60평 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양도가 : 협의

◎위치 : 전국
◎부지 : 1,000평-10만평
◎건평 : 120평 외 전각
◎천년사지 외
◎양도가 : 가격다양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까지 홍보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원안내

- 위치 : 영천 시내 멋진 법당
- 2층 72평, 완벽한 시설, 방3칸, 주방, 화장실, 넓은 옥상, 앰프시설 완비, 방음 완벽, 민원도 없음
- 보 5백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9377-2279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구성 소재(김천역 차편 15분대)
- 법당 약 20평, 주방 거실1, 방2, 세면장, 화장실, 벽돌조 32평 독채, 등기필(사찰등록), 대지 약 100평, 도지료 연 35만, 남향, 구성 중심소재 교통좋은 대로변 포교지
- 가액 : 3천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산읍
- 건물 : 2층, 목조 법당
- 대지 : 540평
- 건평 : 3동 2백평, 단청 완비
- 가액 : 13억

054-977-6611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학원 및 사찰터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우동
- 대지 : 약 256평
- 우동 자이아파트 단지 옆 자명요양병원 앞
- 가액 : 5억

010-3173-515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 도로에서 25미터
- 대지 100평 3홉 건평 40평정도
- 스님유고 관계로 양도합니다.
- 답사 하실분만 전화 요망
- 가액 : 2억 9천(절충)

010-9796-0825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내면 희곡리
- 대지 : 약 2,100평
- 전망이 아주 좋음
- 가액 : 5억

010-3173-5151

창원 사찰안내

- 사찰 전체35평
- 법당 15평, 1층법당 화장실, 샤워실, 창고
- 권리금 3천만원, 보증금 450만원, 월세25만원

010-9181-9666

사 찰 안 내

-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 1동 제일여고 뒷편 삼복도로
- 임야1800평, 대지60평, 전답 120평, 법당20평, 삼존불, 용왕당, 요사체, 방4개
- 양도가 5억, 협의가능

010-8762-987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독채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45만원
- 시설금 7백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사찰(급)안내

- 위치:경남 양산시 상북면 ● 대지:종교용지 218평/건평1층42평 ● 2층26평/단청 토기와 컨테이너6평 산신각, 실사용500평, 시유지포함 ● 심야전기, 천연지하석수, 1일150톤 상수도, 하수도 종말처리, 집기일체포함, 현재성업중, 건강상실가이하로 ● 7억8천에 양도합

010-6425-8274
010-9319-30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대문구 왕산로
- 건평 :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 건강문제로 인해 양도함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 임대료 월 8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010-3714-101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멋진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권
- 대지 : 약 200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평
- 요사채1동 약20평, 2층 약5평 1동 약25평
- 가액 : 2억 8천(절충가능)

010-4999-5622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무허가)

010-3128-23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
- 층/평 : 3층 / 90평
- 보증금 7천만원, 월세 50만원(조정가능)
- 시설금 및 입주조건 : 협의 결정

010-3199-189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대이로
- 4층(65평)남향, 엘리베이터 사용
- 법당, 방2개, 상담실, 부엌, 화장실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010-7219-007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 건평 70평(법당,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

010-9015-4040
010-2077-7820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 가액 : 6억 5천
-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5371-5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바닷가 근교
- 부지 : 530평(대지 240평, 전 29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3동
- 토지(전) : 건축 가능
- 가액 : 2억 5천(절충가능)

010-3871-22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 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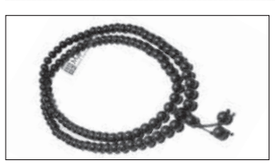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① 약차(茶) 이야기

코로나 계기로 본 '자연 백신' 茶

벌써 2년 넘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인을 힘들게 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온 지난 2년의 시간들은 성장과 발전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으로 물질에 기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멈춤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한다.

21세기 초에 진입하면서 경제, 문화의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하며 즐기고 누렸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코로나' 라는 과보로 돌아온 것 같다. 지나친 육식의 문화로 인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은 숙주의 매개체가 되었음을 상기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인류에게 진정한 백신은 무엇일까? 특히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백신은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차(茶)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차 중에서도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한국 산야의 식물을 법제하여 만든 약차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산야의 식물 법제해만든 '약차' 대안
茶 오래 마시면 몸과 마음 즐거워져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의 일상에서 '약'으로, '음료' 로 긴 세월 함께한 차(茶, TEA)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차는 카멜리아시넨시스(Camelia sinensis) 동백과의 차나무 녹차 잎을 말한다.

차는 기호식품으로 옛날부터 양생의 도구인 선약으로 귀하게 여겨져 왔다. 다경의 〈본초습유(本初拾遺)〉, 〈본초강목(本初講目)〉 등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중국의 다서와 일본의 에이사이선사의 〈끽다양생기(喫茶養生記)〉, 우리나라의 다신으로 불리는 초의선사의 〈동다송(東茶頌)〉에도 차의 좋은 점과 효능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양방의 양약(洋藥)이 없던 시절, 우리의 선조들은 오랜 경험과 지혜로 산야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 중에서 사람의 몸에 유익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음료와 약으로 활용해왔다. 그리고 차의 효능 역시 건강을 지키는 수단의 하나로 발전시켜왔다. 그렇게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차의 좋은 점들을 알았고, 그 효능과 효과를 후손들에게 건강보호의 방편으로 정립하고 알려왔다. 앞으로 소개할 '약차' 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육우가 쓴 〈다경(茶經)〉에는 차를 마시는 인물 중 오래된 사람으로 삼황오제(三皇五帝) 황제인 신농씨(神農氏)가 소개되어 있다.

신농씨는 중국의 농 · 의약(農 · 醫藥)을 다스렸던 전설적인 인물로, 어느 날 백 가지 약초를 맛보며 연구하다가 72번째 독초에 중독되었을 때 차를 달여 마시고 살아났다고 한다. 또 〈식경(食頃)〉에는 "차를 오래 마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몸에 힘이 있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며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적혀 있으며, 신농씨의 차의 고사에는 차에는 해독성분이 있고 건강에 유익한 마실 것이라고 되어 있다. 차의 해독작용은 타닌과 카테킨 성분에 의한 것으로 식물의 독성물질인 알칼로이드와 결합시켜 해독시키는 성질과 합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음식의 원천이 약과 동일하여 음식이 때때로 약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를 일러 약식동원(藥食同原), 의식동원(醫食同原)이라 칭한다.

근현대과학은 차의 효능 중 폴리페놀과, 카테킨 등의 화학 성분을 차례차례 밝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의 효능 중 생리복원 기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차와 건강' 이란 주제 중에는 차의 카테킨을 중심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육우의 〈다경〉에서는 "차는 지극히 맛이 차서 행실이 한결같고 정성되며 검소하고 덕이 있는 사람 즉 정행 검지덕지인이 마시기 가장 알맞다"고 차의 정신작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또 "차는 행동이 바르고 다소곳한 덕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음료"라고 말한다. 또한 염증에 고열이 나고 갈증이 나거나 번민하거나 머리가 아프고 눈이 껄끄럽거나 팔다리가 아프고 뼈마디가 잘 펴지지 않을 때 차를 몇 잔만 마셔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후한시대 외과의인 화타 선생의 저서인 식론(食論)술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차는 몸을 가볍게 하고 근골을 바꾼다. 차는 차갑고 독이 없다."

또한 차는 오장의 독을 제거하고 설사 갈열(열에 의한 입안염증) 중질(위장질환) 악창(피부의 악성부스럼, 아토피피부염)에 좋다. 오래 복용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기운을 북돋아 주며 머리를 좋게 하고 잠을 줄여 주며 몸을 가볍게 하고 건강하게 나이가 들며 숙변 변통을 좋게 하고, 방사능기능으로 몸에 나쁜 독소가 흡수되지 않도록 장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여 노화를 억제한다. 이외에도 차가 우리의 몸에 좋은 점들은 수없이 많다. 이와 같이 차에는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 있지만 특히 차의 성분은 혈액과 혈관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한다는 점에서 좋다고 할 수 있다. 차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폴리페놀(polyphenol)이라는 성분은 식물의 광합성에 따라 생성되는 식물내 페놀성 수산기(OH) 화학물의 총칭으로 식물이 자외선 활성 산소인 포식자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건강
① 건강을 위한 소금

나트륨 아닌 미네랄 덩어리 소금 먹어야

"소금 드실래요? 나트륨 드실래요?" 질문을 해 본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대부분은 "웬 나트륨? 소금을 먹어야지, 아니 나트륨과 소금이 같은 것 아니야?" 하는 반응을 보인다. 나트륨과 소금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소금에 대한 고민의 시작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매일 나트륨과 소금을 먹으면서 차이를 제대로 모른다. 방송과 신문에서는 건강을 위해 나트륨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소금과 나트륨은 같은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르다. 단지 우리가 그 개념을 혼동하고 있을 뿐이다.

소금은 바닷물을 졸이면 만들어지는 결정체이다. 그리고 나트륨(Na)은 이 결정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소다. 사실 가장 많은 것도 아니다. 가장 많은 것은 염소이온(Cl-)이다. 그 다음이 나트륨이온(Na+)이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이 결합한 것이 염화나트륨(NaCl)으로 불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이다.

소금의 탄생지 바닷물 속에는 80여 가지의 미네랄로 불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원소들이 녹아 있으며 이것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수많은 바다 생명체들은 물과 그 미네랄을 자원으로 해서 살아간다. 인간 역시 물을 먹고 소금을 매일 먹으면서 살아간다.



소금과 나트륨 완전히 다른개념
나트륨, 소금 속 가장 많은 원소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중요한 80여 가지의 미네랄은 제쳐놓고 그중에 한 가지 나트륨만을 골라 먹고 있다. 바닷물 속에는 뼈에 좋은 칼슘도 있고, 심혈관 질환에 좋은 마그네슘도 있고, 축적된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도 있고, 갑상선 질환을 예방해주는 요오드도 있고, 전립선 건강에 좋은 아연도 있고, 치매에 도움이 되는 리튬 미네랄, 당뇨와 관련된 바나듐 미네랄도 있다. 이렇듯 각각 쓸모 있는 수십 가지의 미네랄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 바닷물이다. 이 바닷물을 그대로 말리면 수십 가지 질 좋은 미네랄을 간직한 미네랄 소금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바닷물이 간직한 수많은 미네랄 중 염화나트륨만을 빼내어서 소금이라고 하고 먹는다. 오로지 짠맛을 위한 나트륨만을 골라서 먹고 있는 셈이다. 짠 나트륨 성분만을 오랫동안 섭취하다 보니 건강이 악화되고 소금을 적게 먹자는 운동까지 생겨난 것이다.

천일염이든, 정제염이든, 암염이든 다 마찬가지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소금을 가지고 가공한 소금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미네랄이 없는 소금을 가져다가 이리저리 가공해본들 달라질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치매 등 수많은 사람이 걸리는 이런 생활습관병의 발생원인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저 유전요인 아니면 생활습관으로 인해, 고령화로 인해 걸리는 질병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사실 많은 질병이 미네랄 부족과 관련이 있다. 수많은 국내외 학자들이 미네랄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고, 매 순간 토양에서 미네랄이 사라지고 있고, 그로 인해 식품에서 미네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결과 철분, 칼슘, 아연, 마그네슘 등 미네랄 의약품은 약국과 병원을 당당히 점령하고 미네랄 의약품 시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 미네랄은 바닷물에 다 들어 있어 그것만으로 바다 생물은 건강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영리하다는 인간은 그 수많은 미네랄 중에 나트륨만을 빼서 이것을 소금이라고 부르며 먹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왜 이런 잘못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기술의 부족과 서양적 사고의 맹신에서 온 것이다. 일단 바닷물 속에 있는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제조기술이 지금까지 없었다. 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만든 미네랄 소금은 맛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소금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바다의 미네랄을 모두 담은 그런 소금은 만들 수도 먹을 수도 없었다.

둘째는 학자들이 소금을 분석해 보니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것이 나트륨 즉 염화나트륨(NaCl)이라는 것을 알고 소금을 염화나트륨 덩어리라고 정의를 내려버린 것이다. 그리고는 나머지 미네랄은 전부 불순물로 취급해버린 서양적 관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소금을 만들 때 이미 최대한 염화나트륨만의 소금을 만들고 이어서 나머지 잔여 미네랄을 간수 빼기, 세척하기 등을 통해 전부 제거하여 염화나트륨 99%, 95%의 짠맛만 있는 나트륨 덩어리 소금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최고의 소금, 좋은 소금이라고 정해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것이다.

산에 돌이 많다고 산을 돌이라 할 수 없고, 수박에 물이 많다고 수박을 물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소금에 염화나트륨이 많다고 하여 소금을 염화나트륨이라고 정의하고 나머지 소중한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수십 가지의 미네랄을 제거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산에는 나무고 있고, 흙도 있고, 돌도 있어야 그것이 산이다. 소금에는 나트륨도 있고 칼슘, 칼륨도 있어야 그것이 소금이다. 짠맛을 위해 먹는 나트륨 덩어리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 먹는 미네랄 덩어리의 소금을 먹어야 한다. 활기찬 신앙생활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소금을 가려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부터 나트륨이 아니라 건강한 소금을 먹어야 한다.

〈(주)오씨아드 이사〉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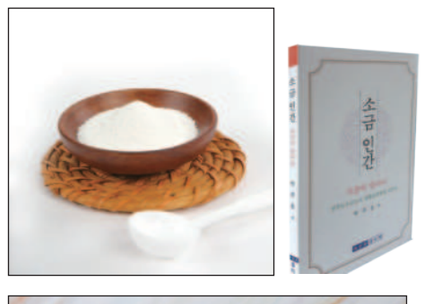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문현공 교수의 **죽음학과 불교** ❶ 연재를 시작하며

▶**문현공 동국대 응용불교학 전공 조교수**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천착해왔다. 명상과 종교심리학을 전공한 그는 그동안 죽음명상과 죽음학 등을 연구했다. 죽음은 삶의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죽음을 주제로 한 불교의 마음공부에 대해 익혀보자. 문현공 교수는 뉴욕주립대 한국학센터 객원연구원과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 등을 지냈으며, 주요 논문으로 〈불교 죽음 명상의 교육학적 적용〉, 〈죽음 현저성의 교육적 함의〉 등이 있다.



삶다운 삶을 위한 '죽음학과 불교'



인간의 죽음은 태어남과 동시에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인간은 기대수명을 채우고 죽음과 자연스럽게 만나기도 하고 돌발적인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만나기도 하며 심지어 스스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자연사, 사고사, 자살이라는 세 가지 죽음의 방식은 다시, '나 자신의 죽음', 내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 뉴스의 사망기사처럼 나와는 관련 없는 '타인의 죽음'이라는 세 가지 형태 안에서 공포, 불안, 슬픔, 우울, 무관심 등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은 시한부 환자와 같이 명확히 나타난 죽음에만 반응할 뿐이며 대부분 일상의 삶속에서 죽음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 그러나 죽음을 망각한 삶은 돌발적으로 나타난 죽음에 감당키 힘든 충격을 받거나 마치 삶은 영원한 듯 부와 성공, 명예만을 추구하는 왜곡된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든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감추며 살아가는 측면도 있다. 죽음이 평소에 잊혀 지지 않고 24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지나친 불안감으로 인해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생존을 지속해야 하는 '생존본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역설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삶다운 삶, 참다운 삶을 알기 위해서는 오로지 '삶'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탄생, 삶, 죽음'이라는 전체적인 틀 위에서 삶의 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왜 죽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전우주적 진리인 죽음에 대한 망각은 뒤틀린 생사관을 만들어 간다.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수명도 늘어난 현대 사회의,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낮은 행복 지수와 높은 자살률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오랫동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의 지난해 자살 인구는 10만명 당 25.7명으로 3위인 슬로베니아 16.5명, 4위인 일본 14.7명과 큰 격차을 보여준다. 보다 심각한 점은 국내 청소년 사망원인 1위 또한 자살이라는 점이다.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삶이 무엇인지, 왜 자살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힘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 자살의 근본 원인은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을 성공과 부 중심의 사회로 몰아가고 있는 어른들에게 있을 것이다.

자살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삶'에서 찾아야 한다. 행복한 삶은 자살과 연결되지 않는다. 자살률은 삶의 행복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OECD 자살률 1위인 한국의 행복지수는 37개국 중 35위이다. 또한 '한국방정환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아동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22개국 가운데 20위이다. 주관적 건강, 삶의 만족, 학교생활 만족, 소속감, 외로움 등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 중 특히, 국내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과 '삶의 만족' 항목의 점수는 최하위 권이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명이 늘어나면서 죽음은 감추어지기 시작했다. 묘지, 화장터는 혐오시설로 간주되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서 맞이했던 친숙한 죽음은 차가운 병실에서 대량으로 맞이하는 죽음으로 변했다. 하지만 자연적 이치의 은폐는 왜곡된 현상을 불러온다. 죽음을 감추면 감출수록 삶이 행복해지기 보다는 자살, 부와 성공 중심주의, 물질만능주의 등 일그러진 삶의 단면들을 생산해 낼 뿐이다. 죽음에 대한 담론을 활발히 하며 감추어진 죽음을 개방해 삶속에서 죽음을 드러내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한 죽음과 삶다운 삶에 대한 인식증가, 삶의 질 향상, 자살률 감소 같은 문제들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한다.

붓다가 사문유관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고 자신의 내면으로 철저히 받아들였듯, '생명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라는 생명의 속성을 많은 이들이 자각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들,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는 삶의 순간들의 소중함 또한 깨닫게 될 것이다. 결국 죽음에 대한 공부는 '삶다운 삶'을 위한 공부로 귀결될 것이다.

모든 번뇌의 근간 '죽음'
'삶' 소중함 깨닫는 원천
서구선 '생사학' 등 발달
불교와의 접점 고찰 중요

죽음학(thanatology)이란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연구(studies of death)를 의미하는 '죽음학'(thanatology)은 '학제간적(interdisciplinary)' 접근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 다층적 ·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죽음학을 말하는 영어 '타나톨로지(thanatology)'는 그리스 신화에 그 어원이 있다.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Thanatos)'는 밤의 신인 '닉스(Nyx)'와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Chronos)'의 아들이며 잠의 신인 '힙노스(Hypnos)'와는 쌍둥이 형제였다. 이는 죽음이 잠(수면), 밤과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며 또한 죽음이 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상징한다. 이에 따라 타나톨로지는 죽음을 뜻하는 '타나토스(thanatos)'와 '학문[學, science]'를 의미하는 접미사 'logia'에서 유래한 'logy'가 결합된 말이다.

죽음학은 미국을 중심으로 60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죽음학의 선구자인 헤르만 파이펠(Herman Feifel)은 1956년 『죽음의 의미(The Meaning of Death)』를 발간하며 종교, 철학, 사회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자연과학, 예술학 등의 영역을 '죽음'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통일했고 '죽음 각성 운동(death awareness movement)'을 전개했다. 이후 1969년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Elisabeth Kübler-Ross)는 〈죽음과 죽어감(On Death and Dying)〉을 출간하면서 인간이 죽음에 이를 때 다섯 가지 단계를 겪게 됨을 제시했는데 이는 죽음학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헤르만 파이펠의 영향을 받은 로버트 카스텐바움(Robert Kastenbaum)도 '죽음에 대한 심리적 관점(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Death)', '이론, 연구, 그리고 응용: 죽음학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Some critical issues for thanantology)' 등 심리학적 관점에서 죽음을 다룬 연구들을 발표하며 죽음학에 대한 불씨를 이어갔다. 1975년에는 레이몬드 무디(Raymond Moody)가 인간이 사망한 뒤의 경험을 다루는 근사체험(near-death experience)에 관한 책, 〈삶 이후의 삶(Life After Life)〉를 출간했고 이후 죽음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래 들어 미국은 '죽음교육 및 상담협회(The Association for Death Education and Counseling')'를 중심으로 '죽음연구(Death Studies)', '죽음과 죽어감(Death and Dying)' 등 학술지 간행으로 죽음학을 확산시키고 있다. 일본에서도 50여년 전부터 서양의 연구를 받아들여 '사생학(死生學)'이란 명칭으로 죽음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만에서도 푸웨이쉰(傅偉勳)의 사상을 중심으로 '생사학(生死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도 동국대학교 생사문화산업연구소, 최준식 교수의 '한국죽음학회', 한림대 '생사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죽음학', '생사학' 등의 명칭으로 죽음학이 연구되고 있다. 사실 죽음학은 단순히 죽음만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함께 연구하는 학문이다. 일본에서 죽음학을 '사생학'이라 칭하거나 대만과 한국에서 죽음학을 '생사학'이라 부르는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 있다.

죽음학과 불교, 그리고 융합적 연구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붓다의 수행법인 마음챙김 명상이 유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존 카밧진(Jon Kabat-Zinn)이 개발한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MBSR: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이 있다. 서양에서 붓다의 수행법이 유행하는 이유는 불교의 명상이 서양의 심리학과 만나면서 성공적인 재해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명상과 심리학의 '만남'은 한 영역이 다른 영역과 함께 연구되는 일종의 융합적 연구로서 '학제간(Interdisciplinarity)'적 연구라 불린다.

죽음학 또한 '학제간적 연구'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죽음학은 죽음에 대한 심리적, 교육적, 의학적, 종교적, 철학적 연구 등 죽음과 관련된 통합적 연구를 의미한다. '학제간(學際間)'이라는 용어는 각각의 학문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 죽음이란 하나의 주제로 각 영역의 축적된 연구를 총합하는 접근법이다.

'불교교육학'이라는 학제간적 연구의 선구자 박선영 교수는 '불교 교육(Buddhist Education)'을 '불교의 교육(Education of Buddhism)'과 '불교적 교육(Buddhistic Education)'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의 입장에서 교육을 수용하는 것은 '불교의 교육'이며 교육의 입장에서 불교를 채택하는 것을 '불교적 교육'이다. '불교의 교육'은 불교대학, 강원처럼 스님들을 위한 교육, 재가불자를 위한 교육 등 교단 내에 국한된다. 그러나 '불교적 교육'은 교육학적 영역에 불교를 도입하는 것으로 종교의 경계를 넘어 보편적 학문의 세계로 불교를 확장시킨다. 보편성에 불교가 진입하게 되면 불교는 불교도 뿐 아니라 모든 이들을 아우르게 된다.

앞으로 함께 공부할 주제들

고타마 싯다르타가 출가를 결단한 이유는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괴로움 즉, 생로병사 우비고뇌(生老病死 憂悲苦惱)를 넘어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 괴로움들 중에는 죽음이 정점에 있었다. 그는 사색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결국 죽음을 극복했고 그 방법을 설파하면서 불교가 시작되었다. 죽음은 불교 뿐 아니라 모든 종교, 철학, 문학, 의학 등에서도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다.

앞으로 함께 공부할 주제로는 먼저, 죽음을 알아가는 첫 걸음인 죽음의 정의, 그리고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maraṇasati), 부정관(不淨觀) 등 불교의 죽음관련 명상, 간병, 호스피스 같은 타인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 붓다의 사문유관과 죽음심리학(Terror management theory), 자살과 불교, 정토불교와 티벳 사자의 서, 근사체험에서 다루는 사후세계의 문제 등 불교와 죽음학을 함께 살펴보면서 죽음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동국대 응용불교학 전공 조교수〉

일일시호일

골육종에 무너진 청년의 꿈…
"다시 웃을 수 있길"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탄 골육종에 왼쪽다리 절단
병원비만 1000만원 이상…의족 있으면 걸을 수 있어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대행 스님

자기 앞에 닥치는 대로 맡겨 놓되 그냥 잘되게끔 결정을 지으세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질문 :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저희 청년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답변 :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좀 깊이, 우리가 평상시에 어렵지 않게 살면서도 한번 뒤집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요. 뭘 가지고 뒤집는다고 그러느냐 하면은 항상 얘기하죠. '이건 잘못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건 잘될 거다' 하고 뒤집는 거 말입니다. 그게 번연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잘될 거다' 하고 뒤집는 거, 무조건! 이건 공부하는 스님네들도 그렇거니와 사회적으로 지금 사는 분들도 그래요. 필요해요, 아주.

자기는 과거 정신계하고 자기 현실 물질계하고 포함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포함이 된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자기를 쓰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갈망해요?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짓고 일을 해요? 내일 일을 모르고 모래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 자기란, 살아나가는 데 결정적으로 일을 하고 결정적으로 결정을 짓고, 모든 거를 화해서 바꿔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뿌리, 나무의 뿌리와 같이 자기가 있다고 꼭 생각하세요. 있으니깐 지금 움죽거리고 말을 하고 모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회에서 지금 살아나가는 건 살아나가는 거로되,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잘된 거다' 이렇게 똑똑하게 따지는 것을 사회인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렇게 똑똑하게 못 보고 그런다면 참 사회인으로 똑똑하게 못 살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래 사회인도 이렇게 똑똑히 보되, 쉽게 말해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아주 위기에 걸려 있다, 저건 망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럴 때,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 회사 또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건 피바다를 일으키고 싸우는 싸움터나 마찬가지예요. 회사 하나에 거기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애들까지도 그냥 살 수가 없이 가정에서 울고 기가 막히게 가슴에 멍이 들어서 앨 쓰는 사람이 허다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받을 돈도 상당히 많은데 그게 부도가 나서 없어지면 받을 돈도 아주 영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무슨 이게 옳고 그게 옳고 이렇게 따져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자성불이 통신을 해서 모두 아래의, 즉 말하자면 하늘과 땅, 이 풍신 바람신, 이 물, 즉 말하자면 용신, 그런 분들이 한데 합쳐서 일을 하게 되니까 뭐가 좀 살게끔, 돈 못 받던 사람도 받게끔 일이 퍼지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해야 회사뿐 아니라, 사회뿐 아니라 가정도 모두 그래요. 그래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자리를 잡아야 저 불국사의 다보탑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 내면에 다보탑이 되어 있다. 아주 맥반석처럼 튼튼하게 되어 있다. 그걸 가지고 주장자라고도 하고 그걸 한자리라고도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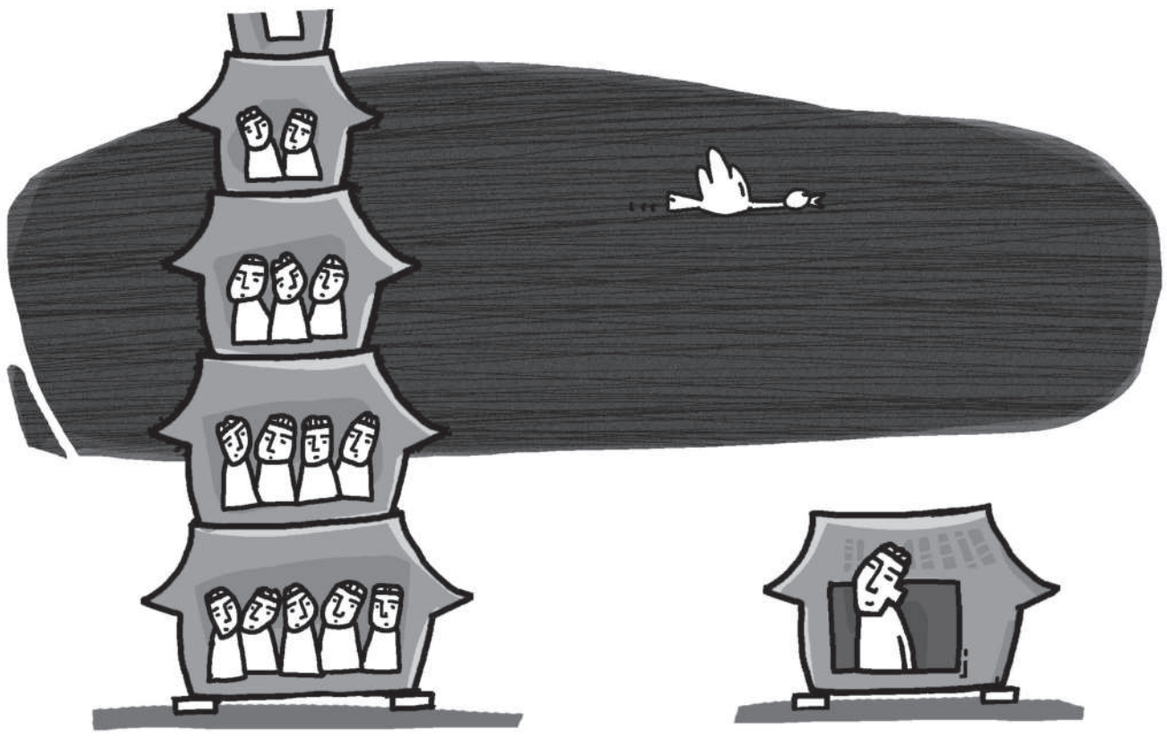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렇다면 그거는 무조건이죠. 무조건 결정을 지어야죠. 그거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한둘이 아니라, 가정도 한두 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야 되는 결정을 지어야죠. 군소리도 필요 없죠. '너는 이렇게 되어야 살지 않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그 생각이 천지를 진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이, 생각이 그냥 부실하게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바람을 통하고, 즉 말하자면 용신을 통하고 전부 통해서 이게 통신이 되는 거죠. 그게 한 순간이죠. 한 찰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너는 이 사회에서 옳고 그르고를 다 놔 버린다면 뭘로 사느냐 이러겠죠? 뭘 가지고 사느냐. 놔 버리는 거는 놔 버리는 게 아니라 믿어서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뭐가 이게 돈을 받지 못했다든가 밥을 굶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건 굶지 않고 꼭 먹어야 돼.' 먹게끔 아예 결정을 지어 버린다면 꼭 먹게 되죠. 근데 못 먹게 결정을 지어 버린다면 못 먹게 돼요.

알고 보면 여러분이 참 위대한 겁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자유스럽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 하나 어찌 못 해서 이렇게 어찔어찔하고 피곤하게 산다면 그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 길을 살려서 쓰는 게 아니라 길을 살려서 공용으로다가 씀씀이를 쓰니까 모두 더불어 같이하는 거죠.

그러니깐 무조건 어떠한 악한 일이 상대방에 있다거나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할 텐데….' 한다면 이건 해결을 선하게, 그냥 주인공에다가 해서 해결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인공에다가 항상 놓고, 뭐든지! 놓고 믿고! 믿어야 되겠죠. 이 소리가 우습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세세생생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력을 얻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식구들도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지나가다가 어떠한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건지는 데도 그 능력이 주어져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생각하세요. 차근차근히 하나서부터 그저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사유를 따지지 말고 그냥 자기 앞에 닥치면 닥치는 대로 그냥 맡겨 놓되 그냥 결정지어서, 잘되게끔 결정을 지으시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사람이 차에 치여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이쪽 사람은 줘야 하는데 줄 사람은 참 가난하고 어렵고, 근데 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조건 된다고 해라! 무조건 된다고 한다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그쪽의 마음도 달라지고 네 마음도 달라지고, 결정적인 일이 성사가 된다. 아니나 달라? 그쪽에서는 그 형세를 다 조사해 보고선 저거 하니깐 '보시한 셈 치지' 하고선 받질 않았답니다. 그래 그거를 무조건 받지 않는다고 해서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내가 결정을 지으면 그쪽 마음도 달라지고 이쪽 결정도 모두가 달라진단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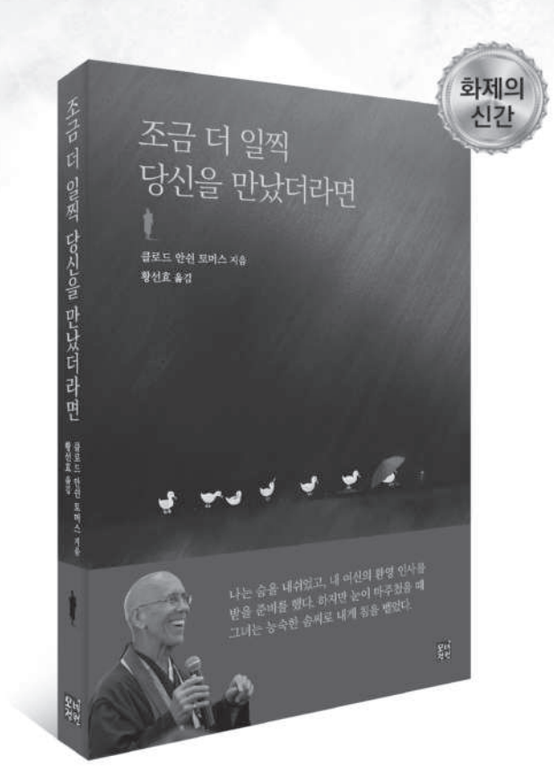
또 어떤 사람은 예전부터 살아온 그 습이 있어서 화를 내기 좋아하는데 화를 낸다고 한다면 그 화내는 자리가 잡혀 있어서 아무리 화내지 않을 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그게 잘 안돼요. 근데 그 자리를 그냥 왕창, 무조건 끊어요. 그냥 끊어 버려요. '화 안 내게 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너야!' 하고선 그냥 끊어 버려요. 잘되게 하는 것도 이것도 양면이 다 잘되게 하는 거니까, 그냥 아예 그냥 그냥 끊어서 결정을 해요. 이유를 붙이지 말아요. 이 공부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더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완전히 잡혀서 이거 그냥 공부가 다 되면 무심코 그냥 누구한테나, 거지한테나 누구한테나, 하여튼 길거리에 가다가도 그렇고 지나가다가 그냥 그 마음이 그쪽 생각도 들어 보지 않고도 결정을 지어요,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면 그쪽의 원소는 다 알고 있어요. '참 고맙습니다.'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 이 중요한 것이, 정신계의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이거 따지려면요, 공부 못 해요. 진짜 사람도 못 되고요. 여러분 집안의 한 식구가 나가서 그게 잘못되면 거지가 될 판인데, 식구가 거지가 될 판인데 어떻겠어요? 마음이 발발발발 떨리고 그러

☞ 22면으로 계속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내가 한 걸음 걷고 말하고 움죽거리는 게 다 부처님 법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공부하는 동생이 "에이, 우리 형이 그렇게 안 되면 누가 돼? 식구를 다 죽일 거야? 그냥 돼!" 하고 결정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형이 아주 그냥 웃음이 만발해 가지곤 집에 들어오는데 "형! 됐지?" 이런 소리도 안 하고, 벌써 알고요, 믿으니까. 알고 "형! 잘 다녀왔어?" 하니까 "잘 다녀오고 말고. 아유, 무슨 덕인지 몰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됐는지 몰라." 결정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건데 그냥 저쪽에서부터 결정이 그렇게 쉽게 나오니깐 무슨 백을 가졌기에 그러냐고, 대통령 백을 가졌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거 못 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을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다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급하게 왔을 때는 그걸 어떻게 이루종차 얘기를 하고 해요? 얘기를 해도 모르거든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조상들이 잘못해서 유전이 된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해결을 못 해요. 그리고 말도 못 한다고요. 그거 말을 하면 무꾸리쟁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 하고 그냥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남이 해 줄 때 바라는 건 안 되죠. 누구든지 대신 못 살아 준다는 건 아시죠? 이 결정적인 문제를 단호히 뒤집을 줄 알아야 해요. 뒤집을 줄 알면, "뒤집으면 안 될 거를 뒤집는다고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돼요! 왜냐? 상대방도 달라지니까. 사람의 마음이 같아지니까. 그래서 그 묘하다고 묘법이라고 그러죠. 진짜로 믿고 참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리만큼 귀해요.

자기 주인공이 자부처고 자불이라고 그러죠, 주장자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느라고 10년 20년 30년 40년,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못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마 안 돼서 그것을 자기 동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 나오죠. 자꾸 이게 믿지 못해서 생각을 옳게 했다가 다시 돌려서 또 옳지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이게 나오려고 그러다가 그만 못 나오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못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그러죠. 그런 문제들이 허다 많아요.

말로만 이렇게 듣고 경험을 못 하신다면 참 억울하기가 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도록 열심히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내가 알고 모르고, 그거를 무조건! 나는 그냥 나다 이러더라도 그냥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있다는 거, 동자가 있다는 거. 동자를 키워야 되겠다. 자기가 자꾸 해 봐야 그거 키워지죠. 그러면 그 동자하고 자기하고 둘이 아니죠. 그러면 모든 데가, 여러 군데가 다 통해요.

그럴 때 아까 얘기했죠. 이 신은 물에서 있는 저 용신도 내가 되고 내가 용신도 되고, 이렇게 바꿔서 이것도 되고, 개구리가 되려도 개구리가 되고, 뭐든지 건지려면 다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생각하면 사람이라는 이 존재도 짐승들의 삶이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좀 진화돼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뿐이죠. 그거를 여러분이 진행을 안 해 봤으면 이해도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 봐야 '이렇구나!' 하고 눈물도 저절로 나오고 웃음도 저절로 나오고 기가 막혀서 껄껄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세 번 죽어야 한다는 뜻

질문 : 대행 큰스님께서 세 번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요. 그렇다면 초보 불자로서는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에 첫째에 모든 것을 놓는다.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 모든 잡념과 모든 전자에서부터 얻은 그 습성을 다 녹여 버리고 자기의 그 참 생수 맛을 봐서 자기가 자기를 알았을 때에, 이차적으로 자기를 또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상대방과 나와 다시 죽는 법을 또 배워야 된다. 상대방과 나와 다시 죽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과 나와 더불어 같이 나툴 줄 알아야 한다. 만약에 상대방과 나와 죽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나와 같이 나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두가 이러한 경험 저러한 경험, 우리가 살림살이에서 다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놔 버리는 데, 맡겨 놓고 사는 데 여념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생활을, 온갖 작동을 다 하면서도 그 모든 작동하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전수가 차를 몰고 다니듯이 차는 그 운전수에 달려 있는 것이지 차가 운전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듯이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자기 전자부터의 종 문서는 몰락 태워 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탄생했을 때 내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엉뚱하게 이 세상에 걸맞지 않는 말과 행이 솟아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관을 통해서 내가 보고 이것이 걸맞지 않는다면 자기가 제재해서 근본 자리에 다시 놔야 하는 법입니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무조건 들어서도 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안팎이 다 그렇겠죠?

그래서 양면을 다 쥐고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 할 필요도 없이 즉각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거 잘됐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됐다는 걸 번연히 안다면 이것을 믿고 들어가라. 믿지 않는다면 물론 불평이 나오고 상대가 있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믿고 상대가 없다면 불평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 소리를 들었다 저기에서 저 소릴 들었다, 저걸 봤다 이걸 봤다 했을 때 믿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다. 믿지 못하는 까닭에 소릴 들었기 때문에 분이 일어난다, 소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말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나라면, 둘로 보지 않았다면, '아, 그렇기도 하겠지. 고정됨이 없으니까 때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 하는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한마디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는 거죠. 자기 안에다가 모든 것을 '아, 내가 지금 현재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러한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째 이렇게 될까.' 하고 생각이 됐을 때는 안에서 굴려서, 자기가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내가 지금 세 단계가 없는 세 단계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도리를 거기에서 넘기지 못한다면 같이 죽어서 같이 나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거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철 사는데 사람답게, 한마음 한뜻으로써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경계하지 말고, 적어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가짐가짐을 갖고 언제나 항상 말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생각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게 그게 업보가 얼마나 큰지 모를 겁니다, 아마. 그냥 추측으로 생각하고 그냥 막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다면 그건 업보가 큽니다. 그러니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이 생각하십시오, 각자. 남이 칼로 찔러 죽인다, "너 이놈! 내 오늘 저녁에 너를 칼로 찔러 죽인다." 그러더라도 "허허" 하고 빙긋이 웃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탓 안 하고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주인공만, '내가 있으니깐 찔러 죽이러 온다지, 내가 없다면 찔러 죽일 게 뭐 있어서 오겠나.' 하고선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칼도 들지 못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부처님 법이 어디 따로 있나요? 내가 부처님 법이고 내가 부처님 법을 행하고 있고, 내 가정이, 다 살아나가는 게 부처님 법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한 걸음 걷고 말하고 움죽거리는 게 다 부처님 법이니, 이것이 참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를 발견하는 바로 재료구나. 부딪치는 게 다 재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와 자가 상봉하려면

질문 : 저는 나름대로 마음 도리 깨달아 보고 싶어서 부처님 경전을 보고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부와 자가 상봉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 한 철 사는데 사람답게
> 한마음 한뜻으로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경계하지 말고
> 언제나 말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답변 : 자기가 지금 이렇게 움죽거리게 된 것은 자기가 과거에 살던 자기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과거 자기는 '부(父)'가 되고 지금 현재에 형성된 자기는 '자(子)'가 되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부가 저절로 되고, 생각을 냈다 하면 자가 되는 거죠. 그냥 가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부가 되고, 생각을 냈다 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자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으면 자가 부로 하나가 되고, 또 생각을 냈다 하면 부가 자로 와서 하나가 되니 부다 자다 할 것도 없는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진실히 믿고 잘하든 못하든, 알든 모르든, 경을 보든 안 보든…, 즉 말하자면 경을 보면 '아, 이건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따로가 되죠. 따로가 돼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삼천 년 전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든, 현재에 말씀하신 거든 '내'가 없으면 어떤 것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있는 거니까요. 내가 있기 때문에 책을 볼 수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의 작용을 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작용하는 나를 누가 형성시켰는가? 그 바로 자기란 놈이 형성시켜 놨잖아요. 그렇죠?

자기란 놈이 형성시켜 놨으니까, 그 형성시킨 자기란 놈이 바로 부가 되는 겁니다. 자기, 참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형성된 '자'의 마음은 바로 '부'의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꼭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나무는 제 뿌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흙이 덮여서 그 나무가 제 뿌리를 못 보게 된 것을 무명이 덮였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바로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근본 뿌리를 자기가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모르고 그걸 떠나서 진실하게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 작용하는 일체를 나오는 자리에다가 되맡겨 놓으면, 바로 입력이 된 데다가 다시 맡겨 놓으면 과거의 입력이 없어지고 새 물로 대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입력이 되죠.

주인공 맛을 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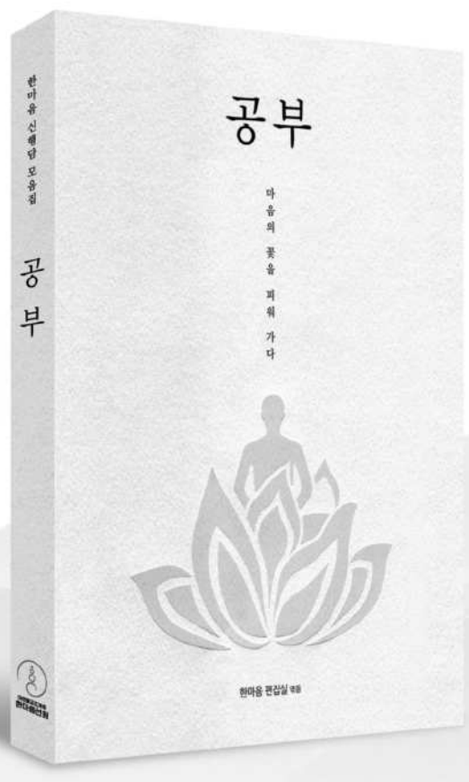
질문 : 선원에서 공부한 지는 몇 년 됐는데 아직 그 주인공 맛을 못 보고 있어 답답합니다. 뭔가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답변 : 지금 선생님 영혼이 없으면 그 몸뚱이가 송장이 돼서 말도 못 할 텐데, 그걸 모르세요? 바로 뿌리와 싹이 한데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알고도 싶고요. 그런 거니까 자기 영혼의 뿌리를, 즉 말하자면 불성을 진짜로 믿고요, '다른 데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바로 밀접하게, 뿌리와 싹이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구나. 그러니 진짜로 믿어야겠다.' 하고 거기다가 전부 놓으십시오. 이 생활하는 것을 몽땅 말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이 세상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지 탄생을 안 했더라면 무효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아예 이름조차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탄생을 했으니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는 것이지 아, 싹이 없는데 무슨 뿌리가 있겠습니까? 뿌리도 싹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뿌리를 진짜 믿으시고 '이끌어 가는 것도 너고, 또 나를 형성시킨 것도 너니까 깨닫게 하는 것도 너다!' 이렇게 모든 거를 거기다 맡겨 놓으시고 겸손하게, 진짜 자기 그릇대로 사세요. 그릇대로, 참자기의 그릇을 아시고 그저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 보세요. 그런다면 반드시…, 그건 거짓이 없습니다. 영원한 자기의 보배인 부처는 거짓이 없어요.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우연히도 없고요, 아주!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제가.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마하몰 www.mahamall.co.kr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 현불 논단 |

투표, 기후변화 운명 결정한다



민정희
국제종교시민사회
네트워크 사무총장

2050년 탄소중립 위해서는
기술 개선 · 정책 도입 절실
개인 실천으로는 한계 여실

온실가스 배출 80% 점유한
고소득 국가서 방향 전환을

바른 환경 정책 가진 후보를
올해 각종 선거에서 선출해야

시민들의 기후위기 인식이 높아지면서 탄소 자국을 줄이려는 개인행동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2008년 15만 명이었던 채식인구는 10년 만에 10배로 늘었다. 그렇다면 채식을 포함하여 자전거를 타고, 물건을 덜 구매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개인의 행동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하는 상태)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의 40%는 재생에너지 확대나 산업부문의 청정기술 사용을 위한 정책도입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55%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에너지효율 기술 개선, 주택의 단열 개선 등과 같이 정부의 조치와 소비자의 선택이 결합된 행동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 반면, 비행기를 덜 타거나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개인행동만으로는 4% 정도 줄일 수 있다. 한마디로, 개인적인 차원의 행동만으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기술 개선과 보조금 지원과 같은 정부 정책이 도입될 경우, 온실가스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개인적인 차원일지라도 고소득 국가의 사람들이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네이처(Nature)지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2050년까지 약 50%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부유한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 일본과 한국 등 G20 국가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점한다. 특히, 전 세계 상위 10%의 부자들이 배출하는 온실 가스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2%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행동은 중요하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40%, 재생에너지는 6.5% 수준에 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40%가 넘는 독일과 영국과 비교되기 어렵고, 전 세계 평균인 27%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공정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개도국보다 더 많이 배출한 한국은 2050년 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생에너지 확대 외에도 철강, 시멘트, 정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과감한 축소,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전환에 동반될 사회적 부담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겪게 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 나눔,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에너지와 산업전환과 정책변화의 흐름을 3~4년 이내에 선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IMF 외환위기의 충격과 공포를 경험했던 국민이라면 국가 지도자의 선출이 나의 삶, 가족의 생명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기억할 것이다. 수많은 기업이 줄도산하면서 거리로 내몰리고 해체된 가정이 부지기수였다. 많은 국민이 현재까지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IMF 당시 금융권에만 투입한 국민 혈세가 160조라는 것을 기억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가계부채 탕감은 거론조차 죄악시하면서 대기업과 금융권은 늘 국민 혈세로 빚잔치를 해왔다. 그런 결정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과 정치인이다. 정책을 보고 선출하기보다는 학연, 지연, 혈연을 중심으로 선출한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오는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 6월 1일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다.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나와 공동체의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쉬운 선택으로 투표만한 것이 있을까.

社 說

불교공약, 이번엔 현실화될까

올 3월 9일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계종이 '20대 대선 정책자료집' 을 발간했다. 크게는 △국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유산 △국민과 함께하는 자연문화공원 △국민과 함께하는 평등세상 △남북이 함께하는 불교문화교류 △불교계 현안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불교정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항목만 봐도 대략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을지 충분이 예상 가능하다. 매번 대선 때마다 되풀이 돼온 불교계 숙원과제였기 때문이다.

불교계는 그동안 대선 때마다 불교정책을 제안해 왔다. 제17대 · 18대 · 19대 모두 각 후보들은 이를 반영해 불교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럼에도 왜 불교계는 아직도 과거와 대동소이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을까. 이유는 명확하다.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 관람료 폄훼 발언' 이 불교계 공분을 불러 일으킨 이유 역시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이미 17대 이명박 前대통령 당시부터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이후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대통령 역시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을 약속했었다. 불교계가 15년을 기다렸지만 변화는 없었고 '문화재 관람료' 는 '통행세' 로, 사찰은 '봉이 김선달' 로 전락했다.

이제 더 이상 공허한 약속이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 보다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논의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챙기고 점검해야 한다. 그 전제로 불교계가 요구하는 정책들이 '밥그릇 챙기기' 가 아닌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보존계승과 발전, 또는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인 현안이어야 함은 당연지사다.

종교편향 대응은 '파사현정'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교폄훼 발언과 문재인 정부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갈등이 좀처럼 잦아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각 교구본사와 승가단체, 포교신행단체들은 불교폄훼를 자행한 정청래 의원의 진정한 참회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은 1월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를 봉행키로 최종 결정하고 종단적 역량을 총집결키로 했다.

중앙일간지와 몇몇 불교단체들은 조계종의 문제 제기를 '대선을 앞두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는 등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종교편향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본다면 조계종으로 대표되는 한국불교의 공분을 쉽게 알 수 있다.

1945년 이승만 정권이 기독교 인사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기독교국가의 건설을 주장했던 당시부터, 공공영역에서 종교편향 · 종교차별의 역사는 예견돼 왔다.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의식구조는 '종교 인권 감수성' 의 미비로 이어졌고, 각종 편향 정책을 야기했다.

1차로 폭발 사례가 이명박 정부다. 당시 이명박 前대통령은 조찬기도회서 무릎을 꿇었고, 정부의 국가교통정보시스템에서 사찰 정보를 누락시키는 등 종교편향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2008년 8.27범불교대회가 열렸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을 '알현' 했고, 문체부는 캐롤 활성화 캠페인을 통해 '공공선교' 를 자임했으며, 여당의 의원은 불교를 '봉이 김선달' 로 매도했다. 종교편향은 비단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악습이다. 이에 맞서는 것은 '파사현정' 행위, 그 자체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① 오징어 게임

인간, 본래면목 보이다

"어두워져 가는 골목에 서면, 어린 시절 술래잡기 생각이 날거야. (중략) 이제는 커다란 어른이 되어 눈을 감고 세어보니, 지금 내 나이는 찾을 때도 됐는데."

필자는 넷플릭스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을 본 직후 조용필의 노래 〈못 찾겠다 꾀꼬리〉를 흥얼거렸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한다는 게 〈오징어게임〉 서사의 골자이다. 〈오징어게임〉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게임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게임을 중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게임까지 참가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게임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 때문에 은연중에 관객들은 성선설(性善說)과 성악설(性惡說)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작품 속에서 거액의 상금에 눈이 멀어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비인간적인 게임을 창시한 것은 일남이다. 일남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게임을 창시한 이유는 게임 참가자들의 면면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이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이다. 이는 작품 말미에서 일남이 기훈에게 혹한의 날씨에 눈밭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내기를 하자는 대목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성선설과 성악설은 종교의 주요한 화두이기도 하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인간이 신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되고, 불교 입장에서 보면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 사상에 따르면 죄인의 반대말은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義人)이다. 죄인은 원죄를 지은 아담처럼 신의 섭리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의인은 원죄를 대속한 예수처럼 신의 섭리에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불교 사상은 어떨까? '일체중생(一切衆生) 실유불성(悉有佛性)' 즉,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자질이 가지고 있다는 게 대승불교 사상의 근간이다. 다만 세친은 〈유식론(唯識論)〉에서 '일천제불성불론(一闡提不成佛論)'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근을 단절한 중생은 성불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오징어게임〉은 〈헝거게임〉등 서바이벌 게임을 모티브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 빚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오징어게임〉은 다른 서바이벌 게임을 다룬 영상물과 달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달고나 등 어린이의 놀이를 소재로 다루고 있다. 어린이들의 놀이는 어른들의 놀이와 달리 영리적 목적의식이 없다. "그렇게 재밌었던 건 정말 오랜만이야"라는 일남의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어린이들의 놀이는 순전히 재미에 목적이 있다. 놀이의 규칙도 어른들의 놀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분별심이 적기 때문이다.

연출가는 어릴 적 놀이를 목숨 걸고 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본래면목을 돌아보라고 충고하고 있다.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福
새해에도 BTN과 함께
어두운 마음은 불행을 불러들이고 밝은 마음은 항시 행복의 길을 튼다
- 성우스님 시집 '마음' 발췌 -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olleh 233번 tv 305번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사단법인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청송 청파
총무원장

교육원장	동담 백천	기획실장	대비	종 회	의장
감찰원장	동암 원효	사서실장	동판	사무국장	동석 우석
문화원장	덕일 금산	총무부장	동봉 태공	창원교구원장	동백 지원
고시원장	도진 동영	복지원장	동법 혜조	포교원장	동우 영산
사회원장	덕진 도광	수선원장	동성 혜각	의전원장	동민 경오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 3통, 사진(3×4) 3장, 이력서 3통
종회위원 일동



총무원
50809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시례마을
TEL : 055-336-0108, 335-0178
FAX : 055-336-7070 / H·P : 010-3595-6522, 010-8939-6522



33th 전문신문 인쇄의 역사
SINCE 1989

현대불교와 한국씨티에스는
전문신문의 역사를 함께 합니다.

33년 전통의 기술력과 최신 설비(HAMADA / TKS 윤전기 (4색도) ; 35,000부/H)를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 200여개 신문제작 대행으로 실력이 검증된 기업, 고품질 인쇄와 안정적 프로세스를 자랑하는 (주)한국씨티에스는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쇄소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중시하고 최고의 만족으로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년 전통 인쇄 기술력


200여종 신문제작 대행


차별화된 시스템

본사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2층
Tel. 관리부 02)362-1199 / 영업부 02)362-6677 / 전산실 02)362-5311

제작센터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1가길 42-36 (온수동)
Tel. 02)2684-3377